

濟州島方言의 動物 이름 研究

－ 語彙論을 中心으로 －

지도교수 康 琪 鎭

이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3년 월 일

京畿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專攻

姜 榮 峯

姜榮峯의 博士學位 論文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1993년 월 일

京畿大學校 大學院

目 次

논문 개요

I. 緒 論

1. 研究目的	1
2. 研究範圍 및 方法	2
3. 先行研究	5

II. 濟州島方言의 動物 이름

1. 家 畜	9
1) 소	9
2) 말	21
3) 돼지	35
4) 닭	38
5) 개	40
2. 野生動物	43
3. 鳥	48
4. 昆 蟲	58
5. 爬蟲·兩棲	79
6. 水 族	83
1) 물고기	83
2) 조 개	105
3) 갑각·기타	115

III. 濟州島方言의 動物 이름 類型

1. 命名方法의 類型	122
2. 系統別 類型	128

3. 形態別 類型	133
1) 음절 구조의 유형.....	133
2) 어휘 구성의 유형.....	136
3) 접사의 유형	144
IV. 語彙史에서 본 濟州島方言의 動物 이름	155
V. 結 論	161
參考文獻	163
Abstract	168

논 문 개 요

이 글의 논의 대상은 제주도의 언중들에 의하여 쓰이는 동물 이름들이다.

- (1) 家畜(소·말·돼지·닭·개)
- (2) 野生動物
- (3) 鳥
- (4) 昆蟲
- (5) 爬蟲·兩棲
- (6) 水族(물고기·조개·갑각)

동물 이름의 어휘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제주도가 처한 자연 환경과 함께 언중들이 지니고 있는 관념이 반영되었으리라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제주도의 언중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350여 동물 이름들을 분석하고 내재된 의미를 추출함으로써 동물 이름들이 갖는 속성과 특징을 알아보려고 했다. 나아가 제주도방언이 지니고 있는 ‘고어성의 유지’를 동물 이름들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었다.

고문헌에 나오는 동물 이름들을 제시하여 제주도방언과의 비교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한편, 동물 이름들의 변천 과정을 살필 수 있게 하였다. 또 다른 방언과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지역의 방언 자료집과의 비교도 이루어졌다. 특히 마소에 대한 이름들이 세분화되어 있음을 제주도가 지니고 있는 자연적 환경의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즉 한라산과 乾川이 자연적인 울타리가 되고 목초의 성쇠에 따라 1년 내내 방목에 의존하는 종년목장을 형성, 그에 따른 식별의 필요성이 세분화된 이름을 낳은 결과가 된 것으로 보았다.

제주도방언의 동물 이름 유형을 명명 방법·계통·형태별로 나누어 살폈다.

명명 방법의 유형으로는 색채·형태·습성·기능·유추 등을 제시하였고, 계통별로는 고유어·외래어·혼합형의 이름으로 나누었다. 형태별 유형으로는 음절 구조·어휘 구성·접사로 살펴보았다.

명명 방법에는 색채·형태·유추에 따른 이름이 많아 명명자의 관념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절 구조는 3음절어(42.8%)·2음절어(23.5%)·4음절어(20.5%)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1음절어는 15개 이름에 불과하고 6음절어는 3개에 지나지 않았다.

어휘 구성은 N유형·V유형·A유형·Ad유형·Pf유형과 Sf유형이 있었다. N유형(61.9%)이 가장 생산성이 있었으며 V유형(1.2%)은 4개 어휘에 불과하였다. 이는 동물 이름이 명사라는 범주로 볼 때 당연한 귀결이다.

접두사로 {돛-, 먹-, 생이-, 숙-, 신-, 식-, 쉼-, 자리-, 장-, 조-, 쫓-, 풀-}과 접미사로 {-다니, -래비, -생이, -자리, -찌} 등을 새로 찾아내게 되었다.

제주도방언의 동물 이름들이 갖는 국어 어휘사적 가치를 ① 多重의 층위적 어휘가 병존해 공시태로 쓰이고 있다. ② 고어성을 유지하고 있다. ③ 음절 신장은 색채어 첨가·형상어 첨가·접사의 첨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같은 의미의 접사 예를 들면 黑의 의미로 {돛-, 먹-, 숙-, 신-, 식-, 석-} 등 6개의 접두사가 있었다. ④ 어휘 팽창은 차용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몽골어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몽골어의 차용관계는 제주도방언의 절대적 위치에 있음을 역설하였다.

I. 緒 論

1. 研究目的

이 글은 제주도 언중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동물 이름 어휘에 대한 연구다. 제주도방언에 대한 조사·연구가 1911년부터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약 80여년이 되고, 연구 업적도 놀랍다(玄平孝·강영봉, 1993: 1214~1220). 연구 업적 200여편 가운데 어휘 분야가 36편¹⁾이나 되지만 질적인 면에서 볼 때 아직도 “미개척 상태”(玄平孝, 1987: 5)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여기서 동물 이름의 어휘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제주도가 처한 자연 환경과 함께 언중들이 지니고 있는 관념이 반영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자연적 환경이 중년목장을 형성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마소의 이름들을 세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나아가 제주도민의 의식이 투영된 巫歌 본풀이에서도 소를 잡아 먹어 이혼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가축을 이혼의 사유가 될 만큼 중요시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또 사면의 바다가 언중들의 생활 터전이기에 물고기 이름에도 제주도민의 의식이 깔려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제주도 언중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동물 이름들을 분석하고 내재된 의미를 추출함으로써 동물 이름 어휘들이 갖는 속성과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동물 이름들을 살펴보고, 그 이름의 유형을 명명 방법·계통·형태별로 나누어 고찰할 것이다.

나아가 제주도방언이 지니고 있는 “고어성의 유지”라는 이야기를 동물 이름을 통하여 확인하고자 하는 데에도 또 다른 목적이 있다.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조항범(1989: 140)이 지적하고 있는 “어휘론의 일차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와 지역을 고려한 어휘재의 수집과 정리 작

1) 玄平孝(1987)에는 1986년까지 172편의 연구업적이 분야별로 통제처리되어 있다. 음운(32), 형태(54), 어휘(31), 계통(6), 지명(12), 방언구획(2), 사회방언(2), 일반(24), 자료(9)로 집계되어 있다. 그 이후 5편이 추가된 숫자이다.

업이 활발하지 못할 뿐더러 이미 부분적으로 정리된 어휘재에 대한 재분류 정리 작업도 미진한 형편이다. 이러한 새로운 어휘재를 발굴, 수집, 정리하고 개별적인 어휘 모음을 다시 분류 정리하는 두 작업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2. 研究範圍 및 方法

이 글의 연구 대상은 일정한 곳에 着生하는 식물을 제외한 살아있는 동물 이름이 된다. 곤 가축 이름, 야생동물 이름, 새 이름, 곤충 이름, 파충·양서류의 이름, 그리고 물고기 이름, 조개 이름, 갑각류의 이름이 포함된다.²⁾

이 동물 이름들은 어휘집인 石宙明의 《濟州島方言集》(1947)·《濟州島資料集》(1971), 朴用厚의 《제주방언연구》(1960·1988 재판), 玄平孝의 《濟州島方言研究 제1집》(1962·1985 재판)을 근간으로 하고, 필자가 조사 수집한 어휘가 포함된다. 학술 조사 보고서의 형식을 띤 몇 개의 보고서도 참고하였다.³⁾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가축 이름에서 갑각류 이름까지 그 이름에 내재된 의미를 파악한다. 문헌어와의 비교를 위하여 문헌에 등장하는 이름이 나열되고, 다른 방언과의 유사성도 찾는다.

Ⅲ장에서는 이 방언에 쓰이는 동물 이름의 유형, 곤 명명방법의 유형, 계통별 유형 그리고 형태론적 유형을 살핀다.

Ⅳ장에서는 이 방언의 동물 이름들이 국어 어휘사의 위치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가 언급되며, Ⅴ장은 이 글의 결론이다.

필자가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방언학의 입장을 취한다. 기존 자료집의 어휘를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새로운 어휘도 수집하였기 때문이

2) 이 분류는 박용수(1989)의 《우리말갈래사전》을 준용한 분류다.

3)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의 학술조사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국문학보》 제4집~제11집(1972~1992)

《학술조사보고서》 제5집~제8집(1976~1984)

《백록어문》 2~7(1987~1990)

그밖에 《수산일반향토교육자료》(1983), 《베릿내 학술조사보고서》(1991) 등이다.

다. 공시태를 중시하여 동물 이름의 의미 내용을 추출하고, 그에 따라 형태소 분석도 시도하였다.

동물 이름의 변천을 살피기 위해 문헌어를 제시하고, 다른 방언과의 비교도 행해졌다.

여기서 몇 사항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한다.

그 첫째는 제주도방언을 하나의 큰 방언 구획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언증들에 따라 山南(남제주군)과 山北(북제주군)의 문화행태가 다르고 말도 차이가 있다고 한다. 海村과 중산간 마을의 언어도 다르다.⁴⁾ 이는 제주도방언이 몇 개의 하위 방위권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는 말과 같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이 방언 구획에 있지 않으니 지역적 상이한 방언형은 무시하여 하나의 큰 방언 구획인 제주도방언으로 취급할 것이다.

둘째, 이 글에서 쓰이는 문헌어의 개념은 《訓民正音》에서부터 《字類註釋》까지 곧 1443년~1856년 사이에 간행된 고문헌의 한글 어휘란 뜻이다. 이렇게 폭을 넓게 잡음으로써 동물 이름의 변천을 살필 수 있고, 나아가 이 방언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조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동물 이름들이 한자 어휘로 표기된 《지봉유설》·《자산어보》·《우해이어보》·《전어지》·《오주연문장전산고》·《규합총서》의 내용은 철저히 배제한다.

문헌어를 이용한 고문헌은 아래와 같다(()속은 영인·출판사항임).

訓民正音(이우출판사, 1980년 영인본)

龍飛御天歌(대제각, 1973년 영인본)

釋譜詳節(대제각, 1973년 영인본)

月印千江之曲(대제각, 1974년 영인본)

楞嚴經諺解(대제각, 1974년 영인본)

4) 玄平孝(1962·1985)의 자료집에는 조사지점에 따른 방언형이 밝혀져 있어 어느 정도 역적 차이점이 나타나 있다.

또 줄고(1986)에서도 식물 이름을 통하여 海村·中山村의 방언적 차이를 밝히고 있으며, 康貞姬(1988: 20)에서도 남군·북군의 어휘가 다름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방언이기는 하지만 李翊燮(1981: 126~130)에서도 농촌과 해촌간의 언어분화를 논의하고 있고, 이기갑(1986: 137~140)에서도 자연지리로 방언을 나누어 보고 있다.

法華經諺解(대제각, 1974년 영인본)
 圓覺經諺解(대제각, 1973년 영인본)
 救急方(한글학회, 1975년 영인본)
 杜詩諺解(대제각, 1973년 영인본)
 救急簡易方諺解(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2년 영인본)
 四聲通解(대제각, 1974년 영인본)
 訓蒙字會(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3년 영인본)
 時用鄉樂譜(대제각, 1973년 영인본)
 新增類合(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84년 영인본)
 千字文(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73년 영인본)
 詩經諺解(대제각, 1976년 영인본)
 小學諺解(단국대 동양학연구소, 1991년 영인본)
 老乞大·朴通事(대제각, 1974년 영인본)
 譯語類解(아세아문화사, 1974년 영인본)
 倭語類解(태학사, 1988년 영인본)
 松江歌辭(대제각, 1973년 영인본)
 同文類解(아세아문화사, 1986년 영인본)
 蒙語類解(서울대출판부, 1971년 영인본)
 方言類釋(홍문각, 1985년 영인본)
 物譜(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5, 1960)
 才物譜(아세아문화사, 1980년 영인본)
 靑館物名攷(경인문화사, 1974년 영인본)
 物名考(조선학보 16~20집 영인본)
 字類註釋(건국대출판부, 1985년 영인본)

또 하나, 이 글에서 쓰이는 문장부호는 다음과 같다.

‘ ’: 방언형
 < >: 문헌어·표준어·타 방언형
 “ ”: 설명·인용
 < >: 책 이름
 { }: 형태·형태소
 []: 음성형

그리고 자모에 따른 발음 기호는 다음과 같다.

ㄱ : {k} · {g}	ㅈ : {c}
ㄴ : {n}	ㅊ : {ch}
ㄷ : {t} · {d}	ㅋ : {k ^h }
ㄹ : {l} · {r}	ㅌ : {t ^h }
ㅁ : {m}	ㅍ : {p ^h }
ㅂ : {p} · {b}	ㅎ : {h}
ㅅ : {s}	
ㅇ : {ŋ}	
ㅏ : {a}	ㅓ : {ɐ}
ㅑ : {ja}	ㅕ : {ɛ}
ㅓ : {ə}	ㅖ : {e}
ㅕ : {jə}	ㅗ : {ø}
ㅗ : {o}	ㅛ : {wə}
ㅛ : {jo}	ㅜ : {wi}
ㅜ : {u}	ㅠ : {wi}
ㅠ : {ju}	ㅡ : {we}
ㅡ : {i}	ㅣ : {jɐ}
ㅣ : {i}	

3. 先行研究

우선 이 방언에 대한 어휘분야 업적을 대강 살펴보자.

50년대 이전까지는 小倉進平(1924), 方鍾鉉(1937), 石宙明(1947)이 있다. 小倉에서는 말 이름이 몽골어에서 들어온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方鍾鉉은 가파도의 바람이름을 조사해서 고대어와 비교하고 있다. 石宙明은 어휘집인데, 약 7천여 어휘가 올라 있다. 다른 방언과 비교하고 있는가 하면 외국어하고도 비교하고 있다.

50년대에 들어서면 金完鎭(1957)은 이 방언 언증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일본어 어사 240여 어휘가 조사되었고, 60년대에 오면 꽤 두툼한 방언집이 만들어졌다. 朴用厚(1960·1988)·玄平孝(1962·1985)인데, 전자는 전래적인 분류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여러 조사지점을 정하여 5차에 걸친 치밀한 작업의 결과다. 金文奎(1960)는 潮水·干滿의 이름·말 이름이 고찰되었고, 梅田博之(1963)는 기초 어휘 200 항목에 따라 中鮮方言, 南鮮方

言, 濟州島方言과 中期語에 대해서 상호 통계학적 조사를 하였다.

玄平孝(1968·1969)는 <나무>·<나물> 어사를 두고 언어충위학적 접근을, 張泰鎮(1969)은 제주도 해녀 집단의 특수어를 고찰하고 있다.

70년대에 들어서는 姜根保(1972)는 swadesh가 선정한 기초어휘 조사항목에 따라 15세기 문헌어와 표준어, 방언 어휘와 비교하여 이 방언의 분기연대를 추정하고 고어성을 밝히고 있다. 金洪植(1975·1976)은 <가위>와 <가쟁이> 어휘에 대하여 통시론적 입장에서 살피고 있다. 또 김홍식(1980)에서는 <비바리>에 대해서, 金洪植(1982)은 <낭>(木) 어사에 대해서 고찰하고 있다.

李英姬(1982)는 상징어에 대해서, 李男德(1982)은 <가르다>의 어원을 방언과 관련시켜 살피고 있다. 李基文(1985)은 《남사록》 등에 기록된 <加達>과 <祿大>에 대해서 몽골어 차용임을 밝혔다.

宋相助(1985·1989)는 방언 어휘와 문헌어를 비교하여 생성·발달을 추적하고 있다. 姜公宅(1986)은 상징부사와 반복부사를 형성하고 있는 어근들이 주로 의태어임을 고찰하고 있다.

강영봉(1982·1986^a·1986^b·1990·1991)은 부사어의 의미통합, 물고기 이름, 식물 이름, 말 이름 및 신체어를 다루고 있다.

동물 이름과 관련된 선행 연구 업적은 다음과 같다.

小倉進平(1924): “朝鮮語の歴史的 연구上より見たる 濟州島の價值”, 「南部朝鮮の方言」.

李崇寧(1935): “魚名雜攷”, 「진단학보」2, 진단학회.

——(1980): “용자명에 관한 어휘의 고찰”, 「정신문화」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金文奎(1960): “耽羅方言試攷”, 「개교10주년기념논문집」, 원광대학교.

李基文(1964:1991): “中世國語의 蒙古語 借用語”,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1966): “용골명의 기원적 고찰”, 「가람이병기박사송수기념논문집」.

——(1985): “蒙古語 借用語에 대한 研究”, 「語學研究」21-1, 서울대 어학연구소.

張泰鎮(1969): “물고기 이름의 어휘 연구”, 「한글」143, 한글학회.

金容俊(1976): “古文獻에 記錄된 魚名의 考察”, 한양대 대학원.

申景澈(1984): “物名考의 動物名 語彙考”, 「상지대병설실업전문대논문집」3집, 상지대병설실업전문대학.

- 강영봉(1986) : “濟州島方言의 魚名研究”, 「논문집」 23집, 제주대학교.
- (1990) : “말이름에 대한 管見”, 「한얼」5집, 방송통신대 제주지역 국어과.
- (1992) : “濟州島方言의 蒙古語 借用語들(I)”, 「濟州島言語民俗論叢」, 제주문화.
- 李基萬(1971) : “濟州馬의 毛色의 在來名稱 및 分布에 관한 研究”, 「건국학술지」 12집, 건국대.
- 李定宰·白文河(1982) : “濟州沿岸에 分布하는 海洋動植物의 地方名에 관하여·魚貝類” : 「研究報告」 6, 제주대 해양자원연구소.

小倉進平(1924)에서는 말 이름 중 <가라말·구렁말·월라·적다>가 몽골어에서 전래되었음을 밝히고 있다.⁵⁾

李崇寧(1935)에서는 魚名을 통하여 方言이 어원탐구에 이바지함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 그래서 형태에 따른 이름짓기, 색채에 따른 이름짓기, 습성에 따른 이름짓기, 유추에 의한 이름짓기를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魚의 어원이 무엇인가, 한자어 魚名들을 들고서 해석을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秀魚 : 슈어·송어, 松魚 : 송어, 民魚 : 민어, 麻魚 : 삼치/망어 식으로 37개 물고기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李崇寧(1980)에서는 實錄에 나타나는 매의 호칭 30여 종을 추려내어 고찰하고,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

金文奎(1960)에서는 말 이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물론 潮水나 干滿의 이름도 고찰대상으로 삼고 있다.

李基文(1964·1991)에서는 몽골어 차용어 25어휘를 다루고 있는데, 이중 “가라물·간자물·갈지계·고라물·구렁물·적진·나친·보라매·송골·아질계물·악대(불)·익더귀·질다물·튀곤” 등 14어휘가 말과 매 이름을 밝히고 있다. 李基文(1966)에서는 22개 매이름을 고찰하고 있으며, 李基文(1985)에서는 “공골물·설아물·가리운·부루물” 등 4개의 말 이름이 몽골어 차용임을 밝히고 있다.

5) “하라모리→가라말, 꾸렁모리→구렁말, 저걸더모리→적다”로 전래됨을 보여주고 있으나, <월라>인 경우는 이에 대응하는 몽골어가 공란으로 비어 있다.

張泰鎮(1969)에서는 언어사회학적 입장에서 어부 집단에 의해서 불려지는 물고기 이름을 고찰하고 있다. 특히 <승어>에 관한 어휘 발달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그래서 다른 집단에 대하여 보다 개방적인 어휘범주로서 생산의 장소·시기·방법·기구 또는 성·형상·색문 등으로 발달되어 있고, 다른 집단에 대하여 더욱 폐쇄된 어휘범주로서 성어에 대립하는 稚魚의 범주가 확립되고 나아가 연령에 의한 호칭이 특징적이며, 등급에 의한 호칭이 발달하여 세분된 어휘구조를 밝혀냈다.

金容俊(1976)에서는 문헌별 魚名을 찾아내고 난 후 魚類名의 종류에 따라 62개의 물고기 이름에 대하여 살피고 있다. 나아가 《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는 어류 분포를 54장의 지도에 표기하고 있다.

申景澈(1984)에서는 《물명고》에 나타난 동물 이름을 고찰하고 있는데, 한글표기의 실태, 음운론적 고찰, 어휘론적 고찰을 하고 있다. 특히 어휘론적 고찰에서는 한글 어휘 669개의 분포 즉 계통별로 고유어(506)·한자어(31)·한자어+고유어(33)·차용어(99), 형태별로 단일어(347)·복합어(290)·파생어(8)·혼합어(24)를, 품사별로 명사(592)·용언(53)·혼합어(24)로 나누고 있다. 외래어는 華語(1)·胡語(1)·蠻語(1)·番語(1)·梵語(20)를, 특수어(2), 유래어(7), 차용어(몽골어·44, 중국어·40)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회귀어(27)를 들고 있기도 하다.

강영봉(1986)에서는 99개의 물고기 이름에 대하여 명명의 유형, 접미사 형태별로 다루고, 제주도의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누어 지역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피고 있다. 강영봉(1990)에서는 몇 개 말 이름들이 몽골어 차용임을 살피고 있다. 또 강영봉(1992)에서는 ‘부사리·어럭췌·조랑말’이 몽골어 차용임을 살피고 있다.

자연과학적 접근으로⁹⁾, 李基萬(1971)과 李定宰·白文河(1982)의 업적이 있다. 李基萬에서는 毛色에 따라 馬學의 입장에서 그 이름을 분류하고 있고, 李定宰·白文河에서는 100종의 어패류에 대한 지역별 地方名을 조사하였다.

6) 자연과학도가 채록했기 때문에 표기상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돌치’를 ‘돌치’라 함과 같은 따위다.

Ⅱ. 濟州島方言의 動物 이름

1. 가 축

이 가축류에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로 소·말·돼지·개·닭이 포함된다.
우선 〈소〉의 명칭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1) 소

〈소〉의 방언형은 ‘췌’[swe]이다.

문헌어 〈쇼〉가 나타남직하나 이상하리만치 실현되지 않는다. ‘췌’로만 발화되고 있음은 이 방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ø]발음과 관계있다. [ø]는 항상 복모음 [we]로만 발음되기 때문이다. 유독 함경북도에서도 〈췌〉라는 방언형이 보인다(金泰均, 1986 : 306).

- 쇼爲牛(훈민정음 용자례)
- 牛 쇼 우(훈몽자회 상 : 10)

〈송아지〉에 해당하는 방언형은 ‘송애기’ 또는 ‘새송애기’이다. {-아지} 대신에 {-애기}가, {새-}라는 접두사가 연결되어 있음이 특이하다(‘빙애기’·‘새서방’). 경남에서 {-애키}로 나타남이 특이하다(金亨奎, 1980 : 252).

고문헌에는 〈송티〉·〈쇼얏〉·〈송아지〉·〈쇼야지〉·〈쇠야지〉·〈쇠아지〉로 나타난다.

- 犢 송티(물명고 1 : 9)
- 牛犢 쇠야지(동문유해 하 : 38)
- 犢 송아지 독(훈몽자회 상 : 10)
- 犢 쇼야지 독(신증유합 상 : 13)

〈암소〉는 ‘암췌’로, 〈수소〉는 ‘부롱이’로 나타난다.

(1) 검은췌

“검은 털을 갖고 있는 소”다. 한자어 黑牛에 해당한다.

문헌어로도 <검은쇼>가 보인다. 색채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 榆 검은쇼 유 (자류주석 하: 71)

(2) 검은어럭췌

색채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어럭’[ərək]은 ‘어럭췌’항에서 언급이 되었지만 몽골어 alar과 동궤를 형성하고 있다. <말>이 아니라 <소>에 연결되어 있음이 흥미롭다.”

국어와 몽골어 차용어가 연결되어 형성된 이름이다.

(3) 노린어럭췌

색채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앞에서 본 ‘검은어럭췌’와 같이 국어와 몽골어 차용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름이다.

(4) 모카니

색채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으로, “목에 흰줄이 반쯤 둘러진 소”를 말한다.

<목>에 흰 줄이 있다면 이 어휘는 분명 <목>과 <희다>와 상관이 있다.

분석은 {목+하+ㄴ+이}가 된다. {하}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白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방언에서 白의 의미로 쓰이는 어휘로는 ‘히다·히영ㅎ다·하양ㅎ다’가 있다(친고장·눈 왕 천지가 히영ㅎ엇저·인동고장이 하양ㅎ게 피엇저 등). {하}는 바로 ‘하양ㅎ다’의 어근이 되는 셈이다. 물론 {-이}는 물건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접사다. “목이 하얀 것(소)”으로, 그 의미와도 잘 부합된다.

(5) 노린췌

색채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으로, 한자어 黃牛에 해당한다.

(6) 베어럭이

<배>(腹)의 방언형이 ‘베’[pe]이니 “배 부분의 털이 얼룩얼룩한 소”를 말한다. <소>의 방언형 ‘췌’가 연결되지 않음이 특징이다. ‘어럭’은 말 이름에는

7) 돼지 이름에도 나타난다. ‘돼지’항 참조.

불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생략하는 것으로 보인다.

(7) 숙쇄

이 ‘숙쇄’[sikswə]는 ‘식쇄[sikswə]·숙쇄[sɔkswe]’라고도 말해진다. 색채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숙쇄’의 특징은 검은색이 빗금형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있으며, 다음에 나오는 ‘식어럭쇄’하고는 다르다.

경북에서는 <황소>의 방언형으로 <숙소>가 나타나고 있다(정신문화연구원, 1989: 182). 이 <숙소>가 ‘숙쇄’가 아닌가 한다.

(8) 식어럭쇄

‘숙쇄’를 ‘식쇄’라고 병행해서 부르고 있는 반면, 이 ‘식어럭쇄’는 ‘숙어럭쇄’[sikərɔkswe]라 하지 않는다. ‘식어럭쇄’는 검은색이 반점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다르다.

(9) 신쇄

색채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으로, “검은색이 도는 노란 소”를 말한다. 검은색과 깊은 관련이 깊다. <검다>의 방언형으로는 ‘검다·거멍ᄃ다’ 계통뿐이다.

한글학회 《우리말 큰사전》4(옛말과 이두, 1992: 5206)에 보면 <신물>이 표제어로 올라 있고, <검정 물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물>이 <물감>이라고 한다면 <신>은 <검정>에 해당되어 <신>에 검다(黑)의 의미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쇄’는 <검정>을 나타내는 古語 <신>에, <소>의 방언형인 ‘쇄’[swe]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이름이다.

(10) 신어럭쇄

색채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검다>의 <신>과 <얼룩>의 방언형 ‘어럭’이 연결되어 이루어졌다.

(11) 어럭쇄

<얼룩소>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문헌어로는 <어롱쇼>·<얼녁쇼>·<얼룩쇼>·<얼눅쇼>·<어롱소>로 나타난다. 이 어휘는 《蒙語類解》에 <花馬 얼럭물> ○아락 모리나 《同文類解》의 <花馬 월라물> ○알하 모린의 <아락·알하>와

관련이 있다. 몽골어 alar 만주어 alha와의 상관성이다.

- 犁 얼녁쇼(물명고 1:9)
- 犖 얼룩쇼 락(자류주석 하:71)
- 犖 얼룩쇼 방(자류주석 하:71)
- 花牛 어룡쇼(역어유해 하:30)
- 花牛 어룡쇼(훈몽자회 상:11)

문제는 말의 명칭에 쓰였던 어휘가 이 방언에 오면 <소>나 <돼지> 명칭에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총어럭췌’라면 “꼬리의 털빛이 얼룩얼룩한 소”, ‘어럭돏’하면 “얼룩얼룩한 털빛을 하고 있는 돼지”를 뜻하는데, ‘어럭돏’은 이 방언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짐승의 나이를 헤아리던 ‘다간·사름’이 몽골에서는 <말>에만 사용되던 어휘인데, 이 방언에 오면 <말>이 아니라 <소>의 나이를 말할 때만 쓰이고 있다. 이것은 원어민의 <관념의 전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강영봉, 1992).

(12) 제췌

<재>(灰)의 방언형이 ‘제’[ce]이니, ‘제췌’도 또한 색채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13) 제노린췌

색채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으로, “젯빛”에다 “노르스름한 빛”이 가미되어 부르고 있다.

(14) 제노린어럭췌

색채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제노린췌’에 ‘어럭’이 더 들어가 형성된 이름으로, 소 이름에 대한 자세한 구분을 엿볼 수 있는 이름이다.

(15) 황어럭(췌)

‘황어럭’ 또는 ‘황어럭췌’로 표현해지는데, 색채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누런색 바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앞에서 본 ‘노린췌’에 ‘어럭’이 들어가 ‘노린어럭췌’가 되어야 하나, ‘노린어럭췌’의 ‘노린’ 대신에 한자 어휘 黃

이 사용되었다.

(16) 총어럭쉐

‘총어레기’[chongaregi]라고도 하는데, 색채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원래 <총>은 “말의 갈기나 꼬리”를 의미하는데(총모자: 말의 꼬리털로 결은 모자), <소>에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어 쓰인 예다.

(17) 꽃쉐

이 ‘꽃쉐’[kotswe]는 “깊은 산 속에서 방목하는 소”를 말한다.

이 방언에서 ‘꽃’⁸⁾이라고 하면 花의 뜻도 있지만 藪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玄平孝(1962·1985:375)에서도 ‘꽃’을 “깊숙한 산 속의 수풀”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① ㄱ는꽃(細花) <지명>

② 선흘꽃 <지명>

③ 고지에 낭꺄레 갓주(산속숲에 나무하러 갔지).

①은 구좌읍에 있는 細花里의 우리식 지명으로, 花의 의미로 사용된 예이며, ②도 지명(조천읍)으로, 藪의 뜻으로 쓰인 예이다. ③은 ‘꽃’의 ‘고지’⁹⁾로 음절 신장이 이루어져 藪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물론 ‘꽃쉐’에서는 藪의 의미로 쓰였다.

(18) 드룻쉐

“들판에 방목하는 소”다. 坪·郊·野를 뜻하는 문헌어 <드르>가 그냥 원용되어 쓰인 예다(坪 드르 평, 郊 드르 교:《훈몽자회》상:2). 이 고장 지명에도 빈번하게 등장하기도 한다.

8) 花의 의미의 경우는 ‘꽃’보다는 ‘고장’이 더 빈번하게 쓰인다.

○ 인동고장(금은화)

○ 고장 피었저(꽃이 피었네)

9) 이 ‘고지’에는 <밭이랑>의 뜻도 있다.

○ 고지가 질다(밭이랑이 길다).

○ 고지가 진 밭(밭이랑이 긴 밭).

- 너븐드르(제주시 노형동 광평리)
- 난드르(남제주군 안덕면 대평리)
- 뜯드르(서귀포시 중문동 상예리)

앞에서 본 ‘곶췌’보다는 산(한라산) 쪽으로 덜 올라간 소다. <들소>하고는 그 뜻이 다르다.

(19) 맴췌

<배넛소>의 방언형이다.

이 ‘맴췌’¹⁰⁾ [mɛmswɛ]는 “소 임자가 소를 잘 기르는 사람에게 맡기어 번식이 된 후 같이 나누어 갖기로 하여 키우는 소”를 말한다. 이른바 위탁하여 기르는 <소>인 셈이다.

‘맴췌’는 {매+ㅁ+췌}로 분석되는데, “관계를 맺어 떠나지 않게 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매다>의 어간에 명사형어미가 연결된 후 다시 ‘췌’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어휘다.

(20) 밧갈췌

<밭>(田)의 방언형이 ‘밧’[pat]이니, 이 소는 “밭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소”를 뜻한다. 주로 수소가 이용되니 암소보다는 수소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쓰인다.

(21) 번췌

이 ‘번췌’[pənswe]는 “소를 기르는 사람끼리 일정한 차례로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며 먹이는 소”를 말한다.

‘번’(番)은 한자 어휘로 주로 산북지역(북제주군)에서 쓰이는 반면, 산남지방(남제주군)에서는, ‘고꾸레’로 쓰인다. 행위만을 표현할 때는 ‘번ㅎ다’ ‘번 가다’ ‘고꾸레 가다’라 발화되지만, ‘췌’가 연결되어 사용될 때는 ‘번췌’라고는 하지만 ‘고꾸리췌’라 일컫지는 않는다.

10) 법률적 접근은 김형훈(1965)에 의해 다루어진 바 있다.

(22) 부릉이

〈부룩소〉의 방언형이다. 《字類註釋》(하·72)에도 〈부룩쇼〉(童牛無角)로 나타나는데, 전주어 볼 때 ɾ[k]이 o[ŋ]으로 변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쉐’가 연결되지 않음도 특이하다.

(23) 부사리

몽골어와 개연성이 보이는 어휘다. Lessing (1960)에는 bux는 〈bull〉로, shar는 〈ox〉로 해석하고 있으니 거세와는 상관없이 수소(雄牛)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이를 꽤 먹은 부룩소”이니 의미상으로도 상통한다. 그러나 언중들의 관념 속에는 “이미 거세가 된 수소”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니 실은 shar에만 해당된다.

bux는 거세하지 않은 소이나, 실제로는 거세하지 않은 ‘〈부룩소〉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부룩소〉도 있을 것이니 결국 방언형인 ‘부사리’는 몽골어 bux-shar의 차용으로 볼 수 있다. 문제가 있다면 ‘부사리’가 13세기 어휘라고 한다면 몽골어 [u]는 국어 [o]에 대응된다는 준거에 위배되는 데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전에 국어의 [o]가 [u] [o]의 변화를 경험했다면 수긍이 간다(李基文, 1991, 136~137).

물론 국어사전에 “대가리로 잘 받는 버릇이 있는 황소”라고 되어 있어, {불(驢丸) + 살(生) + 이}로 분석되어, “거세되지 않았으니 성질이 사나운 소”라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몽골어의 차용으로 보아둔다.

(24) 저릿쉐

〈겨릿소〉의 방언형이다. 구개음화되어 쓰이고 있다. 이 방언에서 ɾ[k]이 구개음으로 변함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길>질, 기름>지름, 기움>지슴, 기와>지에).

(25) 중성기

〈악대소〉의 방언형으로, 옛 문헌이나 어느 방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26) 지시랭이췌

‘지즈랭이(췌)’[cicirepiswe]라고도 발화되는데, <돌암소>의 방언형이다. ‘췌’가 접미되지 않은 ‘지시랭이’는 동물인 소·말·돼지는 물론 사람인 石女에게도 가끔 명명되어지기도 한다.

이 ‘지시랭이’는 <서다>의 반의어인 <지다>에서 나온 어휘다.

‘애기 설업서’¹¹⁾를 “애 서고 있지”라고 한다면, ‘그만 놀래언 지어부런’하면 “그만 놀라 (애) 지어버렸어”라는 뜻이다. 애(새끼)가 서지 않으니 낳을 수 없는 일이며, 결국 지어버린 결과와 마찬가지로이다.

(27) 에미유리

<어미>의 방언형 ‘에미’에 <이울다>의 방언형 ‘유울다’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어휘다. <이울다>가 <시들다>·<쇠약하다>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에미유리’는¹²⁾ “어미를 잃어 기운을 차리지 못한 송아지”를 뜻한다.

(28) 황췌

<황소>의 방언형이다.

(29) 갈튀다리

형태에 따른 이름으로, “뒷다리가 비틀어져 어긋난 소”를 뜻한다. ‘갈튀다리’의 {-다리}는 접미사이니, 문제는 ‘갈튀’에 있다.

{튀}는 분명 <튀어나오다>·<튀어나다>의 어근이며, {갈}은 分의 뜻을 지니고 있는 방언형 ‘가르다’·‘갈르다’의 어근에 해당된다.

① 굽 가르다¹³⁾

11) <서다>의 방언형은 ‘설다’이다.

12) 玄平孝(1962·1985)에는 “아직 젖먹이 때에 어미를 잃은 송아지를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13) 굽가르다에 대해서는 李男德(1982)의 논문 “‘가운데’語源考”(『북천심여택선 생화갑기념논총』)를 참조.

- ② 켜기 갈라왓십주.
- ③ 갈리
- ④ 가르사다

①은 “경계를 구분하다” · “분별력” 등으로 해석되어 分의 뜻이 확인되며, ②에서도 分의 뜻이 잘 드러나 있는 예문으로, <소>나 <돼지>를 추렴했을 때 자기 몫의 고기를 나누어 가지고 온다는 뜻이다. ③은 돼지의 부분명칭으로, 돼지 갈비뼈가 있는 부위로, 뼈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다. ④는 <따로 따로 서다>의 뜻이다. 다 分의 의미가 있으니, ‘갈튀다리’의 의미와도 부합된다. 다리가 비틀어져 있다면 뼈 마디로 분리되어야 가능하다. 뼈 마디가 나누어져서 빠져나와야만 비틀어지게 된다. 곧 이 ‘갈튀다리’는 “뼈 마디가 둘로 나누어 빠져나와 비틀어진 것”이 된다.

(30) 게우눈

형태에 따른 이름으로, “눈이 사팔뜨기인 소”를 말한다.

“사팔뜨기 소”이니 ‘게우’[keu]는 <사팔뜨기>에 해당된다. 이 방언에서 <사팔뜨기>는 ‘사투리’라 한다. ‘사투리’와 ‘게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사투리’가 <사팔뜨기>라고 한다면 말의 명칭의 하나인 ‘사통이’와의 관계다. ‘사통이’라 함은 “한 쪽 눈이 까진 말”을 뜻한다. <외눈박이>와 <사팔뜨기>와는 무관하다.

촌로에 따르면 ‘게우눈’은 ‘게오눈’이라고도 하는데, 눈에 흰자위가 많이 덮혀있는 소라고 한다. 여기서는 잠정적으로 “흰자위가 많은 눈을 가진 소”라고 해둔다.

(31) 민둥머리췌

형태에 따른 이름으로 “뿔이 없거나 상해서 잘라버린 소”를 말한다.

(32) 복쉬다리

이 ‘복쉬다리’[pokswidari]는 ‘복시다리’ · ‘복수다리’ · ‘복수쟁이’라고도 부르는데, “엉덩이뼈가 부수어져 상한 말이나 소”를 말한다.

{-다리}는 접사이니(金洪植, 1983: 15), 문제는 {복쉬} · {복시} · {복수}에 있다.

이 방언에 다음과 같은 표현들이 있다.

- ① 땡이 복삭^ㅎ다.
- ② 복삭 매 맞앗주
- ③ 뻘 꾀앙 복삭^ㅎ여

위 예문들에서 ‘복삭^ㅎ다’¹⁴⁾, ‘복삭’을 얻게 된다.

‘복삭^ㅎ다’는 “지나칠 정도로 나른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①은 신경통이 도져 날씨가 흐려 비가 올 것 같으니 너무나 나른하다는 의미가 있다. 움직이지가 싫은 것이다. ②는 <뭇매>를 맞았다는 것이다. ③은 “뻘가 쭈서어 움직이지가 싫다”는 의미이다. ①~③을 통하여 ‘복쉬다리’는 이 ‘복삭^ㅎ다’와 관련이 깊은 어휘가 아닌가 한다.

(33) 쩍진췌

형태에 따른 이름으로, “다리를 쩍질거리거나 비틀어져 뻘마디가 어긋난 소”라 말한다. ‘쭈진췌’라 하기도 한다. ‘접지다’ 또는 ‘줍지다’는 <숨겨놓다> <꺼이다> 등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어휘다. <뻘다>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응하는 방언형은 ‘ㄹ무끄다’이어야 한다. 문헌어는 <ㄹ뭇다> <ㄹ뭇다>이다.

- 허리 ㄹ뭇다(동문유해 하: 8)
- 허리 ㄹ뭇다(역어유해 보: 34)

閃腰에 대한 우리말 표현이고 보면 현대어의 “허리 뻘다”가 분명하다. 그러나 소 이름으로 ‘ㄹ무끄다’가 연결되지는 않는다.

(34) 뜯췌

습성에 따른 이름으로, 가끔 은유적 표현으로 쓰기도 한다.

14) 玄平孝(1962·1985)의 자료집에는 그 뜻을 “두꺼운 물건이 움푹 들어가도록 보드라워 편안한 느낌이 있다”로 풀이하고 있는데, 여기서 쓰인 ‘복삭^ㅎ다’와는 다른 어휘다.

(35) 뜯밧갈췌

“주로 밭을 가는 일에 부리는 동작이 아주 느린 소”를 말한다.

이 방언에서 ‘뜯밧’이라고 하면 “차지거나 끈끈한 기운이 조금도 없는 부석 부석한 흙으로 된 밭”이니 이 ‘뜯밧갈췌’는 앞에서 살핀 ‘밧갈췌’에 ‘뜯’이 덧붙여져 형성된 이름이다.

(36) 작박도리췌

형태에 다른 이름으로, “뿔이 뒤쪽으로 향하고 있는 소” 말한다.

‘작박’은 기구의 하나로 얇은 나무박을 말한다. 그래서 <주걱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작박아구리’라 표현한다. 턱이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말이 되는데, 소 이름으로 ‘작박도리췌’는 뿔이 뒤로 향하고 있어 서로 배치가 된다.

이상의 소 이름들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방 언 형	문 헌 어	표 준 어	비 고
췌	쇼	소	췌(함북)
송애기 · 새송애기	송티 · 쇼얏 송아지 쇼야지 쇠야지	송아지	송애키(전남)
암췌	암쇼	암소	
부롱이	수쇼	수소	
검은췌	검은쇼		
검은어럭췌			
노린어럭췌			
모카니			
노린췌			
베어럭이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숙췌 식췌 숙췌			숙소(경북)
식어럭췌			
신췌			
신어럭췌			
어럭췌	얼녁쇼 얼룩쇼 얼눅쇼 어롱쇼 어봉쇼	어룩소	alar(mo)
제췌			
제노린췌			
제노린어럭췌			
황어럭(췌)			
총어럭췌			
곶췌	곶		
드룻췌	드르	들소	
멤췌		배넷소	
밧갈췌			
번췌			
부롱이	부룩쇼	부룩소	
부사리		부룩소	bull(mo) shar(mo)
저릿췌		겨릿소	
중성기	악대쇼	악대소	
지시랭이췌 지즈랭이		들암소	
에미유리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황새		황소	
갈튀다리			
게우눈			
민둥머리새			
북쉬다리 북시다리 북수다리 북수쟁이			
점진새 좁진새			
뜯새			
뜯밧갈새			
작박도리새			

2) 말

〈말〉의 방언형은 ‘물’이다. 이 ‘물’은 몽골어에서 차용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문헌어도 〈물〉이다.

- 전 모리 현 버늘 딘돌(용비어천가 31)
- 馬 물 마(훈몽자회 상: 19)
- 쇠어나 모리어나 약대어나 라귀어나 드외야(석보상절 9: 15)
- 종과 물와를 현매 돌 알리오(월인천강지곡 52)

〈수마〉(雄馬)는 ‘웅매’, 〈암말〉(雌馬)은 ‘주매’로, 한자어가 방언형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망아지〉는 ‘몽생이·몽쟁이·몽아지’ 등으로, 〈송아지〉가 ‘송애기’로 {-애기}가 연결되는데 비하여, 〈말〉인 경우는 {-아지}가 연결됨이 특이하다. 몽생이·몽쟁이에서 {-생(쟁)이}는 일종의 축소사이다. 경북에서도 〈망생이〉로 나타나고(정신문화연구원, 1989: 186; 金亨奎, 1980: 253; 小倉進平, 1944: 293), 경

남에서도 또한 <망생이>로 나타나(金亨奎, 1980: 253) {-생이}가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다.

고문헌에는 <미야지> · <미아지> · <막야지> · <몽아지>로 나타난다.

- 駒 막야지 구(훈몽자회 상: 10)
- 駒 미야지구 (신증유합 상: 13)
- 득륜 술위 멘 미아지 아니나라(匪輟駒) (두시언해 2: 11)
- 駒 몽아지 (시경언해 물명: 2)

(1) 가래물

<가라말>에 해당한다. 이 이름은 몽골어에서 차용되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李基文, 1991: 125).

- 黑馬 가라물 (역어유해 하: 28, 동문유해 하: 37)

몽골어에서는 hara mori라 부르는데, h와 k 대응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2) 먹가래물

이 ‘먹가래물’(mækkaremul)은 ‘진가래물 · 먹가래물’이라고도 부르는데, 馬學¹⁵⁾의 입장에서 보면 “鳥羽毛처럼 검은색인 동시에 靑色調가 있는데 異色毛가 전혀 없으며 年中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붙는 말 이름이다.

이 방언에 아래와 같은 어휘들이 있다.

- 먹돌 (검고 단단하며 미끄럽게 생긴 돌)
- 먹술 (먹줄)
- 먹칼
- 먹통

예에서 보듯 {먹}은 한자어 墨에 해당되니 먹빛 곧 검은색임을 짐작할 수 있다.

‘진가래물’의 {진}도 “진짜의” 또는 “순수한”의 뜻이 있으니 “진짜로 검은색의 말” “순수하게 검은색의 말”이니 ‘먹가래물’과 서로 통한다.

15) 馬學的 설명은 李基萬(1971)에 따르는데, 이 이하 또한 같다.

하나 문제가 있다면 ‘흑가라’라 하지 않는데 있다.

다시 마학의 설명을 빌리면 <흑가라>는 “전신의 被毛가 黑色이면서 광택이 있다”라고 한다. <광택>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고 있는 반면, 이 방언에서는 ‘먹가레물’로 통합하여 명명되고 있음을 본다.

문헌어 <청가라>(<물명고>1:7)에 해당된다.

(3) 추가레물

이 ‘추가레물’은 ‘추가라물’(chugaremal)이라고도 하는데 마학에서는 “帶灰 黑色”이라 설명하고 있다. 玄平孝(1962·1985:564)에는 “털빛이 다갈색에 검은 빛깔을 띤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다른 명칭에는 볼지 않고 유독 <가라말>에만 연결된 {추}에 있다.

위 두 설명에 따르면 灰 또는 다갈색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역어유해>나 <동문유해>등에 <츄마물>이 보인다.

- 츄마물 銷羅青馬 (노걸대 하:9)
- 灰馬 츄마물 (역어유해 하:28, 동문유해 하:37)
- 貉皮馬 츄마물 (한청문감 14:21)*¹⁶⁾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 사전>4(옛말과 이두)에는 “잿빛 말”로 풀이되어 있고, 南廣祐의 <고어사전>에도 “잿빛 말”로 해석되어 있다. {츄}를 제외하면 {마}든 {물}이든 다같이 馬의 뜻이니 {츄}의 뜻은 “잿빛”이 분명해진다.

여기서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玄平孝의 “다갈색”이란 설명이다. 이는 {추}의 의미와도 관계가 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츄}는 어디에서 온 말일까.

{가라}가 몽골어의 차용이라면 {츄} 또한 몽골어의 차용임을 배제할 수 없다. 현대 몽골어에 ʏYH(tsung)이란 어휘가 보이는데(小澤重男, 1983:559), “엷은 홍색의 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색깔로만 본다면 玄平孝의 설명에

16) 문헌어의 예문에 *표가 붙는 것은 南廣祐의 <古語辭典>(1975)·劉昌惇의 <李朝語辭典>(1974)·한글학회의 <우리말큰사전>4(옛말과 이두, 1992)에서 재인용하였음을 뜻한다.

부합된다. ‘초격다’의 {초}도 동일한 뜻을 지닌 것으로 본다.

문제가 있다면, ㅁYH에서 H(n)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어에서는 시대가 내려오면서 음절말에 있는 H(n)가 탈락되는 경향이 있는데 (morin →mori 등), 이에 배치된다는 것이 의문으로 남는다.

(4) 월레몰

〈위라말〉의 방언형으로, ‘월라몰’(wəllamol)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학의 입장에서는 “駮毛로써 原毛色의 여하를 불문하고 白駮 즉 白色廣斑이 있는 말”이다. 花馬를 뜻한다. 《몽어유해》의 “花馬얼럭몰○아락 모리”나 《동문유해》의 “花馬 월라몰○알하 모린”에 나타나는 alar 또는 alha와 아주 흡사하다. 몽골어 차용의 이름이다.

고문헌에는 〈월라몰〉·〈월아〉·〈월라〉로 나타난다.

- 花馬 월라몰 (동문유해 하: 37)
- 駮 월라 (시경언해 물명: 11)
- 花馬 월아 (물명고 1: 7)
- 花馬 얼럭몰 (몽어유해 하: 30)
- 駮 어룡몰 박 (신증유합 하: 55)

(5) 검은월라몰

‘검은 월레몰’(kəminwəllemlol)이라고도 하는데 “검은 털에 흰 털이 조금 섞여 있는 얼룩말”을 말한다. 李基萬이 말하는 〈가라월라〉에 해당한다.

국어와 차용어로 이루어진 이름이다.

(6) 노린월라몰

‘노린월레몰’(norinwəllemlol)이라고도 부르는데, “누런 털에 흰 털이 조금 섞여 있는 얼룩말”을 말한다. 李基萬의 〈유마월라〉에 해당된다.

국어와 몽골 차용어가 혼용되어 명명된 이름이다.

(7) 유매몰

〈유마〉의 방언형으로, ‘유마’[juma] · ‘유매’[jumɛ]라고도 한다.

마학에서는 “被毛가 갈색이고 長毛 및 肢端이 黑色인 말”이다.

문헌어 〈류거혈〉에 해당된다(《물명고》 1:7).

(8) 검은유매물

‘가문유마’[kamunjuma]라고도 부르는데, “흑갈색의 말”을 말한다.

마학에서는 “長毛 및 四肢端은 黑色이고 被毛는 赤黑度가 짙은 黑赤色인 말”이다.

(9) 부원유매

‘부은유매’[puhwnjumɛ] ‘보예기’[pojegi]라고도 하는데, “털빛이 진하지 않고 약간 부유풀름한 말”을 말한다.

마학의 입장에서는 “肢端은 淡黑赤色 또는 帶黃灰色이고 被毛는 帶黃의 淡赤色の 말”을 말한다. “淡黑色”이니 “帶灰色”이니 아니면 “帶黃의 淡赤色”이라 함은 뚜렷한 하나의 색깔로 표현하기 어려운 색채이다.

이 방언에 ‘부흐룽하다’라는 어휘가 있는데 (어떻 물색웃이 부흐룽하다), 표준어 〈부엩다〉에 가까운 어휘다. 사전식으로 풀이하면 “빛이 진하지 않게 약간 부유풀름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말의 색채와 비슷하게 표현한 방언형의 이름이다.

‘보예기’는 {보엩(예) + 기}로 분석 가능하니, 〈부엩다〉와 관계가 깊다.

(10) 고라물

〈고라말〉의 방언형으로, 고문헌에도 〈고라물〉로 나온다.

○ 黃馬 고라물 (동문유해 하: 37)

고문헌에 나오는 〈궁골물〉도 〈고라물〉과 같은 색깔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한청문집》(14: 22)에 黃馬를 〈궁골물〉이라 대역하고 있다. 또 《물명고》에는 “騮黃馬黑喙 공고라”(1: 7)로 나타나고 있어, 〈공고라〉도 같은 뜻을 지닌 말이다. 《물명고》에 〈황고라〉로도 나타난다.

몽골어의 차용임을 이미 밝혀졌다(李基文, 1991 : 127).

(11) 조류매

이 ‘조류매’(corjume)는 ‘조류마’라고도 부르는데, <자류마>의 방언형이다. “밤빛의 털을 갖고 있는 말”이다.

고문헌에는 <조류마> · <조류물>로 나타난다.

- 𩇛𩇛馬 조류물 (동문유해 하 : 37)
- 𩇛𩇛馬 조류마 (역어유해 하 : 28)

그런데 栗色馬를 <굴렁물> (《몽어유해》 하 : 31) · <구렁절다> (《물명고》 1 : 7) · <굴형물> (《역어유해》 하 : 28) · <구렁물> (《노걸대》 하 : 9)로 나타나 색채에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몽어유해》에는 “𩇛𩇛馬 조류물”(하 : 30)로 되어 있다.

(12) 청총매

이 ‘청총매’(chəpchojme)는 ‘청총이’, ‘청총마’라고도 하는데, <청총마>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에 나오는 <털청총이> · <털청초이물>에 해당한다.

- 털청총이물 靑白馬 (노걸대언해 하 : 8)
- 털청총이 靑白馬 (노걸대 하 : 9)

또 문헌어에 <총이물>이 나오기도 한다.

- 이 총이무리 나히 언멘고 (這箇靑馬多小藏數) (노걸대 하 : 8)

(13) 적대물

<적다마>의 방언형으로, ‘적다물’(cəktamol)이라고도 부른다. 고문헌에는 <절다물> · <절싸물>로 나온다.

- 紅馬 절다물 (한청문감 14 : 21)*
- 赤馬 절싸물 (역어유해 하 : 28)

몽골어의 차용이다(李基文, 1991 · 133)

(14) 고치적대물

“털빛이 아주 시뻔겡게 붉은 말”을 뜻하며, ‘고초적대물’[kocɕocəkɕtɕɐ mɔl] · ‘고치적대물’[kocɕicəkɕtamɔl]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추〉의 방언형 ‘고초’ · ‘고치’가 더 연결되어 색깔의 농도가 짙은 〈적다마〉를 이룸하고 있다. 국어와 차용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름이다.

(15) 구령적대물

〈구령적다마〉의 방언형으로, ‘구령적다물’[kurɔŋɕəkɕtamɔl]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학에서는 “전신의 體毛가 暗赤色으로, 특히 등 · 아래턱 · 배 밑 · 사지가 暗色인 말”을 뜻한다.

차용어와 차용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름이다.

(16) 초적대물

“털빛이 진하지 않게 불그스름한 말”로, ‘초적다물’[cɕocəkɕtamɔl]이라 부르기도 한다.

마학에서는 “被毛는 淡赤色이고 長毛 및 肢端이 대단히 淡하여 황모시색 말”을 말한다.

‘초적대물’의 {초}는 ‘추가래물’에서 본 {추}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

(17) 구령물

〈구령마〉의 방언형으로, 몽골어에서 차용된 이름임은 이미 밝혀졌다(李基文, 1991 · 127).

고문헌에는 〈구령물〉 · 〈굴형물〉로 나타난다.

- 구령물 票色馬(노걸대 하 : 9)
- 票色馬 굴형물(역어유해 하 : 28)

(18) 부루물

마학에서는 “가라·유마 또는 적다에 白色毛가 비교적 균등하게 혼재되어 있는 말”을 말한다.

이 ‘부루물’ 역시 몽골어 burulal의 차용임은 밝혀졌다(李基文, 1985: 9).

- 紅紗馬 부루물 (역어유해 하: 28)
- 紅紗馬 부루물 (동문유해 하: 37)

(19) 연사라물

“털밑에서 배 밑 부분과 다리까지 흰 말”을 말한다.

《역어유해》에 나오는 “銀褐馬 설아물”(하: 28)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白의 뜻이 강하게 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白馬인 경우는 <백설아물>로 나타나(《역어유해》 하: 28) 문제가 있다.

한편, 몽골어 saral mori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인다. 哈勘楚倫의 설명을 보면 ‘灰白毛色馬’로 되어 있다. (1970: 83).

(20) 간전이

<간자말>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에 <간자물>로 나타난다.

- 線臉馬 간자물 (동문유해 하: 37)

몽골어의 차용은 李基文에 따라 밝혀진 바 있다(1991: 126).

(21) 코간전이

‘피말이’(pimari)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마에서 코까지 흰 줄이 있는 말”¹⁷⁾을 말한다.

흰 줄이 코까지 연결되어 있으니 {코}가 덧붙여진 이름이다. 국어와 차용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이름이다.

17) 《학술조사보고서》8집 (27)에는 “頭部에서 코언저리까지 흰 소(열등소)”라고 소 이름으로 조사되었다. ‘간전이’가 말 이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코간전이’ 또한 말 이름이어야 한다.

(22) 족발이

“말이 걸음걸이할 때 비틀거리는 말”을 뜻한다.¹⁸⁾足과 관련이 깊고, 문헌어를 찾을 수 없다.

(23) 족백이물

“발의 털빛이 흰 말”로, ‘족바지물’[cokpacimɔl]이라고도 한다. 문헌어 <수족빅>에 해당한다.

- 四明馬 수족빅 (역어유해 하: 28)
- 銀蹄馬 수족빅 (역어유해 보: 48)
- 銀蹄馬 수족빅 (동문유해 하: 37)

(24) 쌀족백이

“발 하나가 흰 말”을 뜻한다. ‘족백이’가 있는 것으로 보면 분명 足과 관련이 있다. {쌀}이 더 들어감으로 해서 “발 하나만 희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때 {쌀}은 <창살>의 {살}과 무관하지 않는 것 같다 (<창살>의 방언형은 ‘창쌀’이다).

(25) 함부리

“입술부터 입안까지 흰 말”을 말한다.

《물명고》에 <함오>가 보인다(1:7). “流星貫脣”이란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貫脣이 ‘함부리’의 형태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26) 태성백이

‘태상백이’라고도 하는데, <대성마>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에는 <쇼티성물>·<쇼티성마>·<쇼티성>으로 나타난다.

18) 박용후(1962·1988: 59)에는 “비틀걸음을 하는 발을 가진 소”라 하고 있다.
또 박용후(1962·1988: 60)에서는 “비틀걸음을 하는 발을 가진 병신소 또는 병신말”이라 하고 있다.

- 玉頂馬 쇼티성물(동문유해 하: 37)
- 玉頂馬 쇼티성마(역어유해 하: 28)
- 駒 쇼티성(물명고 1:7)

(27) 제매

“사람을 편하게 태우고 재치있게 단는 말”을 말한다. 네 다리를 함께 옮겨 놓기 때문에 요동이 심하지 않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몽어유해》에 “驢馬 잔물”이 보이는데(하: 31) 몽골어도 *jiruga mori*로 되어 있다. “재치있게 단는다”는 것은 결국 <재다>와 무관하지가 않다. 몽골어 *jiruga*와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

(28) 지스랭이물

<둘암말>의 방언형이다.

(29) 골히눈이

<고리눈이말>의 방언형으로, ‘골히눈이물’[*kolhinunimol*] · ‘골히매’[*kolhimε*] · ‘골이물’[*kolimol*]이라 부르기도 한다(朴用厚 자료집에서는 ‘눈골이물’이라 하여 ‘눈에 백태가 낀 말로 풀이하고 있다). 고문헌에는 <골회눈이> 또는 <골회눈이물> · <골회눈>으로 나타난다.

- 샷기 빈 물 골회눈이 물(노걸대 하: 9)
- 環眼 골회눈(물명고 1:7)

(30) 왕골히

“눈이 노란 말”을 뜻한다.

(31) 곱소리

‘곱수리’[*kopsuri*]라고도 하는데, “등뼈가 위로 우뚝하게 내밀어 고부라진 말”을 뜻한다.

<곱사등> · <곱사등이>의 {곱}과 관계가 있다. {수리} · {소리}는 首 · 高에

해당하는 ‘수리’와 같다.

(32) 귀옥쟁이

‘귀느랭이’[kwiniŋeŋi] · ‘귀옥제기’[kwiokeŋeŋi]라고도 부르는데, 〈귀느래〉의 방언형이다.

{귀+옥+쟁이}로, 〈옥다〉의 뜻이 잘 나타나 있다.

(33) 활등이

“등이 휘어져 들어간 말”로, 앞에서 본 ‘곱소리’와 반대 형상을 하고 있다.¹⁹⁾ 〈활〉(弓)처럼 등이 휘어졌다는 것이다. 문헌어로 〈쇠오등〉이 보인다.

○ 𩑦 쇠오등 (물명고 1:7)

이 방언에 오면 〈새우〉 대신에 〈활〉로 대체되어서 이름하고 있다.

(34) 삼등이

“등뼈가 두 군데나 우묵하게 휘어들어간 말”을 뜻한다.²⁰⁾

(35) 사툽이

“눈 한 쪽이 까진 말”을 뜻한다. ‘사툽이물’[sathugimɔl]이라고도 한다.

(36) 거흙마

“백색에 청흑색이 섞인 말”을 뜻한다.

이와 같은 뜻으로 朴用厚(1960·1988:56)에는 ‘거울물’이 올라 있다. 한편 石宙明(1947:15)에서는 ‘거울물’을 “발목이 흰 말”로 풀이하고 있어, 앞에서

19) 박용후(1960·1988:61)와 석주명(1947:91)에는 ‘하등이’를 〈곰배말이나 곰배소〉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혹시 ‘활’이 ‘하’로 변한 것이 아닐까 한다.

20) 박용후(1962·1988:59)에는 “등 가운데가 뽕족하게 나오고 그 양쪽이 들어간 말”로 되어 있다.

본 '족백이물'과 혼동하고 있다.

(37) 조랑물

《몽어유해》에 “驢馬젠물 ○지루가 모리”가 보이는데, 이 jirura의 표기형이 *ropoo임을 감안한다면 '조랑'에 접근하고 있다. o[ŋ]이 더 첨가되어 있을 뿐이다.

문제는 '조랑물'이 그 규모가 적기 때문에 <적다>(작다)의 방언형에서 파생된 어휘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상 말 이름을 도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물	물	말	mori(mo)
용매		수마	
주매		암말	
몽생이 몽아지 몽생이	망야지 미야지 몽아지	망아지	망생이(경남·북)
가레물 가라물	가라물 가레물		qara(mo)
먹가레물 먹가라물 진가라물	청가라		
추가라물 추가레물	(츄마물)		tʃu(mo)
월레물 월라물	월라물 얼럭물 어롱물 월라	위라마	alar(mo)

방 언 형	문 헌 어	표 준 어	비 고
검은월라물 검은월레물		(가라월라)	
노린월라물 노린월레물		(유마월라)	
유매물 유매 유마	(류거혈)	유마	
검은유매물 가문유매물			
부훤유매 부은유매 보예기			
고라물	고라물 공골물		qula (mo) (konggora)
주류매 주류마	주류마 주류물	자류마	
청총매 청총이 청총마	털청총이 털청총이물 총이물	청총마	
적대물 적다물	절다물 절싸물	적다마	ɟɛgerde (mo) ɟɛrde (ma)
고치적대물 고초적대물 고치적다물			
구렁적대물 구렁적다물		구렁적다마	
초적대물 초적다물			tʃu(mo)

방 언 형	문 헌 어	표 준 어	비 고
구렁물	구렁물 굴형물	구렁마	kürend (mo)
부루물	부루물	부루마	burural (mo) burulu (ma)
연사라말	(설아물)		saral (mo)
간전이	간자물	간자마	qalʃan (mo) kalʃa (ma)
코간전이 피말이			
족발이			
족발이물 족바지물	스족빻		
쌀족백이			
함부리	(함오)		
태성백이 태상백이	쇼티성물 쇼티성마	대성마	
제매			ʃiruga (mo)
지스랭이물 지시랭이물		둘암말	
굴히눈이 굴히눈이물 굴히매 굴이물	굴회눈이 굴회눈이물 굴회눈	고리눈이말	
왕굴히			
굽소리 굽수리			
귀옥쟁이		귀느래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활등이 (하등이)	시오등		
삼등이			
사툽이 사툽이물			
거홀마 (거울물)			
조랑물			ǰoro (mo)

3) 돼지

〈돼지〉의 방언형은 ‘돛’ 또는 ‘뉘야지·도야지·도새기’가 있다. 〈돛〉은 고 문헌에서도 흔하게 나타난다.

- 猪 돛 (동문유해 하 : 39)
- 豕 돛 (물명고 1 : 9)
- 豕 돛 (재물보 7 : 20)
- 豕 돛 (물보)
- 豕·豚 돛 (청관물명고)

이 문헌어 〈돛〉이 이 방언에 이어져 쓰이고 있다(돛지름·돛집·돛추렴 등). 물론 시기가 더 올라가면 〈돌〉·〈돌〉으로 나타나고 있음도 본다.

- 豕 돌 회 (훈몽자회 상 : 18)
- 猪 돌 더 (신증유합 4 : 14)
- 苑囿엿 도톨 티샤 長史 듣즈불 마리 挺世氣象이 엿더ᄃ시니 (용비어천가 : 65)
- 아츰 회엔 돌과 도티 호렛도다 (旭日散鷄豚) (두시언해 7 : 39)

《물보》에는 “豚 되야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되야지〉의 방언형이 곧 ‘뉘야지’이다. [ø]가 [we]로 발음되는 특징에서 연유한다.

‘도새기’는 {돛}에서 {-애기}라는 일종의 축소사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어휘다. “돼지 중에서도 비교적 작은 돼지”(玄平孝, 1962·1985: 412)라는 설명이 옳다.²¹⁾

〈암돼지〉는 ‘암돛·암토야지·암뿔야지’ 등으로 부르며, 〈수돼지〉 또한 ‘수돛·수뿔야지’이다. ‘도새기’인 경우 그 암·수의 이름은 각각 ‘암토새기’와 ‘수토새기’가 된다. 〈새끼돼지〉는 ‘돛새끼·도새기새끼·뿔야지새끼·도야지새끼’ 등으로 부른다.

(1) 검은돛

색채에 따른 이름이다.

‘검은돛, [kəmindot]의 반대는 ‘흰돛’이다. 〈회다〉의 방언형 ‘히다’의 어간에 관형형이 연결되어 이루어졌다. 가끔 ‘백도새기’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한자어 白이 연결된 이름이다.

(2) 속돛

‘속뿔야지[soktwejaci]·속뿔야지[siktwejaci]·속돛[siktot]·석돛[swik-tot]·석뿔야지[swiktwejazi]’라고도 말해지는데, “털 색깔이 검고 누르스름한 돼지”를 뜻한다.

(3) 어럭돛

〈얼룩돼지〉의 방언형이다.

(4) 가름도새기

‘가름도새기’(karidosegi)는 “외따로 갈라서 기를 만큼 큰 돼지”를 말한다. ‘자릿도새기’의 반대 개념이다.

이 ‘가름도새기’의 {가름}은 〈가르다〉(分)의 방언형 ‘가르다’의 어간에 명사형이 연결된 말이다.

언중에 따라서는 이 ‘가름도새기’를 달리 해석하기도 한다. 즉 “밖으로 나

21) 가끔 언중들은 돼지를 나뻐 이르는 말이라고 파악하고 있기도 하다.

다니는 돼지”라는 풀이다.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동네를 나돌아다니다”라는 뜻을 지닌 어휘로 ‘가름돌다’가 있다. 돼지가 우리에 있지 않아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는 “가름 도는 돼지”라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의 ‘가름’은 〈동네〉를 뜻하는 어휘다(‘가름에 가 보라, 어떻게시냐’: 동네에 가 보라, 어머니 오고 있는가). 우리 밖으로 뛰쳐나올 정도니 성질이 유순하지는 않다.²²⁾

(5) 걸귀

〈걸귀〉의 방언형이다.

(6) 물툇

‘물토새기’(multhoségi)라고도 하는데, 보통 ‘물툇’·‘물토새기’는 〈군소〉를 말한다 (6.2의 ‘굴맹이’ 참조).

(7) 자릿도새기

이 ‘자릿도새기’(carittoségi)는 “아직 어려서 두 마리를 같이 우리에 집어 넣고 기르는 새기 돼지”를 뜻한다.

‘자릿도새기’의 {자리}는 〈새끼〉 또는 〈작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8) 좇도새기

“아직 젖을 먹는 어린 돼지”로, ‘젓도새기’(cattoségi)라고도 부르는데, 이때 ‘좇’·‘젓’은 〈젖〉의 방언형이다.

이상 돼지 이름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방 언 형	문 헌 어	표 준 어	비 고
돛 돼야지 도야지 도새기	돛 돈 돌	돼지	

22) 암돼지가 발정기가 되어 짝을 찾는데, 이를 두고 ‘수툇좇다’라 표현한다. 이런 암돼지는 ‘가름도새기’가 되기 십상이다.

방 언 형	문 헌 어	표 준 어	비 고
암똥 암토야지 암똥야지 암토새끼		암똥지	
수똥 수똥야지 수토새끼		수똥지	
똥새끼 도새끼새끼 똥야지새끼 도야지새끼		새끼똥지	
검은똥			
속똥 속똥야지 속똥야지 속똥 석똥 석똥야지			
어럭똥		얼룩똥지	alar (mo)
가름도새끼			
걸귀		걸귀	
물똥 물토새끼			
자릿도새끼			
쫓도새끼 젓도새끼			

4) 닭

〈닭〉의 방언형은 ‘똥’이다.

고문헌에는 〈닭〉으로 나타나고 있다.

○ 鷄 똥 계 (훈몽자회 상 : 16)

- 鷄 ㄷㅅ ㄱㅅ (신증유합 상 : 10)
- 鷄 ㄷㅅ ㄱㅅ '식봉천자문 27)
- 아츰히엔 ㄷㅅ과 도티 흐렛도다(두시언해 7 : 39)

《두시언해》 중간본에는 유일하게 <돌>이 등장한다.

- 이는 이웃지비 갓가와 돌 가히 서록 오물 니르니라(11 : 12)

이 <돌>은 <돋>에서 ㄱ[k]이 탈락한 형태다. 물론 받침으로 쓰인 겹자음은 중화현상을 일으켜 어느 한쪽으로 발음되지만, <돋>인 경우 이 방언에서는 ㄹ[ɭ]이 탈락되어 '독'으로 실현되고 있다.

<병아리>는 '병애기·빙아리·비애기'라고 부른다. {빙(비)}에다 축소사인 {-애기} 또는 {-아리}가 연결되어 형성된 어휘다. {-애기}가 접미되는 방언형은 전남·경북에서도 <삐애기>로 나타나고 있다(金亨奎, 1980 : 245; 小倉進平, 1944 : 279).

우리들은 《훈민정음》(용자례)에 <비육>이 있음에 주목한다. ㅅ[ɳ]이 첨가되기 이전 형태로, 이 방언의 '비애기'와 가깝기 때문이다.

(1) 장독

<수툰>의 방언형이다. 가끔 '수툰'이라고도 부르나, 이는 표준어의 영향이다. {장-}은 <수눔>을 뜻하는 말로, <수툰>을 '장툰'이라 함과 같다. 고문헌에는 <수툰>·<수툰>으로 나타난다.

- 公鷄 수툰 (역어유해 하 : 24, 물보 우충)
- 흰 수툰 (白雄鷄) (구급간이방 6 : 5)

(2) 암툰

<암툰>의 방언형이다.

<수툰 : 장툰> : <암툰 : x>처럼 짝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이상하다(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문헌에는 <암툰>·<암툰>으로 나타난다.

- 狗娘의 가히씨(역어유해 상 : 31)
- 집의 가히 샷기 나코 밥 어더 먹으라 나갓거놀(번역소한역해 9 : 100)
- 강아지어나 돛이어나 가스매 다혀 드시ᄃ라(구급간이방 1 : 35)
- 狗崽 기식기(청관물명고 조수류)

(1) 수캐

〈수캐〉의 방언형으로 ‘승캐’[supkɛ]라고도 부른다. ‘승캐’는 o[ŋ]이 첨가된다는 이 방언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름이다(아방·어멍 등).

고문헌에는 〈수가히〉·〈수개〉로 나타난다.

- 牙狗 수개(역어유해 하 : 32)

(2) 암캐

〈암캐〉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에는 〈암카히〉·〈암개〉로 나타난다.

- 雌狗 암개(역어유해 하 : 32)

(3) 사냥개

〈사냥개〉의 방언형으로, ‘사냥개’[sanjaŋgɛ]·‘사냥캐’[sanjaŋkɛ]라고도 부른다. 〈사냥〉의 방언형은 ‘사농’이다. 고문헌에는 〈산영개〉로 나타난다.

- 香狗 산영개(동문유해 하 : 39)

(4) 노린개

‘노랑개’라고도 하는데, 크게 자라면 ‘황개’라고 부른다. 한자어 黃狗에 해당한다.

(5) 땅개

“몸이 작고 다리가 매우 짧은 개”를 말한다.

(6) 검둥개

〈검둥개〉의 방언형으로, 고문헌에는 〈검둥이〉로 나타난다.

- 바독이 검둥이 靑插沙里 𐄂에 쵸 노랑 암키갓치 알피오라(교본역대시조전서 129-14)*

(7) 더펄개

‘더펄개’(təphulge)라고도 부르는데, <더퍼리>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에는 <더펄가히>·<덥펄개>·<덥헐개>·<더펄기>로 나타난다.

- 𐄂 더펄가히 방(훈몽자회 상: 10)
- 獅子狗 덥펄개(물명고 1: 11)
- 獅子狗 덥헐개(물보 모충)
- 獅子狗 더펄기(청관문명고 조수류)

이상 개 이름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방 언 형	문 헌 어	표 준 어	비 고
개	가히 기 개	개	
강생이 강아지	개의씨 가히씨 개샷기 기식기 강아지	강아지	강생이(경남·북) 깡생이(전남)
수개	수가히 수개	수개	
암개	암카히 암개	암개	
사농개	산영개	사냥개	
노린개 노랑개 황개			
땅개			
검둥개	검둥이	검둥개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더펼개	더펼가히 덥펼개 덥헐개 더펼기	더퍼리	

2. 野生動物

여기서 야생동물이라 함은 가축류에서 제외되고 야생으로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사전적 의미로 쓴다.

제주도에 관계된 예전의 기사들을 보면, 골이 아흔아홉밖에 되지 않아 왕도 나지 않을뿐더러 맹수도 없다는 기록이 있다(山無惡獸²³⁾ 이원진의 《탐라지》 풍속조). 百(완성의 의미)에서 하나가 부족한 데서 관념된 사고다.

(1) 고양이

〈고양이〉의 방언형으로, ‘궤’[kwe]라고도 부른다. 고문헌인 《물명고》에는 〈고양이〉로 나온다.

○ 猫 고양이 (1 : 11)

강원도 · 경북 · 충북 · 함남 · 함북 · 평북에서도 어중에 ㄴ[n]형인 〈고녕이〉 · 〈고녕이〉 · 〈고녕이〉가 나타난다(정문문화연구원, 1990 · 1987^a · 1989; 金亨奎, 1980; 金英培, 1976; 崔鶴根, 1978).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훈몽자회》에 나오는 〈괴〉다.

○ 猫 괴 묘(상 : 10)

이 〈괴〉가 바로 이 방언에 이어져 ‘궤’로 불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村老들에 따라 “고녕이 늙으면 식된다”는 말을 흔히 한다. 여기서 〈고양이〉와 ‘식’을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함북에서도 〈살팽이〉를 〈맏고

23) 無虎豹熊…狼害人之獸.

내) · <맏고양> · <맏고양이>로 나타나(金泰均, 1986 : 289), 혼동을 보여주고 있다.

원래 ‘식’은 <샴팽이>의 방언형으로, ‘숙’ · ‘숙’이라고도 부른다. <샴팽이>의 고어는 <습>이다.

- 猫 습 리(훈몽자회 상 : 10)
- 野猫 습 (동문유해 하 : 39)
- 野猫 습 (물보 모충)
- 狸 습 (물명고 1 : 11)

<샴>으로도 나타난다.

- 猫 샴 (청관물명고 조수류)
- 狸 野猫 샴 (재물보 7 : 23)

《물명고》의 설명에 따르면 “털빛이 황색과 흑색으로 얼룩져 있고”(毛斑黃黑), 《재물보》에는 “毛斑黃黑하고 닭이나 오리물 잘 훔치는 동물”(善竊鷄鴨)로 풀이하고 있다. 그 성질이 <고양이>나 <샴팽이>가 같게 표현되었다.

<습>이나 <샴>에서 ‘숙’과 ‘식’이란 어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둑>이 ‘둑’이 되는 것처럼 ㄹ[1]이 탈락되었다.

(2) 깡늌

<사슴>의 방언형으로, 한자어 角鹿에서 온 어휘다. ‘사슴’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사슴> <사슴>으로 나타난다.

- 사슴爲鹿(훈민정음 용자례)
- 鹿 사슴 록(훈몽자회 상 : 10)
- 鹿 사슴 (물명고 1 : 10)
- 鹿 사슴 (재물보 7 : 22)

(3) 노리

<노루>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에는 <노르> · <노로> · <놀>로 나타난다.

- 獐 노르 장(훈몽자회 상 : 10)
- 노로爲獐(훈민정음 용자례)
- 獐 노로 장(신증유합 상 : 13)
- 峻阪엿 놀온 쏘샤(용비어천가 65)

방언형 ‘노리’는 <놀>에 접사 {-이}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어휘다. 이 {노리} 형은 경남·경북·전남·전북·평안도에도 나타나고 있다(崔鶴根, 1962; 정신문화연구원, 1987^b·1989; 金永泰, 1975; 崔鶴根, 1978; 河野, 1942).

(4) 족제비

<족제비>의 방언형이다. 그냥 ‘족’[cok]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족접이>·<족점이>·<족저비>로 나타난다.

- 鼬鼠 족접이(물명고 1 : 12)
- 鼬鼠 족점이(물보 모충)
- 獾 족점이 광(왜어유해 하 : 23)
- 黃鼠 족저비(역어유해 하 : 33, 동문유해 하 : 39)

<족제비>를 ‘족’이라 함은 언중들 사이에서 <족>과 <제비>(燕)라는 별개의 어휘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이름으로 본 결과다.

(5) 여시

<여우>의 방언형으로, ‘여히’[jəhi]·‘여의’[jəwi]·‘여호’[jəho]라고도 부른다. 고문헌에는 <여수>·<여스>·<여으>·<여으>로 나타난다.

- 여수와 솜과는 足히 議論티 문히리로다(狐狸不足論)(두시언해 8 : 12)
- 狐 여스 호(훈몽자회 상 : 19)
- 여으와 너구리 갓웃 뉘으니와 더블어(소학언해 4 : 43)
- 狐 여으(물명고 1 : 11)
- 狐 여으 호(신증유합 상 : 13)
- 狐 여으(물보 모충)

방언형 ‘여시’는 <엿>에 {-이}가 접미되어 형성된 어휘다. 특히 ‘여히·여

- 鼯 드라미 오(훈몽자회 상:10)
- 豆鼠 드롭쥐(한청문감 14:9)*
- 松鼠 드람이(물보 모충)
- 山鼠 다람이(물명고 1:13)

(9) 지다리

〈두더지〉의 방언형으로, ‘지달’[cidal] 또는 ‘오로’[oro]라고도 부른다. 고 문헌에는 〈두더쥐〉·〈두더귀〉·〈뒤덕이〉로 나타난다.

- 鼯 두더귀 분(훈몽자회 상:10)
- 鼯鼠 두더귀(역어유해 하:33, 동문유해 하:39)
- 鼯鼠 뒤덕이(물명고 1:13)

이상 야생동물 이름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방 언 형	문 헌 어	표 준 어	비 고
고냉이 깨	고양이 괴	고양이	고냉이(강원도·경북·충북 함남·함북·평북)
식 속 속	솔 솔	솔팽이	
각늑 사슴	사슴 사슴	사슴	
노리	눌 노로 노르	노루	노리(경남·경북·전남 전북·평안도)
족제비	족접이 족접이 족저비	족제비	
여시 여히 여의 여호	여스 여스 여우 여호 영 영	여우	여호(경북·충북·충남 전북·평안도)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염새 염송애기	염쇼 염	염소	
납 죇나비 죇내비 원생이	납 죇납 죇납이 죇나비 죇납	원숭이	납(전남·경북·강원)
드라미	드라미 드람이 드롬쥬 다람이	다람쥐	
지다리 지달 오로	두더쥬 두더쥬 뒤덕이	두더지	

3. 鳥

〈새〉의 방언형은 ‘생이’(seŋi)이다. 가끔 ‘상이’로도 말해지고, ‘새’로 나타나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새〉·〈시〉로 나타나는데, 방언형 ‘생이’는 문헌어에 ㅇ[ŋ]이 첨가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1) 꿩

〈꿩〉의 방언형으로, 고문헌에 〈꿩〉으로 나타난다.

- 굿븐 썬을 모던 놀이시(용비어천가 88)
- 雉 꿩 티(훈몽자회 상: 9)

〈수꿩〉은 ‘장꿩’으로 불리어지는데, ‘장독’(수탉)과 마찬가지로 {장-}이 연결되어 쓰이고 있음이 특징이다. {장-}이 붙은 방언형은 강원도·충북·전북·경북에도 나타난다(정신문화연구원, 1987^a·1987^b·1989·1990: 金亨奎, 1980).

〈암꿩〉은 ‘암꿩’이라 하는데, 가끔 ‘까도리’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이는 표

준어 <까투리>와 같다.

<꺼병이>는 ‘평빙애기 · 평비아기 · 줄레’라고도 부르는데, ‘줄레’ [culle]에 주목하고자 한다.

玄平孝(1962 · 1985 : 549)에서는 ‘줄레’를 “꺼병이 보다 조금 큰 작은 평”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제보자들에 따르면, 이 ‘줄레’를 가지고 암평을 잡는데 이용한다고 한다. 일종의 유인물이다.

유인물의 뜻으로 고문헌에 <푸디게> · <프지게>가 보인다.

○ 簾 射苑 푸디게 靑帳 舍(물명고 1:1)

○ 打靑帳 프지게 티다(역어유해 상:22)

이 예문에 의하면 평을 잡는 기구를 <프지게> · <푸디게>라 함을 알 수 있다. 《물명고》에서는 이 <푸디게>에 연이어 “誘子 밋썰”이라 되어 있어, 기구 대신에 誘子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밋썰>이라는 것이다.

또 《물보》에 “媒 프디게 혈 썰”(전어)이 보이는데, 평을 가지고 평을 잡는데 이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역어유해》에 “罾子 풀에”(하:34)가 보인다. “미끼인 새”라고 한다면 <꺼병이>를 가지고 일종의 미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프지게 > 푸디게 : 誘子	└─ 프지게 = 풀에 (=밋썰) (푸디게)
풀에 = 밋썰 : 誘子	

라는 사실로 귀착된다.

프지게(푸디게) = 풀에 (=밋썰)가 이 방언의 ‘줄레’와 같다.

(2) 꿩꼬리

<꿩꼬리>의 방언형이다. [∅]가 복모음 [we]로 발음된다는 이 방언의 특징에 연유한다.

고문헌에는 <꿩꼬리> · <췌꼬리> · <꿩꼬리> · <괴췌리> · <꿩꼬리> · <꿩고

리) · <쇠솔이> · <곶골>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곶고리 놀애 더운 재 오히 하도다(鶯歌暖正繁) (두시언해 8 : 46)
- 鶯 꿇고리 잉(신중유합 상 : 11)
- 節 아논 괴썩리논 어드러서 오돏던고(송강가사 14)
- 鶯 쇠고리(물명고 1 : 4)
- 黃鸝 쇠썩리(동문유해 하 : 35)
- 鶯 꿇고리 잉(왜어유해 하 : 21)
- 黃鸝 꺾고리(물보 우충)

(3) 고망독새

<굴뚝새>의 방언형으로, ‘고냥독새’[konjaŋdɔksɛ] · ‘그스렁독새’[kisirəŋdɔksɛ] · ‘그시력닥새’[kisirɛktaksɔ]라고도 부른다. 고문헌에서 해당 어휘를 찾을 수 없다.

이 방언에서 <구멍>(穴)을 ‘고망’ · ‘고냥’ 또는 ‘구녁’ · ‘구멍’이라 한다. 또 <그으름>을 ‘그슬먹’ · ‘그시렁’ · ‘그스렁’ · ‘그시렁이’ · ‘그시력’이라고 한다. 그러니 <굴뚝새> 대신에 굴뚝에서 연상된 <구멍>과 <그으름>과 관련시켜 그 어휘들의 방언형을 대용하여 명명하고 있다.

(4) 기레기

‘그레기’[kiregi]라고도 부르는데, <기러기>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에는 <그려기> · <괴려기> · <그력> · <기러기> · <그러기> · <기력이>로 나타난다.

- 그려기 올히는 기리 헤요미 맛당하니(鵝鴨宜長數) (두시언해 7 : 9)
- 雁 그려기 안(천자문 27)
- 鴻 괴려기 흥(훈몽자회 상 : 8)
- 雁 기력이(물보 우충)
- 鵲 천영홀 재 가져가는 기러기라(소학언해 2 : 49)

(5) 갈매기

<갈매기>의 방언형으로, ‘갈메’[kolme] · ‘갈멩이’[kolmeŋi] · ‘갈미’[kolmi]로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굴머기>·<굴먹>·<굴먹이>·<갈머기>로 나타난다.

- 鳩 굴머기 구(훈몽자회 상:9)
- 굴머기 도라오문 오직 넷 모시로다(鳩蹄抵故池)(두시언해 24:61)
- 白鳩 굴먹이(물보 우충)
- 鳩 갈머기(물명고 1:3)

(6) 간치

<까치>의 방언형으로, ‘간치’[k’anchi] 또는 ‘까치’[k’achi]라고도 부른다. 어두에 예사소리를 유지하고 있고, 첫음절말에 문헌어처럼 ㄴ(n)이 나타남이 특이하다.

고문헌에는 <가치>·<간치>·<가티>·<갓치>로 나타나고 있어,

- 鵲 가치 작(훈몽자회 상:9)
- 鵲 가티(물명고 1:5)
- 가마기와 간치왜 구분 가지예 ㄱㄷ기 안자서(鳥鵲滿繆枝)(두시언해 16:37)
- 鵲 갓치(물보 우충)

(7) 남도로기새

<딱다구리>의 방언형으로, 이 새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나무>의 방언형은 ‘남’·‘낭’·‘나모’·‘나무’로 나타나는데, 최고형인 ‘남’을 취하고 있다. ‘도로기’는 이 방언의 ‘돌르다’ 또는 ‘도르다’와 깊은 관련이 있다. 곧 <도리다>에 맞먹는 방언형이다. “돌려서 베어 내다”는 뜻이니, 방언형 ‘돌르다’·‘도르다’의 어간에 {-기} 접사가 연결되어 형성된 이름이다.

(8) 왁새

<버꾸기>의 방언형이다. ‘버꼭새’·‘꼭새’·‘버꿍새’라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버국새>·<벅구기>·<벅국새>·<벅국이>·<버국당이>로 나타나, ‘왁새’와 ‘꼭새’는 나타나지 않는다. ‘왁새’·‘꼭새’라는 이름은 새의 울음소리와 관계가 있다.

- 鵲 벉국새 시(훈몽자회 상: 9)
- 우루물 우루티 벉국당이사 난 묘해(시용향약보 26)
- 可鵲 벉구기(동문유해 하: 35)
- 布穀 벉국새(역어유해 보: 47)
- 鳴鳩 벉국이(물보 우충)

《물명고》에 보면 “鵲鳩 似鷄長尾 벉국이 布穀 可鵲 鳴鳩 獲穀 郭公 撥穀 阿公…因其鳴聲而名各不同”이란 구절이 있어 이를 입증해 준다. 이중 우리의 관심은 郭公에 있다. 이 어휘가 이 방언에 와서 郭만을 취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곽새’가 된 것이다. ‘왁새’는 어두에서 ㄱ[k]이 약화된 어휘다.

金英培(1976)에 <왁새>가 보이거나 이는 <왜가리>의 평안도 방언형이다.

(9) 뚱소로기

<소리개>의 방언형이다. ‘뚱소레기’[t’onsoregi] · ‘뚱수로기’[t’opsurogi] · ‘뚱데웨기’[t’opdewegi] · ‘소로기’[sorogi] · ‘소레기’[soregi] · ‘수리’[suri]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쇠록이> · <쇼로기> · <쇠로기> · <쇠로기> · <쇼록이> · <소로기> · <쇼록이> · <쇼로개> · <쇼로기>로 나타나, 어두의 {뚱-}을 제외하면 문헌어와 같다.

- 鵲 쇠로기 연(훈몽자회 상: 9)
- 鵲 쇼로기 치(신증유합 상: 12)
- 彈子는 쇠로기 곤흔 새를 디뎛다(彈落似鵲禽)(두시언해 3: 14)
- 쇠록이 마리(구급간이방언해 1: 96)
- 鵲 소로기(물명고 1: 5)
- 鵲 쇼로개(물보 우충)

어두에 {뚱-}이 연결되는 것은 <수리>와 비교할 때 크기가 작아, 보잘 것 없이 보이기 때문이다. “보잘 것 없다”는 의미가 있는 {뚱-}이 연결되어 부르는 이름이다(뚱개 · 뚱차 · 뚱별 등).

(10) 제비생이

〈제비〉의 방언형으로, ‘제비새’[cebise]라고도 부른다.

고문헌에는 〈저비〉·〈접이〉·〈제비〉·〈저비〉로 나타나고 있어, 문헌어와 같다.

- 저비爲燕(훈민정음 용자례)
- 우논 비두리와 샛기 치는 제비에 프른 보미 기괘도다(鳴鳩乳燕青春深)
(두시언해 6:13)
- 저비는 신탄길 히를 여회오(燕辭楓樹日)(두시언해 23:21)
- 越燕 접이(물명고 1:6)

(11) 비죽생이

〈종달새〉의 방언형이다. ‘비죽새’[picukse]·‘줍생이’[cɔpseŋi]·‘중지새’·‘중지리새’·‘주주머리새’·‘중주리새’·‘하늘생이’·‘드르생이’로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종다리〉·〈종달이〉로 나타나고 있다.

- 造化 종다리(역어유해 하:27)
- 造化鳥 종달이(물명고 1:3)

‘비죽생이’·‘비죽새’는 그 새의 울음소리에서 따온 이름이며(꼬마들의 울음을 말할 때 ‘비죽비죽’ 울다, ‘삐죽삐죽’ 울다 라고 한다), ‘줍생이’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연유한 이름이다.

‘하늘생이’·‘드르생이’는 이 새의 나는 속성에서 빌려온 이름이다. 《물명고》의 설명을 보면 “小鳥頭有勝春夏飛鳴直上而下”(1:3)로 되어 있어, 수직으로 하늘로 올라갔다가, 마찬가지로 수직으로 내려온다는 것이다. 하늘과 땅을 번갈아 오르내리는 새다. 초점이 하늘에 맞추어졌을 때의 이름은 자연 ‘하늘생이’가 될 것이고, 땅에다 두면 ‘드르생이’가 됨은 당연하다.

(12) 총대기

〈참새〉의 방언형으로, ‘참새’[chomse]·‘빔주리생이’[papcuriseŋi]·‘참생이’[chomseŋi]로 부르기도 한다. 문헌어로는 〈참새〉·〈참새〉가 나타난다.

- 雀 춤새 작(신증유합 상: 12)
- 瓦雀 춤새(물보 우충)
- 雀 참새(물명고 1: 6)

‘총대기’는 《물명고》에서 나오는 “……白丁香 春丹 소”의 春丹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밥주리생이’에서 ‘밥주리’는 <잠자리>의 방언형으로 쓰이는 어휘다(‘잠자리’항 참조).

(13) 콩새이

<콩새>의 방언형으로, 고문헌에도 <콩새>로 나타난다.

- 茶鳥 콩새(물명고 1: 6)

(14) 가나귀

<까마귀>의 방언형이다. ‘가마귀’[kamagwi] · ‘가메기’[kamegi]로 부르기도 하는데, 어두에 예사소리가 유지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고문헌에는 <가마귀> · <가마괴> · <가마기>로 나타난다.

- 鳥 가마괴 오(혼몽자회 상: 9)
- 가마기와 간치왜 구분 가지에 ㄱㄷ기 안자서 (鳥鵲滿繆枝)(두시언해 16: 37)
- 가마귀 뼈는 골에 白鷺야 가지마라(청구영언 43)

(15) 순작

<메추라기>의 방언형이다. ‘썬작’[swincak] ‘쑤작’[cuncak] 또는 ‘메초레기’라 부르기도 한다. 이중 ‘메초레기’는 문헌어와 같고, 그외의 이름들은 한자어로 대신하고 있다.

고문헌에는 <모츨라기> · <뫼츨라기> · <뫼초라기> · <뫼초리> · <뫼초락이> · <뫼출이> · <믄츨ㄹ기>로 나타난다.

- 오시 놀ㄹ니 모츨라기 ㄷ론 듯 호미 잇도다(衣故有縣鷄)(두시언해 20: 26)

- 鵪鶉 퇴초라기 (역어유해 하 : 27)
- 鵪鶉 퇴초라기 (물보 우충)
- 鵪鶉 퇴초라기 (동문유해 하 : 35)
- 鵪鶉 퇴출이 (물명고 1 : 2)
- 鵪鶉 문초라기 (왜어유해 하 : 21)

(16) 하괴새

〈학〉의 방언형이다. 문헌어와 마찬가지로 한자어를 원용하고 있다. 다만 {새}가 더 첨미되어 있음이 다를 뿐이다.

고문헌에는 〈학〉 또는 〈두루미〉·〈두로미〉·〈두루미〉로 나타난다.

- 鶴 학 학(훈몽자회 상 : 8)
- 鶴 두루미 죽(훈몽자회 상 : 9)
- 鶴 두로미(사성통해 하 : 23)
- 鶴 두루미(물보 우충)

(17) 춤매

〈매〉의 방언형으로 ‘매’라고 부르기도 한다.

〈술개〉와 비교하여 眞의 뜻을 지닌 방언형 ‘춤’이 덧붙여진 것이다.

- 鷗 매 골(훈몽자회 상 : 8)

(18) 옥밤

〈올빼미〉의 방언형으로, ‘옥밤’[otpam]·‘옥바미’[otpami]로 부르기도 한다. 崔鶴根(1978)에도 〈옥배미〉(경남·북, 충남·북)·〈올빼미〉(경남)가 나온다.

고문헌에는 〈옥바미〉·〈옥밤이〉·〈올밤〉·〈올바미〉·〈올바미〉로 나타난다.

- 鷗 옥바미 휴(신증유합 상 : 12)
- 夜猫 옥바미(역어유해 하 : 28)
- 鴞 올바미 효(훈몽자회 상 : 9)
- 鷗 올바미(시경언해 물명 : 12)

(19) 돛박생이

〈동박새〉의 방언형이다.

‘돛박’(tombak)은 〈동백〉의 방언형으로(‘돛박고장’·‘돛박지름’·‘돛박낭’)이 ‘돛박’에 ‘생이’가 더 연결되어 쓰이는 이름이다.

이상 새 이름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방 언 형	문 헌 어	표 준 어	비 고
생이 상이 새	새 신	새	
핑	쌩	핑	
암핑 까도리	암쌩	암핑	
장핑	수쌩	장끼	{장-}(강원·충북· 전북·경북)
핑빙애기 핑비애기 줄레	밋쌩	꺼병이	
궤꼬리	곶꼬리 쇠꼬리 핏꼬리 괴꼬리 쇠꼬리 괭꼬리 괭꼬리 쇠솔리 곶곶	괴꼬리	
고망독새 고냥독새 그스렁독새 그시렁닥새		굴뚝새	
기랙기 그레기	그러기 괴러기 그럭 기러기 그러기 기력이	기러기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갈매기 갈베 갈맹이 갈미	갈머기 갈벽 갈맥이 갈머기	갈매기	
간치 깐치 까치	가치 간치 가티 갓치	까치	
남도로기새		딱따구리	
왓새 버꼭새 꽉새 버꿍새	버국새 벅국새 벅구기 벅국이 버꼭당이	뻬꾸기	
똥소로기 똥소래기 똥수로기 똥데웨기 소로기 소래기 수리	쇠록이 쇼로기 쇠로기 쇠로기 쇼록이 소로기 소록이	솔개	
	쇼로개 쇼로기		
제비생이 제비새	저비 접이 제비 저비	제비	
비죽생이 비죽새 줍생이 죵지새 죵지리새 주주머리새 죵주리새 히늘생이 드르생이	죵다리 죵달이	죵달새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총대기 춤새 밤주리생이 춤생이	춤새 참새	참새	
콩생이	콩새	콩새	
가나귀 가마귀 가메기	가마귀 가마괴 가마기	까마귀	
순작 원작 준작 메초테기	모초라기 외초라기 외초라기 외초리 외초락이 외족이 몬초라기	메추라기	
하괴새	학 두루미 두루미	학	한새 (전남) 항새 (전남·경남 경북) 황새 (경남·북)
춤매 매	매	매	
옥밤 옷밤 옷바미	못바미 옷밤이 은밤 은바미 올바미	올빼미	옷배미 (경북·남; 충북·남) 옷빼미 (경남)
듬박생이		동박새	

4. 昆 蟲

〈곤충〉의 대표격은 〈벌레〉다.

이 〈벌레〉에 해당하는 방언형은 ‘버랭이’(pəreŋgi) 또는 ‘베랭이’(pereŋgi)다. ‘베랭이’는 첫 음절이 복모음으로 나타남이 특이하다. 《왜어유해》에 나오는 어휘와 같기 때문이다.

고문헌에는 <벌어지> · <벌엇> (《두시언해》) · <벌에> (《훈몽자회》) · <버레> (《동문유해》) · <베레> (《왜어유해》) 등으로 나타나며, 이 방언에서는 o[ŋ]이 첨가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국다귀

<각다귀>의 방언형이다. 이른바 아래아를 유지하고 있다.

(2) 불한디

<개똥벌레>의 방언형으로, ‘불한지’[pulhanci]라고도 부른다.

<개똥벌레>를 <반딧불>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반딧불>은 개똥벌레 꿈무늬에서 반짝이는 인의 불빛을 뜻하는 어휘다. 이 어휘가 <개똥벌레>를 지칭하는 어휘로, 의미가 확대되어 쓰이고 있다.

<반딧불> 또는 <반디>의 문헌어는 <반되> · <반도> · <반되> · <반되불>로 나타난다.

- 반되爲蜚(훈민정음 용자례)
- 蜚 반되 형(신증유합 상: 15)
- 蜚 반도 형(훈몽자회 상: 11)
- 蜚 반되(물보 비춤)
- 반되브를 가져 須彌山 스로려 ㅎ야도(원각경언해 상2-3: 40)

(3) 게염지

<개미>의 방언형으로, ‘게여미’[kejəmi] · ‘게미’[kəmi]라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개야미> · <개얌이> · <개아미> · <개염이> · <가얌이> · <가얌> · <가야미>로 나타난다.

- 마들 다오매 굶꿇 개야밀 어엿비 너기교(築場機穴蟻) (두시언해 7: 18)
- 뜰 가운데 덕쥬어려 벌에며 개얌이를 주어(소학언해 6: 93)
- 蟻 개아미 의(신증유합 상: 15)
- 願혼 둔 대 여름과 개염이를 논화 줄 디니(願分竹實及樓蟻) (두시언해 17: 3)
- 蟻 가얌이 의(왜어유해 하: 26)
- 榛子 가얌(역어유해 상: 55)

- 蟻 가야미 의(혼몽자회 상: 12)

전남에 <괌지>가 보임이 특이하다(李敎柱, 1979).

(4) 장삼계염지

이 '장삼계염지'[cagsamkejənci]는 "날개가 돋은 개미"를 말한다. '장삼계염미·장삼거염지·장삼거염미'라고도 하는데, 날개가 마치 <장삼>(長衫)처럼 보이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물명고》에 보면, "蠶 飛蟻遇熱濕群飛脫翼墮死 날가얌이" (2: 11)가 있어, 이 <날가얌이>가 '장삼계염지'가 아닌가 한다.

(5) 붉은계염지

<불개미>의 뜻이다. '노린계염지'[norinkejənci]라고도 한다. 색깔에 따른 이름들이다. <붉다>·<노랗다>는 <불개미>가 암적황색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고문헌에는 <불가얌이>·<불개야미>로 나타난다.

- 蠶 불가야미(물명고 2: 11)
- 개야미 불개야미 준동 부러진 불개야미(청구영언 63)

방언형들은 {불} 대신에 색깔을 나타내는 {붉은}·{노린}이 연결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6) 물계염지

<왕개미>의 방언형으로, '왕계미'[waggemi]·'왕계염지'·'왕계염미' 또는 '물계염미'[molkejəmi]라고도 부른다.

{왕-}계와 {물-}계로 나누어지는 것은 <왕개미>= <말개미>이기 때문이다. 고문헌에는 <스승가얌이>로 나타나고, <물가얌이>로 나타나기도 한다.

- 蟻王 스승가얌이(물명고 2: 11)
- 馬蟻 물가얌이(물명고 2: 11)

(7) 거멀

〈거머리〉의 방언형으로, ‘거말’[kəmal] · ‘거머리’[kəməri] · ‘거마리’[kə mari]라고도 부른다. 고문헌에는 〈거머리〉로만 나타난다.

- 蛭 거머리 덜(훈몽자회 상:12)
- 水蛭 거리미(물명고 2:14)

(8) 거미

‘거미’[kəmi]라고도 부르는데, 〈거미〉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에는 〈거미〉·〈검의〉·〈거위〉로 나타나고 있어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다.

- 蜘蛛 거미 지(훈몽자회 상:11)
- 蜘蛛 거위(물명고 2:12)
- 蜘蛛 검의(물보 주충)

(9) 땅거미

〈땅거미〉의 방언형이다.

(10) 돛거미

〈왕거미〉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에는 〈왕거위〉로 나타난다.

- 왕거위 덕거위들아 진지 東山 진거위 납거위들아 (교본역대시조전서 2136-16)*

방언형인 ‘돛거미’[totkəmi]는 〈왕거미〉가 지니고 있는 색깔인 암갈색에서 연유한다. 즉 ‘돛’(돛자)처럼 검게 보인다는 것이다.

(11) 게우리

〈거위〉의 방언으로, ‘거수의’[kəsuwi] · ‘거수에’[kəsue]라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 〈것위〉·〈거위〉·〈거쉬〉·〈것위〉·〈거의〉·〈거위〉로 나타난다.

- 쫓 것위를 팻넙 소매 너허 프리 두외어든(又方取蚯蚓內蔥管中候化爲水)
(구급방 하:43)
- 것위 두 량 값간 붓그니와 (구급간이방언해 1:89)

- 蛟 거위 구(혼몽자회 상: 11)
- 蜺 거의 인(신증유합 상: 15)
- 蛔虫 거위(동문유해 하: 43)

위 4개의 예문에 쓰인 <것위>·<것위>·<거위>·<거의>들은 <지렁이>의 뜻이 분명하나, 마지막 예문의 <거위>는 기생충의 이름이다.

음운변화를 고려한다면 <것위>~<거위>는 같은 사물을 지칭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지렁이>는 고문헌에 <디렁이>·<디렁이>·<디렁> 등으로 나타난다(<지렁이>항 참조).

별개의 사물이 혼동을 일으키게 된 것은 <거위>와 <지렁이>가 비슷한 데서 그 연유를 찾아야 할 것이다. (강원도에서도 혼동하고 있다. 李翺燮, 1981: 53). 그러니 <것위>~<거위>는 현대어의 <거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병재의 《방언사전》에는 평북에 <게우>형이 보여, 이 방언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1980: 389).

(12) 밥주리

<잠자리>의 방언형으로, ‘밤부리’(pamburi)·‘밤버리’(pumbəri)·‘물자리’(mulcari)·‘물젤’(zulcel)·‘잘’(cal)·‘한다바리’(handabari)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고문헌에는 <준자리>·<준주리>·<잔주리>로 나타난다.

- 蛉 준자리 령(혼몽자회 상: 11)
- 蜻 준자리 청(신증유합 상: 15)
- 蜻蛉 준주리(물보 비충)
- 蜻蜓 잔주리(물명고 2: 11)

‘물자리’는 《물명고》에 나오는 “水蠶 在水中將化請斑者 청벌에 亦名 물웅티”에서 연유한 것이라 보아진다.

‘한다바리’는 혹 《물명고》에 나오는 “天鷄”와의 그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13) 고치밥주리

〈고추잠자리〉의 방언형이다. ‘고치밤버리’[kochibambəri]·‘고치물자리’[kochimulcari]·‘고치잘’[kochical]·‘고치오쟁이’[kochioceŋi]라 부르기도 한다. {오쟁이} 또한 〈잠자리〉의 방언형으로 볼 수 있는데,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다. 이 잠자리는 〈고추〉처럼 빨간 것이니, 《물명고》에 나오는 “赤卒”에 해당된다(赤卒 小而赤者 모밀잔주리, 2:10).

(14) 장수밥주리

〈장수잠자리〉의 방언형으로, ‘장수물자리’[cagsumulzari] 또는 ‘산태’[santɛ]라고도 부른다. 〈잠자리〉중에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연유한 이름이다. ‘산태’에도 大의 뜻이 들어 있다.

(15) 벌

〈벌〉의 방언형으로, 고문헌에는 〈벌〉·〈버리〉로 나타난다.

- 벌爲蜂(훈민정음 용자례)
- 飛飛는 버리와 나비와 하도다(飛飛蜂蝶多)(두시언해 25:18)

(16) 청벌

〈꿀벌〉의 방언형이다. 문헌어 〈꿀벌〉 대신에 ‘청벌’[chəŋbəl]이란 이름이 특이하다. 이 방언에서 〈꿀〉을 ‘청’이라고 하는데, {꿀}의 자리에 {청}이 대용되어 있다.

(17) 사상벌

〈말벌〉의 방언형이다. ‘새당벌’[sedapbəl]·‘소왕벌’[sowapbəl]이라고도 한다.

고문헌에는 〈물벌〉 또는 〈바드리벌〉·〈바드리〉·〈바달이〉로 나타난다.

- 馬蜂 물벌(동문유해 하:42)
- 土蜂 물벌(물명고 2:9)
- 細腰蜂 바드리벌(역어유해 하:35)
- 蟪 바드리 웅(훈몽자회 상:12)

- 木蜂 바달이(물명고 2:9)

‘사상벌’은, 추측이기는 하지만 한자어 死傷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소왕벌’인 경우는 <엇정퀴>에 해당하는 방언형 ‘소왕이’와 ‘벌’(蜂)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이름이다. <말벌>이 지니고 있는 속성에 연유한다.

(18) 굼벵이

<굼벵이>의 방언형으로, 고문헌에는 <굼벵이>·<굼벵>으로 나타난다.

- 蟬蟬 굼벵이(물명고 2:11)
- 굼벵爲蟬蟬(훈민정음 용자례)

(19) 공중이

<귀뚜라미>의 방언형이다. ‘공쟁이’[koŋceŋi]·‘공쟁이말쭉’[koŋceŋ imalchul]·‘공쟁이’[koŋcwiji]라 부르기도 한다. 문헌어와 상이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고문헌에는 <컷돌와미>·<컷돌아미>·<컷도라미>·<컷도람이>·<컷돌왓>·<컷돌이>·<컷도리> 또는 <귀도리>·<귀돌와미>로 나타나고 있다.

- 흘러 가는 뵤에 컷돌와미 우로매 갓노니(流年疲蟋蟀)(두시언해 20:47)
- 컷돌아미 中堂에 갓가이 와(蟋蟀近中堂)(두시언해 7:36)
- 蟋 컷도라미 실(훈몽자회 상:12)
- 寵馬兒 컷도람이(역어유해 보:49)
- 나그네 시르른 컷돌와미 소리에 니엇고(客蟋連率)(두시언해 21:28)
- 蟋蟀 컷돌이(물명고 2:10)
- 蟋 귀돌와미(사성통해 상:66)

(20) 니

<이>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에 <니>로 나타난다.

- 蠶 니 슬(훈몽자회 상:12)
- 蠶子 니(역어유해 하:35)

(21) ㄱ 랑니

〈가랑니〉의 방언형이다.

(22) 쉬

〈서캐〉의 방언형으로, 고문헌에 〈석하〉로 나타나 문헌어와는 무관한 이름이다.

- 𪛗 석하(물명고 2:13)

(23) 잣

〈나무굼벥이〉의 방언형이다. ‘줏’[cot]이라고도 부른다.

고문헌에 〈즈치〉·〈즈채〉·〈즈티〉로 나타난다.

- 늘근 쯤나모 속개 즈치를 들히나 세히나 ㄷ순 술의 ㄱ라 머기고(老桑樹 內齏蟲二三箇溫酒研服)(언해두창집요 상:28)*
- 蠟蠟 주채 서근 남괴 버러지라(시경언해 물명:6)
- 蛀 주티(물명고 2:11)

(24) 나비

〈나비〉의 방언형으로, 고문헌에 〈나뷔〉·〈나뵤〉·〈나뵤〉·〈나뵤〉·〈납이〉로 나타나 문헌어를 반영한 이름이다.

- 蝴蝶 나뷔(물명고 2:9)
- 蝴蝶兒 나뵤(동문유해 하:42)
- 물애 더우니 브르멧 나뵤 느죽호고(沙暖低風蝶)(두시언해 23:20)
- 𪛗 나뵤 험(훈몽자회 상:11)
- 粉蝶 납이(역어유해 보:49)

(25) 심방나비

〈범나비〉의 방언이다. ‘심방나비’[simbagnabi]의 ‘심방’은 〈무당〉을 뜻하는 말이다. 무당처럼 화려한 색채를 띠고 있다는 데서 연유한다. 고문헌에는 〈범나뵤〉로 나타난다.

- 大蝴蝶 범나뵤(동문유해 하:42)

(26) 누에

〈누에〉의 방언형으로, ‘누웨’(nuwe)라고도 부른다.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고문헌에는 〈누에〉로 나타난다.

- 누에爲蠶(훈민정음 용자례)

(27) 두메기

〈노린재〉의 방언형이다.

(28) 봉앵이

〈등에〉의 방언형으로, ‘봉애기’(poŋægi) · ‘봉앙이’(poŋaŋi)라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등위〉 · 〈등의〉 · 〈등익〉 · 〈등에〉로 나타나고 있다.

- 蜂 등의 텡 (훈몽자회 상: 11)
- 蜂은 등위라(능엄경언해 9: 68)
- 蜂 등익 (물보 비충)
- 蜂 등에 (물명고 2: 11)

(29) 말촉

〈메뚜기〉의 방언형으로, ‘만촉’(manchuk)이라고도 부른다. 고문헌에 〈뿔도기〉 · 〈뿔독이〉 · 〈뿔도기〉 · 〈뿔쪽이〉로 나타난다.

- 螞 뿔도기 마(훈몽자회 상: 12)
- 釣瓢子 낙시스줄 뿔독이(역어유해 보: 17)
- 炸 뿔도기 작(왜어유해 하: 26)
- 蝗 뿔쪽이(물보 비충)

이 ‘말촉’ · ‘만촉’은 “피부의 거죽에 자그마하게 두드러져 난 군살”인 〈무사마귀〉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²⁴⁾

24) 강영봉(1991: 139)의 글 참조.

(30) 물말촉

〈떠무늬메뚜기〉의 뜻이다.²⁵⁾

(31) 심방말촉

〈방아깨비〉의 방언형으로, ‘심방만촉’[simbaɯmanɕuk] · ‘산전불락’[sanɕənbollagi] · ‘산전불라기’[sanɕənbollagi] · ‘산뒤말촉’[sandwimalɕuk] · ‘산뒤말촉’[sandwimalɕuk] · ‘상둥말촉’[saŋduŋmalɕuk]이라고도 부른다.

고문헌에 〈방하아비〉 · 〈방하아잡이〉로 나타난다.

○ 𪛗 방하아비(물명고 2:10)

○ 炸蟪 방하아잡이(물보 비충)

‘심방말촉’이라는 이름은 방아깨비가 ‘심방’(무당)처럼 절을 잘한다는 데서 연유하고 있으며, ‘산뒤말촉’은 ‘산뒤왓’(旱稻田)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32) 재열

〈매미〉의 방언형으로, ‘자리’[cari] · ‘젤’[cɛl] · ‘재’[cɛ]로 부르기도 한다.

〈매미〉의 뜻으로 고문헌에는 〈믹얌이〉 · 〈믹야미〉 · 〈믹얌〉 · 〈믹얌이〉 · 〈마얌이〉 · 〈믹얌이〉로 나타난다.

○ 蟬 믱얌이 선(왜어유해 하:26)

○ 蟬 믱야미 선(신증유합 상:15)

○ 믱야믹 형울을 하나 겨그나 굴을 밍ᄃ라(구급간이방언해 6:78)

○ 蟬 믱얌이(물보 비충)

○ 秋涼兒 믱얌이(역어유해 하:34)

○ 蟬 마얌이(물명고 2:11)

〈잠자리〉항에서 보았듯이 ‘물자리’ · ‘물젤’이란 이름이 있어 혼동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미〉를 뜻하는 ‘재’가 〈잠자리〉이름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각각 별개의 사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25) 강영봉(1991:139)의 글 참조.

(33) 왕재열

〈말매미〉의 뜻으로, ‘왕자리’[waŋcari] · ‘왕재’[waŋce] · ‘왕절’[waŋca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왕-}을 제외하면 전항에서 본 〈매미〉의 방언형이 그대로 쓰이고 있다. {말} 대신에 {왕-}이 들어간 것이 다를 뿐이다.

이 ‘왕재열’은 《물명고》에 나오는 “馬蟬 夏月始鳴大而黑 말마암이”에 해당된다. 표준어에서처럼(왕지네 · 왕거미 · 왕개미 등) 大의 뜻으로 {왕}이 쓰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연결은 이 방언에도 종종 있다(왕하르방 · 왕할망 등).

(34) 쫓재열

“크기가 아주 작은 매미”를 말하는데, ‘쫓자리’[pɔtcari] · ‘쫓절’[pɔtceɪ] · ‘쫓재’[pɔtce] · ‘쫓재열’[cɔkceɪɐl]이라고도 부른다.

‘쫓’은 <팔>의 방언형으로, ‘쫓재열’이라고 하면 “팔알처럼 작은 매미”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쫓재열’이라는 이름에서도 {쫓} (小)이 있어 이를 알 수 있다. {왕-}이 크다고 한다면 {쫓-}은 小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방언에서 예(어휘)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쫓감-아주 작은 감으로 갈옷을 만들 때 주로 이용됨
쫓볼레-팔알처럼 작은 보리수나무 열매
쫓깅이-아주 작은 게

(35) 모기

〈모기〉의 방언형으로 문헌어를 반영한 이름이다.

고문헌에는 〈모괴〉 · 〈모괴〉 · 〈목의〉 · 〈모기〉로 나타난다.

- 귀머근 사궤미 百步 밋기 디나 모기 소리 듣듯야(능엄경언해 4:3)
- 蚊 모괴 문(훈몽자회 상:11)
- 모괴 므러 당티 못궤니(박통사언해 중:58)
- 蚊 목의(물보 비춤)

(36) 멜워

〈머루〉의 방언형이다. 《물명고》에 나오는 “蚋子 小蚊”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2:11).

함북에 <덜귀>형이 보이는데, 어종의 ㄱ[k]이 약화되면 이 방언과 비슷해 주목된다(金泰均, 1975).

(37) 벼룩

<벼룩>의 방언형으로, 문헌어를 반영한 이름이다. 고문헌에는 <벼룩>으로 나타난다.

- 乾 벼룩 걸(훈몽자회 상: 12)
- 蜚 벼룩 조(신증유합 상: 16)
- 蜚 벼룩(물명고 2: 13)

(38) 빈대

<빈대>의 방언형으로, ‘백사리’(peksari)라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빈대>로 나타난다.

- 壁蝨 빈대(물명고 2: 12)
- 壁蝨 빈대(물보 도충)

방언형 ‘백사리’는 {백+살+이}로 분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백}에 있다. 이 방언에서 <벽>을 ‘백’ 또는 ‘백븍름’, <벽장>을 ‘백장’이라고 한다. 예문에서처럼 <빈대>의 표제어가 壁蝨이라고 한다면 <벽>과 관계가 깊다. {백}은 <벽>에 해당되니, “벽에서 사는 이” 곧 <빈대>가 되는 것이다.

(39) 소낭버랭이

<송충이>의 방언형으로, ‘소낭베랭이’(sonapberegi) · ‘송충버랭이’(songchunberegi) 또는 ‘송충이’라 부르기도 한다.

(40) 파리

<파리>의 방언형으로, 문헌어를 그대로 부르는 이름이다. 고문헌에는 <파리> · <플>로 나타난다. 전북에서는 <포리>형이 보인다(정신문화연구원, 1987^b).

- 蠅 爲蠅(훈민정음 용자례)
- 蠅 파리 송(훈몽자회 상: 11)

(41) 쉬꼭리

〈쉬파리〉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에도 〈쉬꼭리〉로 나타나고 있어,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 景迹 쉬꼭리(물보 비충)
- 景跡 쉬꼭리(물명고 2: 11)

《두시언해》에는 〈프른꼭리〉(24: 62)로 나타나 《물명고》의 “景跡 쉬꼭리 大而靑”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다.

(42) 똥꼭리

〈똥파리〉의 방언형으로,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문헌어로는 〈똥의꼭리〉가 보인다.

- 赤豆 똥의꼭리(물명고 2: 11)

(43) 개꼭리

〈개파리〉의 방언형으로, 고문헌인 《물명고》에 나오는 “狗耳蠅 개꼭리”(2: 11)를 반영하고 있다.

(44) 구데기

〈구더기〉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에 〈귀덕이〉·〈귀더기〉·〈귀덜이〉로 나타난다.

- 蛆 귀덕이(물보 주충)
- 蛆虫 귀더기(역어유해 하: 35)
- 蛆 귀덜이(물명고 2: 11)

(45) 쉼꼭리

〈쇠파리〉의 방언형이다. 〈소〉의 방언형 ‘췌’(swe)에다, 〈파리〉의 문헌어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이름이다.

(46) 지넝이

〈지네〉의 방언형으로, ‘지냉이’[cinɛŋi] · ‘주냉이’[cunɛŋi]라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 〈진예〉 · 〈진의〉 · 〈지네〉로 나타나고 있어,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o[ŋ]이 더 첨가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다.

- 蜈蚣 진예(역어유해 하: 35)
- 蜈蚣 진의(물명고 2: 13)
- 蜈 지네 오(훈몽자회 상: 12)

(47) 황지냉이

〈왕지네〉의 방언형으로, ‘황주냉이’[hwaŋcunɛŋi]라 부르기도 한다. 크기가 큰 지네로 그 색깔이 붉다. 붉은 색에서 연유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48) 쥘이

〈쥐〉의 방언형이다. ‘중이’[cuŋi] · ‘쥬이’[cwɛŋi]로 부르기도 하는데, 문헌어를 반영한 이름이다. o[ŋ]이 첨가되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인화시켜 ‘머느리’라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쥐〉 · 〈쥐머느리〉 · 〈쥐머느리〉로 나타난다.

- 鼠 쥐 서(훈몽자회 상: 10)
- 蟪 쥐머느리 서(훈몽자회 상: 11)
- 鼠婦 쥐머느리(물명고 2: 12)

(49) 지렁이

〈지렁이〉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에는 〈디렁이〉 · 〈디룡〉 · 〈디룡이〉 · 〈지룡이〉로 나타난다.

- 𧈧 디룡이를 소곰 불라 노가 물 되어든 흙 업게 𧈧고 머그라(又方 蚯蚓 以鹽塗之化成水去泥飲之) (분문온역이해방: 24)*
- 蚯蚓 디룡이(역어유해 하: 35)
- 蚯蚓 지룡이(물보 주충)

앞에서 본 〈거위〉와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문헌어의 혼동과 께를 같이하고 있다.

(50) 진독

〈진드기〉의 방언형으로, ‘진독’[cinduk]이라고도 부른다.

고문헌에는 〈진되〉·〈진뒤〉·〈진되〉로 나타나고 있어,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다. ㄱ[k]이 첨가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蠮 진뒤 비(훈몽자회 상: 12)

○ 草蠮 진되(역어유해 하: 36)

○ 草蠮 진되(물보 주충)

(51) 부구리

“진드기가 성장하여 된 벌레”를 말한다. 문헌어 〈쇠진되〉(물명고 2: 13)에 해당되나 관련성은 적다. 형상을 본떠서 부르는 이름이다.

(52) 서미역

“장차 진드기가 될 아주 작은 벌레”로 〈진드기〉와 관련 있다. ‘셋골리’[se tkolli]라 하기도 한다. 문헌어 〈푸진되〉(물명고 2: 13)에 해당된다.

(53) 진쉬

〈진뎃물〉의 방언형이다.

《물명고》에 보면 “草蛟 푸진되”가 보이니 협주의 내용 “蛟亦作蠮 然草蛟若附牛馬等肌漸大成 牛蛟非有二種”(2: 13)으로 보아 〈진뎃물〉과는 거리가 멀다.

(54) 접주와기

〈집게벌레〉의 방언형으로, ‘접주와기’[cepɕuwagi]·‘접재기’[cəpɕegi]·‘줍재기’[cɔpɕegi]·‘줍주와기’[cɔpɕuwagi]²⁶⁾라 부르기도 하다. 고문헌에는 〈집게벌레〉로 나타난다.

(55) 두미애기

〈풍덩이〉의 방언형으로 ‘두매기’[tumegi]라고도 부른다. 문헌어 〈풍덩이〉

26) 이 ‘줍주와기’에는 “손가락이나 손톱으로 살을 집어뜯거나 비틀기를 잘 하는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이 깊다.

하고는 관련을 찾을 수 없다.

○ 黃蟬 풍덩이(동문유해 하: 42)

○ 黃蜆 풍덩이(물명고 2: 11)

(56) 청두미애기

〈청풍덩이〉의 방언형으로 {청}이 더 들어가 있음이 전항에서 본 ‘두미애기’와 다른 점이다.

(57) 봉댕이

〈콩바구미〉의 방언형으로, ‘궁궐이’[kuggwɛŋi] · ‘웅댕이’[oŋdɛŋi]라고도 부른다. 문헌어 〈콩망으디〉와는 차이가 있다.

○ 蠶 蠶 콩망으디(물명고 2: 9)

이 중 ‘궁궐이’의 {궁}은 穴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58) 떠렁췌

〈투구풍덩이〉의 방언형으로, ‘득랑췌’[toragswɛ] · ‘하늘췌’[hanɪlswɛ]라 부르기도 한다.

(59) 땅강생이

〈하늘밥도둑〉 · 〈땅강아지〉의 방언형이다. ‘하늘강생이’[hanilgaŋi]라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도로리〉 · 〈도로래〉로 나타난다.

○ 蠶 蛄 도로리(물명고 2: 13)

○ 蛄 도로래 고(훈몽자회 상: 12)

‘땅강생이’는 〈땅강아지〉에, ‘하늘강생이’는 〈하늘밥도둑〉에 맞먹는 방언형이다.

(60) 눈에눈이

〈하루살이〉의 방언형으로, ‘눈이눈이’[nuninuni]라 부르기도 한다. 이 이름

은 <눈에놀이>의 문헌어인 <누네노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고문헌에 <하루살이>는 <흐르라기>·<흐르살이>·<흐르사리>로 나타나고, <눈에놀이>는 <누네노리>로 나타난다.

- 蜉 흐르사리 부(훈몽자회 상: 12)
- 蜉 흐르살이(물명고 2: 11)
- 蜉 흐르라기(물명고 2: 11)
- 襍 누네노리 멸(훈몽자회 상: 12)

<하루살이>와 <눈에놀이>를 혼동한 결과다.

이상 곤충 이름을 도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꼭다귀		각다귀	
불한되 불한지	반되 반도 반되 반되불	개동벌레	
게염지 게여미 게미	개야미 개얌이 개아미 개염이 가얌이 가얌 가야미	개미	갸지(전남)
장삼게염지 장삼게여미 장삼게염지 장삼게염지	(날가얌이)		
붉은게염지 노린게염지	불가얌이 불개야미	불개미	
돌게염지 돌게여미 왕게미 왕게여미 왕게염지	스승가얌이 물가얌이	왕개미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거멀 거말 거머리 거마리	저머리	거머리	
거의 거미	거의 검의 거뵈	거미	
땅거미		땅거미	
돛거미	왕거뵈	왕거미	
게우리	검위 거뵈 것위 거의 거뵈	거뵈	게우(평북)
밥주리 밥부리 밤버리 물자리 물썰 잘 한다바리	준자리 준주리 잔주리	잠자리	
고치밥주리 고치밤버리 고치물자리 고치잘 고치오쟁이	(모밀잔주리)	고추잠자리	
장수밥주리 장수물자리 산태		장수잠자리	
벌	벌 버리	벌	
청벌	물벌	꿀벌	
사상벌 새당벌 소왕벌	물벌 바드리벌 바드리 바달이	말벌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굼벵이	굼병이 굼병	굼벵이	
공중이 공쟁이 공쟁이말썽 공형이	긱돌와미 긱돌아미 긱도라미 긱도람이 긱돌왐 긱돌이 긱도리 긱돌아미	귀뚜라미	
늑	니	이	
꺾랑늑	(꺾랑)	가랑니	
쉬	석하	서캐	
잣	주치 주채 주티	나무굼벵이	
나비	나뻬 나뵤 나늑 나뻬 납이	나비	
심방나비	범나늑	범나비	
누에 누웬	누에	누에	
봉앵이 봉앙이 봉애기	등위 등의 등인 등에	등애	
말썽 만썽	뽕도기 뽕독이 뽕도기 뽕쪽이	메뚜기	
물말썽		떠무늑메뚜기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심방말축 심방만축 산전볼라기 산전볼라기 산뒤말축 산뒤말축	방하아비 방하아잡이	방아깨비	
재열 자리 젤 재	미얌이 미야미 미얌 미얌이 마얌이 므얌이	매미	
왕재열 왕자리 왕잘 왕재	말마얌이	말매미	
풋재열			
모기	모괴 모괴 목의 모기	모기	
멜위		머루	멀귀(함북)
벼룩	벼룩	벼룩	
빈데 벅사리	빈대	빈대	
소낭버랭이 소낭베랭이 송충베랭이		송충이	
푸리	푸리 풀	파리	포리(전북)
쉬푸리	쉬푸리 (프른푸리)	쉬파리	
똥푸리	똥의푸리	똥파리	
개푸리	개푸리	개파리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구대기	귀덕이 귀더기 귀덜이	구더기	
췌파리		쇠파리	
지냉이 주냉이	진에 진의 지네	지네	
황지냉이 황주냉이		왕지네	
쟁이 증이 쟁이	쥬 쥬며느리 쥬며누리	쥬	
지렁이	디룡이 디룡 디룡이 지룡이	지렁이	
진돉	진되 진뒤 진피	진드기	
부구리	쇠진되		
서미역	푸진되		
진쉬		진덧물	
접주와기 췌주와기 접재기 췌재기 췌주와기		집게벌레	
두미애기	퐁덩이	퐁덩이	
청두미애기		청퐁덩이	
봉덩이	콩망으디	콩바구미	
떠렁췌 드랑췌 하늘췌		투구퐁덩이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땅강생이 하늘강생이	도로리 도로래	땅강아지 하늘밥도둑	
눈에눈이 눈이눈이	흐르라기 흐르살이 흐르사리 누네노리	하루살이 눈에눈이	

5. 爬蟲 · 兩棲

파충 · 양서류의 대표는 <뱀>과 <개구리>이다.

(1) 뱀

<뱀>의 방언형이다. ‘배엄’[pejəm] · ‘베미’[pemi]라 부르기도 하고, 금기시하여 ‘진 것’이라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브얌> · <브얌> · <브얌> · <빅얌> · <바얌>으로 나타나,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다.

- 長虫 브얌(동문유해 하: 42)
- 蟒은 큰 브아미니(법화경언해 2: 116)
- 蛇 빅얌 샤(훈몽자회 상: 11)
- 부러 독혼 벌어지며 비어므로 때 사르물 물어 죽계 혼 차는 목 버히고
(경민편 18) *

(2) 독다귀

<도마뱀>의 방언형으로, ‘독다귀’[toktagwi] · ‘독다구리’[toktaguri] · ‘장쿨래비’[caŋkʰullebi] · ‘장칼래비’[caŋkʰallebi] · ‘장쿨래비’[caŋkʰellebi]라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도마바얌> · <도마브얌> · <도마빅얌> · <도마빅얌>로 나타난다. 문헌어와 상이하게 불려지고 있다.

- 蠺蜒 도마바얌(물명고 2: 2)
- 長蛇子 도마빅얌(동문유해 하: 42)
- 蛇師 도마빅얌(물보 주충)

○ 蠟 도마뱀 영(훈몽자회 상: 12)

어두움에 따라 ㄷ[t]계와 ㅈ[c]계로 나누어져 있다. ㅈ[c]계열의 이름들은 도마뱀의 형상을 본뜬 것 같다. 마치 칼(刀)의 모양이 연상되기 때문이다.

金英培의 자료집에는 <장지뱀>·<장실뱀>이 올라있어 {장}의 형태가 보인다(1976: 130).

(3) 물폐기

<살무사>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의 <가티독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折母腹胎生”이란 《훈몽자회》(상: 11)의 설명처럼 성질이 포악하다.

(4) 돛줄레

<울모기>의 방언형이다. ‘돛줄리’[tokculli]·‘돛줄워리’[totculwəri]라 부르기도 한다. 물위로 고개를 쳐들고 날렵하게 기어다닌다. 기어가는 모양을 본뜬 이름이다.

(5) 셋베염

길이가 짧고 누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는 뱀의 일종이다.

(6) 구렁이

<구렁이>의 방언형이다. 문헌어를 반영한 이름이다.

○ 鱗 구렁이(사성통해 하: 37)

○ 鱗 굴형이(동문유해 하: 42)

(7) 가개비

<개구리>의 방언형으로, ‘개개비’[kegebi]·‘가개비’[kagebi]·‘굴개비’[kolgebi]라고도 부른다.

고문헌에는 <개고리>·<개굴이>로 나타나고 있다.

○ 蛙 개고리 와(신증유합 상: 15)

○ 개굴이 툴 언디 문궤야(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 1: 12)*

문헌어는 울음소리와 관계가 깊은데 반하여, 방언형은 그렇지 않다.

(8) 두테비

〈두꺼비〉의 방언형으로, ‘두체비’[tuchebi] · ‘두꺼비’[tuk’əbi]라 부르기도 한다. 문헌어 〈두터비〉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 두텁爲蟾蜍(훈민정음 용자례)
- 蟾 두터비(왜어유해 하: 27)

(9) 베붉은개개비

〈무당개구리〉의 방언형이다. ‘베붉은굴개비’ · ‘베붉은가개비’ 또는 ‘하막’이라 부르기도 한다.

문헌어는 발견되지 않으며, 색깔에 치중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하막’이라는 이름이 특이하다.

혹 《물명고》에 나오는 〈논개고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聒子 春間群鳴以聲相抱者 논개고리 ○ 龜與聒子人多不分然龜則背黑腹丹鳴聲閤閤聒子青黃腹白鳴聲遠續不絕”(2: 14)이라는 구절이 보이기 때문이다.

(10) 청가개비

〈청개구리〉의 방언형이다. ‘청굴개비’[cheŋkolgebi] · ‘청개개비’[cheŋikegebi] 또는 ‘풀굴개비’[phulŋolgebi] · ‘풀가개비’라 부르기도 한다. {청-}계열의 이름은 문헌어를 반영한 이름이고, {풀-}계열은 草의 색채를 닮은 개구리라는 뜻으로, 草의 색채=靑의 등식으로 관념한 결과다.

- 蜥蜴 청머구리(물명고 2: 14)

(11) 멍마구리

〈맹꽁이〉의 방언형으로 ‘멍꽁이’[meŋk’oŋi]라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앙마고리〉 · 〈머구리〉 · 〈머굴〉로 나타나고 있어,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 龜 앙마고리(물명고 2: 14)

- 蟹 머구리 경(혼몽자회 상 : 11)

(12) 멘주기

〈올챙이〉의 방언형이다. ‘강베록’[kaŋberok] · ‘쟁베리’[keŋberi]라 부르기도 한다. 함남에서는 〈메구리〉로 나타나고 있다(小倉, 1944).

고문헌에는 〈올창이〉 · 〈올창〉 · 〈올창이〉 · 〈올탕이〉로 나타난다.

- 鰾 올창이 과(혼몽자회 상 : 12)
- 올창爲鰾蛙(혼민정음 용자례)
- 鰾蛙 올창이(물보 수족)
- 鰾蛙 올탕이(물명고 2 : 14)

이상 파충 · 양서류 이름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방 언 형	문 헌 어	표 준 어	비 고
베엄 버엄 베미	브얌 브엄 빅얌 브얌 빅엄	뱀	
독다귀 독다귀 독다구리 장쿨래비 장칼래비 장쿨래비	도마바얌 도마브얌 도마빅얌 도마빅얌	도마뱀	장지뱀 · 장실뱀 (평안도)
물폐기	가티독샤	살무사	
돛줄래		울모기	
셋베엄			
구렁이	구렁이 굴형이	구렁이	
굴개비 개개비 가개비	개굴 개굴이	개구리	
두테비 두체비 두꺼비	두터비	두꺼비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베붉은골개비 베붉은개개비 베붉은가개비 하막	(논개고리)	무당개구리	
청가개비 청골개비 청개개비 풀골개비 풀가개비	청머구리	청개구리	
맹마구리 맹꽁이	양마고리 머구리 머굴	맹꽁이	
멘주기 강베룩 강베리	올창이 올창 올창이 올탕이	올챙이	메구리(함남)

6. 水族

여기서는 물고기·패류 그리고 갑각류 및 기타 바다에 사는 동물 이름이 대상이 된다.

물고기와 패류 그리고 갑각류에는 鄭文基(1986)·權伍吉(1993) 김훈수(1973) 등의 도감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1) 물고기

물고기를 통틀어 ‘바룻궤기’라 한다. ‘궤기’(kwegi)는 <고기>의 방언형이며, ‘바룻’은 문헌어로 나오는 <바룻>(海)에 해당한다.

○ 바룻을 건너실 제(용비어천가 18)

<바룻물>(바닷물)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바룻’은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다.

(1) 갈치

<갈치>(569)²⁷⁾의 방언형이다.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다. 고문헌에는 <갈티>

27) 물고기 이름 다음의 번호는 鄭文基(1986)의 《韓國魚圖譜》의 번호를 말한다.

로 나온다.

- 裙帶魚 갈티(역어유해 하 : 379)

(2) 장의

〈장어〉의 방언형으로 ‘장어’[caŋə]라 부르기도 한다.

문헌어에 〈비암장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장어〉가 반영된 이름이다.

(3) 둔물장의

〈뱀장어〉(227)의 방언형이다. ‘민물장의’(minmulcaŋwi)라 부르기도 한다. 문헌어 〈비암장어〉(《물명고》 2 : 4) · 〈비암당어〉(《훈몽자회》 상 : 11)에 해당된다.

이 물고기의 속성은 주로 잔물이 아닌 단물에서만 살기 때문에 〈단물〉의 방언형 ‘둔물’이 연결되어 이름이 붙여졌다. 崔鶴根(1978)에서는 경남에서 〈맹물장어〉라 부르고 있다.

- 鰻 비암당어 만(《훈몽자회》 상 : 11)
- 鰻 鰻 비암장어(《물명고》 2 : 2)
- 黃鰻 비암장어(《청관물명고》 충어류)

전남 완도에서는 〈미름장애〉로 나타나 ‘민물장의’와 비슷함을 보여주고 있다(金亨奎, 1980 : 292).

속성에 따른 이름이다.

(4) 가제미

〈가자미〉(776)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에는 〈가자미〉 · 〈가자미〉 · 〈가족의〉 · 〈가잠이〉로 나타나고 있어 문헌어를 반영한 이름이다.

- 比目 가잠이(《물명고》 2 : 4)
- 鰻魚 가자미(《물보》 인충)
- 鰻 가족의(《물보》 인충)
- 鏡子魚 가자미(역어유해 하 : 38)

(5) 곰장어

〈먹장어〉(1)의 방언형으로, ‘놀부’(nolbu)라고 부르기도 한다. ‘놀부’는 〈먹장어〉 속성을 빗대어 은유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6) 농어

〈농어〉(319)의 방언형으로, 문헌어를 반영한 이름이다. 고문헌에 〈노어〉·〈롱어〉·〈로어〉·〈농어〉로 나타난다.

- 鱖 노어(물명고 2:3)
- 鱖 농어(재물보 7:30)
- 鱖 로어 로(훈몽자회 상:11)
- 鱖魚 롱어(역어유해 하:37)

(7) 병어

〈병어〉(600)의 방언형이다.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 鰻 병어(물명고 2:3)

(8) 빙어

〈빙어〉(112)의 방언형이다.

(9) 상어

〈상어〉의 방언형으로, ‘상의’[saŋwi]·‘상어’[saŋə]라 부르기도 한다. 문헌어 〈상어〉를 반영한 이름이다.

- 鰲 상엇 사(훈몽자회 상:11)
- 鮫魚 상어(물명고 2:2)

(10) 도랭이

〈괭이상어〉(6)의 방언형으로, ‘도롱이’[toronji]라고도 부른다.

鄭文基(1986)의 《한국어도보》(64)에는 봉암도에서도 〈도롱상어〉라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도랭이’·‘도롱이’라면 빨리 달는 사물(사람)을 두고 일컬어지는 방언인데 (‘도롱이는 〈엽낭게〉), 그러나 〈괭이상어〉는 운동이 활발하지 못한 고기다.

행동과는 거리가 먼 이름이다.

(11) 준다니

〈두릅상어〉(21)의 방언형으로²⁸⁾, ‘개상어’[kəsəŋə]라 부르기도 한다.

원래 ‘준다니’는 “말이 많은 사람” 또는 “듣기 싫은 말”의 뜻으로 쓰이는 토박이 말이다. 말이 많다는 것은 입을 자주 움직이어야 하고, 싫은 소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말을 되뇌이거나 자주함으로써 싫어지는 것이다. 〈두릅상어〉는 물렁뼈로 되어 있어 입안에 넣고 여러번 곱어야 하고 가끔 씹히는 소리까지 동반하기도 하니 ‘준다니’가 연상되어 붙여진 이름이다.

(12) 비근다리

〈복상어〉(19)의 방언형으로, ‘비근더리’[pigindəri]라 부르기도 한다. 흑산도에서도 〈비근상어〉라 부르고 있다(鄭文基, 1986 : 73).

(13) 비깨

〈수염상어〉(10)의 방언형이다.

일본어 kirinoto-buka의 buka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14) 양지기

〈귀상어〉(33)의 방언형으로, ‘뿔상어’[p'ulsəŋə] · ‘무꺼상어’[muk'isəŋə] 또는 ‘귀상어’[kwisəŋə]라 부르기도 한다.

경남에서는 〈양재기〉, 통영은 〈양징이〉, 봉암도에서는 〈양귀징이〉라 부르고 있다(鄭文基, 1986 : 81).

형태상으로 볼 때 눈 바로 뒤에 붙은 지느러미가 마치 양쪽 귀처럼 보여, 형태에 초점을 맞춘 이름이다.

(15) 모도리

〈돌묵상어〉(18)의 방언형이다. ‘막쟁이’[makceŋi] · ‘취모도리’[cwimodori]라 부르기도 한다.

28) 玄平孝(1962·1985)의 자료집에는 ‘비깨’·‘비근다리’로 되어 있다.

(16) 지름상의

〈환도상어〉(17)의 방언형이다.²⁹⁾ 살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7) 저울도리

〈별상어〉(23)의 방언형이다. ‘저울더리’[cauldari]·‘점배기상어’[ca mbegisape]라고도 하는데, 마치 저울의 눈금처럼 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鄭文基에 따르면(1986: 75), 강원도 고지에서는 〈점배기상어〉, 전남에서도 〈점상어〉 또는 〈점배기상어〉로 부르고 있다.

형상에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다.

(18) 죽상어

〈까치상어〉(25)의 방언형이다.

부산·통영·봉암도에서도 〈죽상어〉로 부르고 있다(鄭文基, 1986: 75).

옆구리 가로띠 위에 까만 작은 점들이 흩어져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 수거리

〈전자리상어〉(40)의 방언형이다. ‘젠자리’[cencari]라고도 부르며, ‘정철이’·‘경철이’라고도 한다.³⁰⁾

鄭文基(1986: 86)에는 〈수구리〉·〈수구리 상어〉(평북 정주·전남 여수), 〈전저리〉·〈전자리〉(경남 기장)라 부르고 있다.

‘경철이’, ‘정철이’는 혹 어부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닌가 한다.

(20) 돔바리상어

〈돔발상어〉(34)의 방언형이다.

29) 玄平孝(1962·1985)의 자료집에는 ‘환두상의’로 되어 있다. 전남이나 강원도에서 부르는 〈환두치〉에 가깝다.

30) 玄平孝(1962·1985)의 자료집에는 ‘전철이’로 되어 있다.

(21) 가오리

〈가오리〉의 방언형으로, ‘개오리’[kɛori]라고도 한다. 문헌어를 반영한 이름이다. 전남에서도 〈개오리〉형이 나타나고 있다(李敦柱, 1979 : 崔鶴根, 1962).

- 湘洋魚 가오리(물명고 2 : 43, 역어유해 하 : 37)

(22) 밥주기

〈목탁가오리〉(46)의 방언형으로 ‘보섭상어’[posəbsaŋə]라 부르기도 한다. ‘보섭’은 〈보습〉의 방언형으로, 형상에서 연상된 이름이다.

(23) 제비가오리

〈취가오리〉(61)의 방언형이다. ‘뿔가오리’[p’ulgaori]라고도 한다. ‘제비가오리’는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을 제비에 빗대어 명명한 이름이다. ‘뿔가오리’는 머리지느러미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24) 멜

〈떨치〉(89)의 방언형이다. 고문헌에 〈떨치〉·〈떨티〉로 나타나고 있어, 방언형에서는 접사{-치}가 떨어져 나간 것이 특이하다.

- 鰈魚 떨티(물명고 2 : 5)
- 鰈魚 떨치(재물보 7 : 33)

전남에서도 〈멜〉형이 나타나고 있다(李敦柱, 1979 : 89).

(25) 아에리

〈날매통이〉(125)의 방언형으로, ‘에리’[eri]라 부르기도 한다.

(26) 황애이리

〈황매통이〉(128)의 방언형이다. 색채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27) 메역치

〈쫄종개〉(216)의 방언형으로, ‘멩치’[mɛŋchi]·‘민치’[minchi]라고도 부른다.

바다밑 해조류가 밀생하는 곳에서 살기 때문에 명명된 이름으로 보인다.
‘매역’은 <미역>의 방언형이다.

(28) 숭에

<숭어>(288)의 방언형으로, ‘숭어’[suŋə]라 하기도 한다. 문헌어를 반영한 이름이다. 고문헌에는 <슈어>로 나타난다.

- 鰐 슈어 최(훈몽자회 상: 11)
- 鰐 슈어 (물명고 2: 2)

(29) 물뱀

<곰치>(231)의 방언형이다. 형상에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다.

(30) 돌치

<달고기>(302)의 방언형으로, ‘통두건’[thongdugən]·‘돈치’[tonchi]·‘달치’[talchi] 또는 ‘허풍쟁이’[həphupceŋi]라 부르기도 한다.

옆구리에 커다란 암갈색 무늬가 있고 그 주위에 흰색의 둥근 테가 둘러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다. ‘돌’(月)로 관념하고 있는 것이다.

‘돈치’는 ‘돌’에서 ㄹ[l]이 ㄴ[n]으로 변모되었고, ‘달치’는 표준어의 영향이다. ‘통두건’과 ‘허풍쟁이’는 명명자의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31) 방어

<방어>(472)의 방언형으로, ‘방에’[pəŋe]라 부르기도 한다.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다.

- 魴 방어 방(훈몽자회 상: 11)
- 膾殘魚 방어(재물보 7: 31)

(32) 고줄맹이

<꼬치고기>(307)의 방언형이다. {꽃+울+맹이}로 분석되어 花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색채에 따른 이름이다.

함남에서는 <꼬치고기>, 봉암도에서도 <꼬치>라 부르고 있다(鄭文基, 1986 : 287).

(33) 만새기

<만새기>(576)의 방언형으로, '만배기'〔manbɛgi〕·'전대미'〔cændəmi〕라 부르기도 한다.

경남에서는 <만배기>로, 부산에서는 <만새기>라 부르고 있다(鄭文基, 1986 : 450).

(34) 십이가스

<줄삼치>(585)의 방언형이다.

일본어 suji-gatsuo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35) 멍텅구리

<가다랭이>(591)의 방언형이다. '멍치'〔mɛŋtɕhi〕·'멍어리'〔mɛŋɐri〕라 부르기도 한다. 멍멍자의 관념이 반영된 이름이다.

(36) 소용치

<점다랭이>(592)의 방언형이다. '베기'〔pɛgi〕·'베이기'〔pɛigi〕라고도 부른다. '베기'·'베이기'는 <박이>의 방언형으로, 점이 박혀 있는 데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다.

鄭文基(1986 : 458)에는 <가다랭이>를 '소용치'라 하고 있다.

(37) 멍치

<물치다래>(594)의 방언형으로, '멍청이'〔mɛŋtɕhɛŋi〕라 부르기도 하는데, <가다랭이> 방언형과 같다. 이는 <가다랭이>와 혼동한 데서 연유한다.

(38) 저립

<제방어>(583)의 방언형이다. '제립'〔cɛrip〕·'가다리'〔kadari〕라 이름하기도 한다.

(39) 고등에

〈고등어〉(578)의 방언형이다.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 古道魚 고등어(물명고 2:4)
- 古道魚 고등어(재물보 7:33)
- 古道魚 고도리(역어유해 하:37)

(40) 가라지

〈가라지〉(463)의 방언형이다. ‘각작고등에’[kakcakkodije]라고도 부른다.

‘각작고등에’의 경우는 형상이 〈고등어〉와 〈전갱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두 물고기의 이름을 연결하고 있다. 각각 별개의 고기가 하나로 통합되고 있음을 본다.

(41) 각재기

〈전갱이〉(468)의 방언형이다.

방패비늘이 각이 져 있기 때문에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다.

(42) 히라스

〈부시리〉(471)의 방언형으로, ‘야드’[jadɪ]라 부르기도 한다.

일본어 Hiramasa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43) 눈벌렁이

〈주걱치〉(436)의 방언형으로, ‘눈탱이’[nunthepi]라 부르기도 한다.

몸에 비하여 눈이 크다. “눈지름은 주둥이 길이의 약 3배가 되는 것”(鄭文基, 1986:366)으로 보아, 이에 연유한 이름이다.

‘눈탱이’는 〈눈두덩〉의 방언형이다.

(44) 복재기

〈줄도화돔〉(373)의 방언형으로, ‘개조기’[kēcogi]·‘복주기’[pokcugi]라 부르기도 한다. ‘개조기’에서 {개-}가 있는 것으로 보면 질이 낮은 고기로 관념하고 명명한 이름이다.

(45) 붉은볼락

〈빨돔〉(364)의 방언형이다. ‘빨돔’(p’uldom)·‘불볼락’(pulbollak)·‘깍다구’(k’aktagu)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산에서도 〈빨돔〉·〈깍다구〉라 부르고 있다(鄭文基, 1986: 323). 혹 주둥이가 위로 향하고 있는 데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 아닌가 한다. ‘불볼락’의 {불}은 火의 뜻으로 〈불다〉와 상관이 깊다. ‘깍다구’의 {깍}은 〈사슴〉을 ‘녹각’이라 할 때 {각} (角)과 같다.

(46) 곤자리

〈금눈돔〉(296)의 방언형이다.

{곤+자리}로 분석되니 {곤}에는 美의 뜻이 있다.

(47) 다금바리

〈자바리〉(339)의 방언형이다(玄平孝의 자료집에는 〈다금바리〉의 방언형임).

(48) 구문쟁이

〈능성어〉(330)의 방언형으로, ‘구문쟁이’(kumugcepi)라 하기도 한다.

{금운+쟁이}로 분석된다면 {금} (厶)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는 정착성 어종이라는 점과, 보통 우럭보다 뒤쪽 콧구멍이 큰 것으로 풀이되어(鄭文基, 1986: 307)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또 하나 가능한 해석은 〈줄〉과 관련해서다. 이 고기는 옆구리에 뚜렷한 줄 7개가 수직으로 그어져 있다. 방언에서 〈줄〉을 ‘금’ 또는 ‘그릇’·‘ㄱ’·‘ㄴ’이라 고 하는데, 후자인 ‘그릇’이 음변하여 ‘구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49) 불바리

〈별우럭〉(331)의 방언형이다. 빛깔이 자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50) 불조기

〈눈불대〉(345)의 방언형이다. 아름다운 홍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유한 이름이다.

(51) 벤자리

〈벤자리〉(404)의 방언형이다.

(52) 돔

〈참돔〉(426)의 방언형으로, ‘도미’[tomi]라 부르기도 한다.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 厚魚 도미(청관물명고 충어류)

(53) 깍돔

〈독돔〉(360)의 방언형이다.³¹⁾

등지느러미가 날카롭게 발달되어 있어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깍’은 〈가장자리〉의 방언형으로 (‘눈각 돌아젖혀’), “가장자리에 있는 등지느러미가 발달한 돔”이란 뜻이 담겨 있다.

(54) 가문돔

〈감성돔〉(424)의 방언형이다. 빛이 회갈색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다.

(55) 구릿

〈흑벙에돔〉³²⁾의 방언형으로, ‘구리치’[kurichi]라 부르기도 한다.

빛깔이 蒼灰黑色인 데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다.

(56) 뱃돔

〈황줄깜정어〉(438)의 방언형이다.

이 고기는 회색 바탕에 황색 세로띠가 여러 개 나 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색깔이 회색 또는 황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57) 흰조기

31) 玄平孝(1962·1985)의 자료집에는 ‘닥돔’·‘독돔’으로 되어 있다.

32) 李定宰(1986) 등의 조사에는 〈흑벙에돔〉으로 되어 있는데 흑 〈벙에돔〉(439)이 아닌가 한다.

〈보구치〉(409)의 방언형으로, ‘백조기’[pekcoɡi]라 하기도 한다.
참조기와 비슷하고 몸 빛깔이 백색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58) 노린조기

〈참조기〉(413)의 방언형으로, ‘참조기’[chamcoɡi]라 부르기도 한다. 〈참조기〉의 문헌어가 《물명고》(2:3)의 〈황석수어〉(黃石首魚)이니, 黃의 뜻을 취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서해안에서도 〈노랑조기〉·〈누렁조기〉라 하기도 한다(鄭文基, 1986: 351).

(59) 갯돔

〈돌돔〉(447)의 방언형으로, ‘물돛’[multhot]이라 하기도 한다.³³⁾ 연안성 磯魚로 {갯}이 연결되어 부르는 이름이다.

‘물돛’은 〈군소〉를 말하기도 한다.

(60) 논쟁이

〈아홉동가리〉(452)의 방언형이다.³⁴⁾

{논+쟁이}로 분석되니 {논}은 分의 의미가 들어 있다. 〈나누다〉의 방언형이 ‘논누다’·‘늑노다’이니 分의 뜻이 확인된다.

(61) 모살치

〈보리멸〉(377)의 방언형으로 ‘생치’[seŋchi]라 부르기도 한다.

〈모래〉의 방언형이 ‘모살’이니, 〈모래〉에서 사는 고기라는 뜻이 들어있다.

‘생치’라는 이름은, 이 고기가 지닌 투명함에서 연유하고 있다. 투명하기 때문에 몸속까지 살필 수 있어 살아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마산에서도 〈모래문저리〉라 부르고 있다(鄭文基, 1986: 330).

(62) 오토미

〈옥돔〉(380)의 방언형으로, ‘옥돔’[oktom]·‘생선’[sepsən]·‘솔라니’

33) 玄平孝(1962·1985)의 자료집에는 ‘돌돔’으로 되어 있다.

34) 玄平孝(1962·1985)의 자료집에는 ‘아홉도막’으로 되어 있다.

[sollani] · ‘술래기’[sollegi]라 부르기도 한다.

‘생선’은 바닷고기를 대표하는 이름으로서의 명명이고, ‘오토미’는 {옥+돔+이}로 분석 가능하다.

‘술라니’ · ‘술래기’는 주로 산남(남제주군) 지방에서 불리는 이름이다.

(63) 망치

〈망상어〉(493)의 방언형으로, ‘망생이’[majseŋi]라고도 한다.

흑산도에서도 〈망치어〉라 부르고 있다(鄭文基, 1986 : 398).

(64) 자리

〈자리돔〉(496)의 방언형이다. ‘자돔’[cadom]이라 부르기도 한다.

〈돔〉과에 속하지만 가장 작은 돔에 속한다. {자-}에는 小의 뜻이 들어있다.

(65) 몰코쟁이

〈호박돔〉(504)의 방언형이다.

주둥이가 급히 경사지고 앞끝은 둔한 데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다.

‘몰코쟁이’[molkhoeŋi]는 {몰+코쟁이}로 분석되니 그 형상과도 들어맞는다.

(66) 웅이

〈흑돔〉(506)의 방언형이다.³⁵⁾ 통영에서는 〈앵이〉라고도 한다(鄭文基, 1986 : 409). 머리 부분에 있는 흑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름이다.

(67) 맥짚다리

〈어렁놀래기〉(513)의 방언형으로, ‘맥베’[mekpe] · ‘맥씨’[meks'i]라 부르기도 한다.

{맥짚+다리}로 분석이 되는데, “기운이 떨어진”이란 뜻이 {맥짚}에 들어있다. 입질은 아주 활발하고 힘찬데 낚시에 걸리면 이내 축 늘어져버리는 습성이 있는 고기다. 속성에 따른 이름이다.

35) 玄平孝(1962·1985)의 자료집에는 ‘마깨웁이’, ‘조술웁이’로 되어 있다.

(68) 술맹이

〈용치놀래기〉(511)의 방언형으로, ‘청술맹이’[chəŋsulmeŋi] · ‘실어랭이’[siləreŋi]라 하기도 한다.

봉암도에서 〈용치놀래기〉의 암놈을 〈수맹이〉라 부르기도 한다(鄭文基, 1986 : 411).

‘실어랭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줄이 나 있기 때문에 연유한 이름으로 보인다.

(69) 어랭이

〈황놀래기〉(508)의 방언형으로, ‘돛어랭이’[totəreŋi]라 하기도 한다.

몸 빛깔은 회청 적황색 바탕에 옆구리 등쪽으로 좁은 흑색 세로띠가 있다. {돛+어랭이}로 분석되는데, {돛-}에 흑색이 뜻이 들어있다.

(70) 코생이³⁶⁾

〈놀래기〉(510)의 방언형이다.

약은 사람을 빗대어 ‘코생이’[khosəŋi]라고 하기도 한다.

(71) 바당객주리

〈퀴돔〉(492)의 방언형으로, ‘콧객주리’[kʰɔpkeəkuri] · ‘도방베기’[tobəŋbegi]라 부르기도 한다.

‘콧객주리’의 {콧}은 〈툼〉의 방언형으로 (‘손콧·발콧’), 날카롭다는 뜻이 있다.

(72) 객주리

〈퀴치〉(825)의 방언형으로, ‘객주리’[keəkuri] · ‘납짝객주리’[napc’akk’ekuri]라 하기도 한다.

형상을 중시하고 있는 이름이다.

(73) 따찌

36) 玄平孝(1962·1985)의 자료집에는 〈용치놀래기〉의 방언형으로 되어 있다.

〈독가시치〉(567)의 방언형으로, ‘따치’[t’achi] · ‘다찌’[tac’i]라 하기도 한다.

독 있는 가시가 있어(등지느러미) 사람을 쏘기도 한다.

(74) 보들락

〈그물베도라치〉(538)의 방언형으로, ‘보들래기’[podhilegi]라 하기도 한다. ‘보들락거리느’ 형상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75) 덩불치

〈별망둑〉(631)의 방언형으로, ‘덤부지’[təmbuci] · ‘덤벌치’[təmbəlchi]라 부르기도 한다.

오물이 섞여 있는 곳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습성(鄭文基, 1986 : 484)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76) 불락

〈불락〉(653)의 방언형으로, ‘누르시’[nurisi]라 하기도 한다.

문헌어로는 〈걱정이〉(《물명고》 2 : 3)가 나타나나 방언형과는 상이하다.

(77) 검평우럭

〈쑤뱅이〉(670)의 방언형이다. ‘감팡우럭’[kamphaŋurək] · ‘거평우럭’[kəmpʰəŋurək] · ‘검폭우럭’[kəmpʰugurək]이라고도 부른다. 흑갈색에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다.

(78) 맹내기

〈붉감괭〉(669)의 방언형으로, ‘맹내기우럭’[məŋnɛgiurək]이라고도 한다.

(79) 방장우럭

〈우럭불락〉(662)의 방언형이다. ‘우럭’[urək]이라고도 한다. 문헌어 〈우러기〉(《물명고》 2 : 3)가 아닌가 한다.

(80) 쏘치우럭

〈점감괘〉(675)의 방언형으로, ‘가시우럭’[kasiurək]이라고도 한다. 등지느러미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연유한 이름이다.

(81) 쏘치

〈쭈미기〉(684)의 방언형으로, ‘솔치’[solchi] · ‘쏘치’[s’ochi] · ‘손치’[sonchi]라 부르기도 한다.

여수에서 〈썩미〉라 한다(鄭文基, 1986 : 515).

여러 개의 독가시를 가지고 있어 가끔 사람을 쏘기도 한다. 습성에 따른 이름이다.

(82) 줄락

〈노래미〉(696)의 방언형으로, ‘조우럭’[courək] · ‘줄’[col]이라 부르기도 한다.

(83) 장태

〈양태〉(698)의 방언형이다. 전남에서도 〈장태〉라 한다(鄭文基, 1986 : 524). 형상에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으로 보인다.

(84) 서대

〈혹대기〉(811)의 방언형으로, ‘서당어’[sədangə] · ‘셋’[sət]이라 하기도 한다.

《물명고》(2:4) 중 比目(가자미)을 설명하는 가운데 “舌魚 서대”가 보인다. 서해안에서는 〈서대기〉, 남해안에서도 〈서대〉라 부르고 있다(鄭文基, 1986 : 582).

(85) 넙치

〈넙치〉(765)의 방언형이다.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 廣魚 넙치(물명고 2:4)

(86) 복쟁이

〈복어〉(838)의 방언형이다. 문헌어 〈복〉에 접사 {-쟁이}가 더 연결되어 있

다.

- 河鮠 북(물명고 2: 4)
- 河豚漁 북(물보 인층)
- 河豚 북(청관물명고 충어류)
- 鮠 북 하(훈몽자회 상: 11)

경남·전남에서도 <복쟁이>라 한다(鄭文基, 1986: 603).

(87) 심방북

<까치북>(840)의 방언형으로, ‘알랑북’[allanbok]·‘칠북’[chilbok]이라 하기도 한다.

‘심방’(무당)처럼 나대기를 좋아하는 데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다.

<알랑거리다>에서 ‘알랑북’이, ‘심방’은 북을 <치기> 때문에 ‘칠북’이라 한다.

(88) 광복쟁이

<거북북>(833)의 방언형으로, ‘광북’[k'wanbok]·‘칠갑복쟁이’[cha lgappokcepi]라 부르기도 한다.

몸에 龜甲狀의 浮紋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광’은 <뼈>(骨)의 방언형이다.

(89) 춤북

<자지북>(836)의 방언형이다. 眞의 뜻이 있어 “진짜 북”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90) 마굴치

<아귀>(858)의 방언형으로 ‘아굴치’[agulchi]·‘물뽕’[mulk'wəŋ]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상 물고기 이름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방 언 형	문 헌 어	표 준 어	비 고
바릇꺾기	(바룻)	물고기	
갈치	갈티	갈치	
장의	(장어)	장어	
돈물장의 민물장의	빚얹장어 빚얹당어 빚얹장어	뱀장어	미름장애(전남) 맹물장어(경남)
가제미	가자미 가자미 가족의 가잠이	가자미	
곰장어 놀부		먹장어	
농어	노어 농어 통어 로어	농어	
벙어		빙어	
빙어	병어	병어	
상에 상에 상어	상어 상어	상어	
도랭이 도롱이		괭이상어	도롱상어(봉암도)
준다니 개상어	두툽상어		
비근다리 비근더리		복상어	비근상어(흑산도)
비꺾		수염상어	Kirinoto-buka(目)
양지기 꺾상어 무꺼상어 귀상어		귀상어	양제기(경남) 양정어(통영) 양귀정어(봉암도)
모도리 막쟁이 취모도리		돌묵상어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지름상의		환도상어	
저울도리 저울더리 점배기상어		별상어	점배기상어 (강원·전남)
죽상어		까치상어	죽상어 (부산·봉암도)
수거리 젠자리 정철이 경철이		전자리상어	수구리(평북·전남) 전자리(경남)
돔바리상의		돔발상어	
가오리 개오리	가오리	가오리	개오리(전남)
밤주기 보섭상어		목탁가오리	
제비가오리 빨가오리		쥐가오리	
멜	멀티 멀치	멀치	멜(전남)
아에리 에리		날매통이	
황애이리		황매통이	
메역치 냉치 민치		솔종개	
숭애 숭어	슈어	숭어	
물뱀		곰치	
돌치 통두건 돈치 달치 허풍쟁이		달고기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방어 방에	방어	방어	
고줄맹이		꼬치고기	꼬치 (봉암도)
만새기 만배기 전대미		만새기	만새기 (부산)
십이가스		줄삼치	Suji-gatsuo (日)
멍텅구리 멍치 멍어리		가다랭이	
소용치 베기 베이기		점다랭이	
멍치 멍청이		물치다래	
저립 제립 가다리		재방어	
고등에	고등어 (고도리)	고등어	
가라지 각작고등에		가라지	
각재기		전갱이	
히라스 야드		부시리	Hiramasa (日)
눈벌렁이 눈탱이		주걱치	
복재기 복주기 개조기		줄도화돔	
붉은불락 빨돔 불불락 각다구		빨돔	빨돔 · 각다구 (부산)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곤자리		금눈돔	
다금바리		자바리	
구문쟁이 구몽쟁이		능성어	
붉바리		별우럭	
붉조기		눈볼대	
벤자리		벤자리	
돔 도미	도미	참돔	
깍놈		독돔	
가문돔		감성돔	
구릿 구리치		흑병에돔	
뱃돔		황줄감정어	
흰조기 백조기		보구치	
노린조기 참조기	황석수어	참조기	
갯돔		돌돔	
논쟁이		아홉동가리	
모살치 생치		보리멸	모래문저리(마산)
오토미 옥돔 생선 술라니 술래기		옥돔	
망치 망생이		망상어	망치어(흑산도)
자리 자돔		자리돔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물코쟁이		호박돔	
행이		흑돔	앵어(통영)
맥전다리 맥씨 맥배		어랭놀래기	
술맹이 청술맹이 실어랭이		용치놀래기	수맹이(봉암도)
어랭이 돛어랭이		황놀래기	
코쟁이		놀래기	
바당꺀주리 꺀꺀주리 도방배기		꺀놈	
꺀주리 꺀꺀주리 납꺀꺀주리		꺀치	
따꺀 따치 다꺀		독가시치	
보들락 보들래기		그물배도라치	
덤불치 덤부지 덤벌치		별망둑	
불락 누르시	적정어	불락	
검평우럭 감평우럭 저평우럭 검쪽우럭		솜뱅이	
맹내기 맹내기우럭		붉감팽	
방장우럭 우럭	(우리기)	우럭불락	
쫄치우럭 가시우럭		점감팽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썰치 술치 쏘치 손치		쭈미기	썰미(여수)
줄락 조우럭 줄		노래미	
장태		양태	장태(전남)
서대 서당어 섯	서대	흑대기	서대기(서해안) 서대(남해안)
넙치	넙티	넙치	
복쟁이	복	복어	
심방복 알랑복 칠복		까치복	
괭복쟁이 괭복 칠갑복쟁이		거복복	
참복		자지복	
마굴치 아굴치 물평		아귀	

2) 조개

여기서 <조개>라 함은 權伍吉 등의 《원색한국패류도감》(1993)에 수록된 水族 중 貝類 이름들이다. 그러니 조개류는 물론 연체동물인 달팽이·오징어·낙지 등도 포함된다.

(1) 군벗

<줄군부>(106-1)³⁷⁾의 방언형이다. ‘굼벗’(kumbe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37) 표준어 이름은 權伍吉·朴甲萬·李俊相의 《原色韓國貝類圖鑑》(1993)에 따르고, 이름 다음의 번호는 도감의 번호를 말한다.

다음 항의 <군부>와 비교할 때 {줄}이 더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군부>의 방언 발음형으로 ㅅ[s]이 첨가되어 쓰임이 특이하다.

(2) 췌군벗

<군부>(104-1)의 방언형이다. ‘췌군벗’(s’wegumbət)이라고도 하는데, 국어 사전에는 <딱지조개>³⁸⁾로 나와 있다. 전항에서 본 <줄군부>보다 겹질이 옆으로 더 길게 발달돼 있다.

‘췌군벗’의 {췌}는 <쇠>의 방언형이다. <딱지>가 쇠처럼 단단한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3) 물군벗

<털군부>(107-1)의 방언형으로, ‘고냉이군벗’(koneŋigunbət)·‘하르비군벗’(haribigunbət)·‘할미군벗’(halmigunbət)이라고도 한다.

{하르비}·{할미}가 들어가 있어, 형상에서 연상된 이름으로 보인다.

(4) 곰배군벗

<벌레군부>(109-1)의 방언형으로, ‘하르비군벗’(haribigunbət)이라고도 한다. 형상이 마치 ‘곰배’처럼 생긴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곰배’는 <곰방메>의 방언형이다. ‘하르비군벗’이라는 이름은 전항에서 본 <털군부>와 혼동한 결과다.

(5) 마타솔

<맷사리>(35-8)의 방언형으로 ‘마타살’(matasal)이라고도 한다.

(6) 매옹이

<두드럭고동>(35-11)³⁹⁾의 방언형으로, ‘매흥이’(mehogi)·‘매훈이’(mehuni)라고도 한다. 그 맛이 맷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매+옹이}로 분석이 되는데, {매-}는 <맷다>의 어간이 된다.

(7) 먹보말⁴⁰⁾

38) 玄平孝(1962·1985)의 자료집에는 ‘굼벗’으로만 나온다.

39) 玄平孝(1962·1985)의 자료집에는 ‘수두리’로 되어 있다.

40) 玄平孝(1962·1985)의 자료집에는 <쿤구실우렁이>의 방언형으로 되어 있다.

〈구멍밤고동〉(5-16)의 방언형이다.

‘먹보말’[məkpomal]의 {먹}은 黑의 뜻이고(말이름 중 ‘먹가라’ 참조), {보말}은 〈고동〉의 방언형이다. 색채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8) 문다드리

〈눈알고동〉(9-4)의 방언형으로 ‘문다닥지’[mundadakci]·‘돌보말’[tolbomol]이라고도 한다.

〈눈알고동〉의 형상에서 연유한 이름들이다. 겉껍질이 매우 단단하여 ‘돌보말’이라 부르고, 殼口에 있는 딱지 모양의 것이 매우 단단하여 한번 들어가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다닥지’라 부르고 있다.

이 어휘는 {문+다+닥지}로 분석되는데, {다}는 閉의 뜻이다. 곧 “문(門)닫다”의 의미가 있다.

(9) 웬보말

〈방석고동〉(5-8)의 방언형으로, ‘웬보말’[wenbomal]이라고도 한다.⁴¹⁾

(10) ㄴ메기⁴²⁾

〈남방울타리고동〉(5-25)의 방언형이다. 다음항 〈개울타리고동〉보다 규모가 작다. {춤}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고 있다.

(11) 춤ㄴ메기

〈개울타리고동〉(5-24)의 방언형으로, 〈남방울타리고동〉보다 크기가 크기에 {춤}이 덧붙여졌다.

(12) 실ㄴ메기

〈갯고동〉(26-6)의 방언형으로, 그 형상이 가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13) 심방ㄴ메기

〈작시고동〉(5-22)의 방언형으로, 사람들은 먹기를 금기시하는 고동이다. 금기시하는 데서 ‘심방’이 붙은 이름이 아닐까 한다.

41) 玄平孝(1962·1985)의 자료집에는 〈대롱고동〉의 방언형으로 되어 있다.

42) 玄平孝(1962·1985)에는 〈잼물고동〉의 방언형으로 되어 있다. 달리 ‘곰생이·곰세기·ㄴ메기보말’이라 한다고 되어 있다.

(14) 굴젓

〈큰뱀고둥〉(19-1)의 방언형으로 ‘굴’[kul] · ‘조개굴’[cogegul] · ‘뱅이굴’[pepigul] · ‘새굴’[segul] · ‘뱀굴’[pemgul]로 불리워지기도 한다.⁴³⁾

〈굴〉(石花)로 관념하고 명명된 이름이다. ‘새굴’은 〈사리다〉와 관련이 있고, ‘뱀굴’은 길이에 따른 이름이다.

(15) 코토대기

〈바퀴고둥〉(5-21)의 방언형이다. {코+토+대기}로 분석된다. {코}는 入口의 뜻을, {토}는 〈타지다〉의 변이형태의 어간, {-대기}는 접사가 된다. 그러니 “입구가 떨어져 나간”이란 뜻이 된다. 형상에 따른 이름이다.

(16) 전복

〈전복〉(1-1)의 방언형이다. 문헌어로는 〈전복〉이 있다.

○ 鰓魚 전복 (물명고 2:8)

(17) 마드래

〈시볼트전복〉(1-3)의 방언형이다. 껍데기에 줄이 그어져 있고 울퉁불퉁한 모습을 하고 있다.

(18) 생복

〈둥근전복〉⁴⁴⁾의 방언형으로, ‘숫천복’[sutchanbok]이라고도 한다. 살이 많은 전복이다. 한자어 生鰓에서 온 이름이다. 경남에서도 〈생복〉이라 한다(崔鰓根, 1978).

(19) 압전복

〈말전복〉(1-2)의 방언형이다. 〈전복〉의 성을 구분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20) 오분재기

〈오분자기〉(1-4)의 방언형이다. 국어사전에는 〈떡조개〉로 올라있다.

43) 玄平孝(1962·1985)의 자료집에는 〈굴조개〉의 방언형으로 되어 있다.

44) 權梧吉 등의 폐류도감에는 둥근전복은 올라 있지 않다.

(21) 쟁배름

〈애기삿갓조개〉(3-1)의 방언형으로 ‘비말’[pimal]·‘벨망’[pɛlmaŋ]·‘백쟁배름’[pɛkceŋberim]·‘흰배말’[hwinbɛmal]이라고도 부른다. 쟁반 모습을 하고 있는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백쟁배름’의 {백}은 한자어 白이고, 고유화한 이름이 ‘흰배말’이다.

(22) 개쟁배름

〈배무래기〉(4-7)의 방언형으로, ‘생이벨망’[seŋibɛlmaŋ]·‘개배말’[kebɛmal]이라고도 부른다.

접두사 {개-}가 연결되어 있어 〈애기삿갓조개〉보다 크기가 작음을 알 수 있다. {생이-}도 小의 뜻이다.

(23) 종배말

〈애기두드럭배말〉(4-3)의 방언형으로, ‘개쟁배름’[keceŋberim]이라고도 부른다. 종(鍾)과 관련이 깊고, {개-}가 연결되어 있어 小의 뜻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24) 오갈

〈두드럭배말〉(4-2)의 방언형으로, ‘배말’[pɛmal]이라고도 한다.

(25) 벨망

〈큰배말〉(3-3)의 방언형으론, ‘비말’[pimal]·‘춤배말’[chambɛmal]·‘쟁배름’[ceŋberim]이라고도 부른다. 〈애기삿갓조개〉와 혼동한 결과로 생긴 이름이다.

(26) 절방귀

〈제주개오지〉(30-5)의 방언형으로, ‘고냉이이빨’[konɛŋip'al]이라고도 부른다. ‘고냉이이빨’은 형상에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다. {절}에는 斷의 뜻이 들어 있다.

(27) 구쟁이

〈소라〉(9-1)의 방언형이다. ‘구쟁기’[kuceŋgi]라고도 한다. 문헌어에 〈소라〉가 보이는데, 문헌어하고는 상이하다.

○ 海螺 소라 (물명고 2:8)

흑산도에서는 <꾸주기>·<꾸저기>로 나타나고 있어 이 방언형과 비슷함을 볼 수 있다(李敦柱, 1979:123).

(28) 코쿠쟁이

“소라 중에서 작은 것”을 말한다. {조-}에 小의 뜻이 있다.

(29) 수두리

<팽이고둥>(5-19)의 방언형이다. 한 곳에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많다>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많다>의 방언형은 ‘수두룩ᄃᆞ다’이다.

(30) 가매기보말

<말고둥>(10-1)의 방언형으로, 그 뚜껑의 모양에서 연유하고 있다.

(31) 가마귀부리

<진주담치>(66-6)의 방언형이다. 색채와 모양에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다.

(32) 모살조개

<무명조개>의 방언형이다. <모래>에 사는 습성에 따른 이름이다. 문헌어 <모시조개>에 해당한다.

○ 玄蛤 모시조개 (물명고 2:7)

(33) 돌꺾조개

<말썽조개>의 방언형이다. 문헌어 <십조개>에 해당한다.

○ 馬刀 십조개 (물명고 2:7)

(34) 멍마구리

<오징어>(113-1)의 방언형으로 ‘밑마구리오징에’·‘밑마구리’[mid-maguri]·‘멩마구리오징에’ 또는 ‘오징에’[ocipe]라 부르기도 한다.

○ 烏賊魚 오징어 (물명고 2:4)

○ 黑魚 오죽어 (물보 수족)

(35) 낙지

〈낙지〉(116-1)의 방언형이다. ‘주꾸미’[cuk’umi]라고도 한다. 문헌어를 반영한 이름이다.

- 小八梢 낙디 (물명고 2:4)
- 小梢魚 낙디 (물보 수족)
- 章魚 낙디 (재물보 7:33)

(36) 문게

〈문어〉(116-3)의 방언형으로, ‘물꾸럭’[mulk’urək]·‘문게’[muŋge]·‘무꾸럭’[muk’urək]이라고도 한다.

- 小梢魚 문어 (물명고 2:4)

어중에 ㄱ[k]이 첨가되는 것이 특이하다.

(37) 굴맹이

〈군소〉(57-1)의 방언형으로 ‘물뿔’[mulhot]·‘물토새기’[multhosegi]라고도 한다. ‘물뿔’·‘물토새기’는 형상에서 연유한 이름이고, ‘굴맹이’는 {굴(穴)+맹이}로 분석되니, 습성에 따른 이름이다.

(38) 돌뱅이

〈달팽이〉의 방언형으로, ‘돌뱅이’[tolbepi]·‘돌방이’[tolbapi]라 부르기도 한다. 고문헌에는 〈돌광이〉·〈돌파니〉·〈돌판이〉·〈돌광이〉로 나타난다.

- 蝸 돌광이 과(혼몽자회 상: 11)
- 돌파니를 눌러 汁 내야은 짜해 좃돌이면 즉재 듣느니라(取蝸牛捺取汁滴入咬處須叟自差)(구급방 하: 77)
- 蝸 돌판이 와(신증유합 상: 16)
- 蝸牛 돌광이(물보 개충)

어중의 거센소리가 예사소리로 변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헌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함흥에서도 〈달뱅이〉이로 나타나 어중에서의 예사소리를 보여주고 있다(崔鶴根, 1978. 小創, 1944).

(39) 옷벗은 돌팽이

〈민달팽이〉를 말한다. 달팽이 살이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물명고〉에 나오는 蛞蝓가 아닌가 한다. 설명에 따르면 “蛞蝓之無殼在木石間多涎者 집질업슨달팽” (2: 17) 으로 되어 있어, 〈집질업슨달팽〉이와 뜻이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경남에서 〈집없는달팽이〉와 경북의 〈문둥굴팽이〉가 조사되었다(崔鶴根, 1978).

이상 조개 이름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군벗 굼벗		줄군부	
췌군벗 췌굼벗		군부 (딱지조개)	
물군벗 고냉이군벗 하트비군벗 할미군벗		털군부	
곰매군벗		벌레군부	
마타술 마타살		맴사리	
매웅이 매흥이 매훈이		두드럭고둥	
먹보말		구멍밥고둥	
문다드리 문다닥지 돌보말		눈알고둥	
웨보말 웬보말		방석고둥	
꺾메기		남방울타리고둥	
쫄꺾메기		개울타리고둥	
실꺾메기		갯고둥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심방ㄹ매기		각시고동	
굴젓 굴 조개굴 뱅이굴 새굴 뱀굴		큰뱀고동 (굴조개)	
코토대기		바퀴고동	
전복	전복	전복	
마드래		시볼트전복	
생복 숫천복		등근전복	생복(경남)
암전복		말전복	
오분재기		오분자기 (떡조개)	
쟁배른 비말 벨망 백쟁배름 흰배말		애기삿갓조개	
개쟁배름 생이벨망 개배말		배무래기	
중배말 개쟁배름		애기두드럭배말	
오갈 배말		두드럭배말	
벨망 비말 춤배말 쟁배름		큰배말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절방귀 고냉이이빨		제주개오지	
구쟁이 구쟁기	소라	소라	꾸주기 · 꾸저기 (전남)
조꾸쟁이			
수두리		뽕이고등	
가매기보말		말고등	
가마귀부리		진주담치	
모살조개	모시조개	무명조개	
몰콧조개	십조개	말싹조개	
멩마구리 밑마구리오징에 밑마구리 멩마구리오징에 오징에	오징어 오죽어	오징어	
낙지 주꾸미	낙디 낙지	낙지	
문게 물꾸럭 뭉게 무꾸럭	문어	문어	
굴멩이 물툫 물토새기		군소	
돌뱅이 돌뱅이 돌방이	돌팡이 돌파니 돌판니 돌팡이	달팽이	달뱅이 (함흥 · 함남)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웃벗은돌팽이	겹질업슨달팽	민달팽이	집없는달팽이 (경남) 문둥굴팽이 (경북)

3) 갑각 · 기타

여기서는 갑각류인 <게>와 극피 동물인 <설계> · <불가사리>류가 포함된다.

(1) 갯이

<게>의 방언형이다. ‘기’[ki] · ‘경이’[kəŋi] · ‘쟁이’[kəŋi]로 부르기도 한다. 문헌어로는 <계> · <궤>가 나온다.

- 螃 계 방(훈몽자회 상: 10)
- 蟹 계 궤(신증유합 상: 14)
- 蟹 궤(물명고 2: 6)

방언형에 ㅎ[h]이 접미되어 쓰임이 특이하다.

평북에서도 ㅎ[h]이 접미되어 <갱이>(崔鶴根, 1978)로 나타나고 있다. <갱이>는 전남 · 북에도 나타난다(小倉, 1944). <기>형은 전남 · 전북 · 경북 · 경남 · 강원 · 강원 · 충북 · 충남 · 함남 등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1989 · 1990; 李敦柱, 1979; 崔鶴根, 1962 · 1978; 金亨奎, 1980; 河野, 1942).

(2) 꺾갱이

<꽃게>(93)⁴⁵⁾의 방언형이다. ‘놀킹이’[nelkʰɨŋi] · ‘놀캥이’[nelkʰɛŋi]라고도 부른다. 문헌어로 <궤> · <궤>가 나온다.

- 角蟹 궤(물명고 2: 6)
- 海鷄 궤(역어유해 하: 38)

45) 이름 다음의 ()속 번호는 김훈수(1973, 문교부)의 《한국동식물도감》14권: 집게 · 게류의 번호를 말한다.

‘놀킹이’·‘놀깁이’의 {놀}은 生의 뜻이다.

(3) 돌깁이

〈부채계〉(109)를 총칭하는 방언형으로, ‘돌깁이’(tolkhegi)·‘돌깁이’(tolgegi)라고도 부른다. 형상에서 연유한 이름이다.

한번 집게 다리로 물면 놓지 않는 습성 때문에, 질긴 성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을 빗대어 ‘돌깁이’라 말하기도 한다.

(4) 갯깁이

〈털계〉(83)의 방언형이다. ‘터럭깁이’(thækkipi)·‘터럭깁이’(thækgegi)·‘터럭깁이’(thækkipi)·‘털깁이’(thælkipi)라고도 부른다.

몸 전체에 털이 촘촘히 나있고 배면의 털들이 길고 많다. 〈털〉의 방언형은 ‘터럭’이니 이 〈털계〉의 속성을 대변하고 있는 이름이다.

(5) 게들래기

〈집계〉(46)를 총칭하는 방언형으로, ‘게드래기’(kedirægi)·‘거들래기’(kædillægi)·‘기드래기’(kidirægi)라 부르기도 한다.

언중들은 이 〈집계〉를 남의 집에 들어간 〈계〉라고 관념하고 있어, ‘기어들다’와 관련이 깊어 보인다. “엎드려 안으로 들어가다”를 ‘기어들다’라 하는데, 의미상으로도 잘 통하고 있다.

(6) 지름깁이

〈바위계〉(151)의 방언형이다. 등의 무늬에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다.

(7) 춤깁이

〈참계〉(154)의 방언형으로, ‘춤깁이’(chemgegi)·‘춤깁이’(chemgipi)이라고도 한다. {춤-}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두에 {똥-}이 연결된 ‘똥깁이’ 하고는 반대의 개념이 된다.

46) 국어사전에는 〈소라계〉라 되어 있다.

(8) 풋깅이

‘풋깅이[photkigi]’ · ‘풋깅이[photkegi]’라고도 부르는데, “아주 작은 게”를 말한다.

어두의 {풋-} 때문에 小의 뜻이 들어있다(곤충의 ‘풋재열’참조).

(9) 심방깅이

〈두점박이민꽃게〉(97)의 방언형으로, ‘심방깅이[simbaggigi]’ · ‘도롱깅이[torongigi]’ · ‘심방궁이[simbaggigi]’라고도 한다. 게의 속성에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다. ‘도롱깅이’이는 껍질 행동이 잘 드러나 있다.

(10) 똥깅이

‘똥깅이[t’onggegi]’라고도 부르는데, “먹을 수 없고 딱지가 물렁물렁한 게”를 말한다. 어두의 {똥-}으로 해서 “좋지 않은” · “먹을 수 없는”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11) 냇깅이

“냇물에 사는 게”로, 〈내〉(川)와 〈게〉의 방언형 ‘깅이’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름이다.

(12) 도롱깅이

〈엽낭게〉의 방언형으로, ‘도롱게[torongge]’라 부르기도 한다. 걷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13) 구살

〈섬게〉의 방언형으로, ‘퀴[khwi]’ · ‘쿠살[khusal]’이라 부르기도 한다. 표면에 길게 돌은 가시에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다.

(14) 슝

〈말똥섬게〉의 방언형이다. 전항에서 본 ‘구살’과는 달리 가시가 매우 짧다.

형상에서 연유하고 있는 이름이다.

(15) 고냉이방석

〈불가사리〉의 방언형으로, ‘가마귀뭉게[kamagwimugge]’·‘갈라짓뭉게[kallacitmugge]’·‘물방석[mulbapsək]’이라고도 한다.

〈문어〉의 방언형 ‘뭉게’가 연결된 것은 형상의 비슷함에서 연유한 것이다. 〈방석〉은 〈불가사리〉가 돌 따위에 착 달라붙은 속성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16) 삼천발

〈수세미불가사리〉의 방언형이다. ‘독발[togbal]’·‘만발[manbal]’이라 부르기도 한다.

‘독발’은 〈닭발〉의 방언형으로, 그 형상에서 비롯하고 있으며, ‘만발’은 숫자에서 연유한다.

특히 함경북도에서 〈불가사리〉를 〈삼바리〉라 부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金泰均, 1986: 270). 경남의 〈쌍바리〉라는 방언형도 보인다(崔鶴根, 1978: 962).

(17) 물문주리

〈말미잘〉의 방언형으로, ‘물문조리[mulmoncori]’·‘물미주리[mel-micuri]’·‘물민주리[mulmincure]’라 부르기도 한다.

(18) 미

〈해삼〉의 방언형이다. ‘해삼[hesəm]’이라고 한다. 고문헌에는 〈피〉가 보인다.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는 이름이다.

○ 海參 피(제증신편 8: 20)

(19) 물이실

〈해파리〉의 방언형으로, ‘물어움[muləim]’·‘물이실맹이[mulisilmeji]’·‘물우설[mulusil]’·‘미우설[miusəl]’이라고도 부른다. 고문헌에는 〈희파리〉·〈희포리〉로 나타난다.

○ 水母 히파리(물명고 2:5)

○ 泥 히포리(물보 수족)

이상 갑각류 이름들을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깁이 기 깁이 깁이	게 궤	게	기(전남·전북· 경남·경북·강원· 충북·충남·함남) 깁이(전남·북)
걱깁이 논깁이 논깁이	꽃게 꽃궤	꽃게	
돌깁이 돌깁이 돌깁이		부채게	
갯깁이 터럭깁이 터럭깁이 터럭깁이 털깁이		털게	
게들래기 게드래기 거들래기 거드래기		집게	
저름깁이		바위게	
참깁이 참깁이 참깁이		참게	
팟깁이			
심방깁이 심방깁이 심방깁이 도롱깁이		두점박인민꽃게	

방언형	문헌어	표준어	비고
뚱깁이			
넛깁이			
도롱깁이 도롱게		엽낭게	
꾸살 퀴 쿠살		섬게	
습		말뚝섬게	
고냉이방석 가마귀뚱게 갈라짓뚱게 물방석		불가사리	
삼천발 독발 만발		수세미불가사리	삼바리(함북) 쌍바리(경남)
물문주리 물몬조리 물미주리 물민주리		말미잘	
미 해습	미 의	해삼	
물이실 물어읍 물이실맹이 물이술 물우술 미우설	히프리 히파리	해파리	

이상에서 살펴본 동물 이름 가운데 유독 마소를 구별하여 부르는 이름이 유별나게도 많다. 小倉進平(1944: 294~295)의 자료집에도 말 이름이 13개나 올라 있는데, ‘적대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제주에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바로 제주도가 처한 자연적 조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라산이 1950m로,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고 그 경사도도 완만하다. 산이 높다든 것은 결국 골이 깊다는 말과도 마찬가지다. 이 골이 건천으로 자연적인 읍면의 경계가 되고 나아가 목장에 비유하면 울타리가 되는 셈이다. 또 산이 완만하게 뻗어 있으니 마소의 먹이인 풀이 봄에는 해안지대에서 중산간지역으로 올라가면서 순차적으로 발아하고, 겨울이 가까워지면 풀이 산에서 해안쪽으로 시들게 되어있다. 마소의 이동은 이 풀이 성쇠에 따라 봄에는 산으로 오르고, 겨울이 되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결과를 낳았다. 사람이 돌보지 않아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 그냥 놔두어도 되게 되어, 결국 마소의 사육환경은 從年放牧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었다. 제주도 전체가 천연적인 방목장이 되어, 《元史》에도 제주 목장이 서두에 올라있을 정도로 원나라에서도 중요시하였다 ('마정'에 대해서는 高昌錫의 1985년 논문 참조).

이런 환경이고 보니 방목 사회에서도 마소를 식별하는 기준이 여럿 필요하게 마련이다. 그것은 빛깔이나 모양에 따른 자연적인 식별 기준을 물론, <낙인>이라는 인공적인 표식수단까지 동원되어 그 식별을 쉽게 하였다.

이러한 목축 환경이 자연적 기준인 색채이나 모양에 따른 어휘를 풍부하게 한 한 요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 색채나 모양에 따른 풍부한 동물 이름들이 어떤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Ⅲ. 濟州島方言의 動物 이름 類型

우리는 Ⅱ장에서 언증들에 의해 사용되는 동물 이름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다. 이제 이를 토대로 하여 이름의 유형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는 이름짓기의 유형, 계통별 유형 그리고 접사별 유형이 논의 내용이 된다.

1. 命名方法의 類型

이 이름짓기의 유형은 곧 명명법을 말한다.

어떤 구상적인 사물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객관적인 내용도 포함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명명자의 주관에 의한 이름 짓기도 이루어진다.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대상은 저절로 명명자의 주위에 있는 자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을 때 많은 언증들이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빨리 친숙해지기도 할 것이며, 확실한 식별 능력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름 짓기의 유형은 대개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지하고 있다.⁴⁷⁾ 즉 色·形態·慣習·機能·成稚·類推 등이 그것이다.

(1) 색채에 따른 이름

색채어가 天文語에 관계하고 있는 것은 인지상정에 속한다(李男德, 1985b : 28). 〈검다〉·〈붉다〉·〈푸르다〉·〈희다〉 등 색채어가 〈구름〉·〈물〉·〈해〉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李南德(1985b)도 이 네 가지 색채어를 가장 중요시하여 그 어원을 다이루고 있다(1985 : 27~78). 마찬가지로 이 방언의 동물 이름

47) 李崇寧(1935)에는 물고기 이름을 형태·색채·습성·유추를 들고 있으며, 강영봉(1986^a)에서는 형태·색문·습성·생산방식·成稚·유추를 들고 있다. 말 이름인 경우는 哈勤楚倫(1970)에는 戰馬·走馬·點馬 등 기능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들도 이 네 가지 색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색채에 따른 이름들을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소 : 검은색 · 검은어럭색 · 노린어럭색 · 모카니 · 노린색 · 베어럭이 · 숙색 ·
식어럭색 · 신색 · 신어럭색 · 어럭색 · 제색 · 제노린색 · 제노린어럭색 ·
황어럭색 · 총어럭색

말 : 가레물 · 먹가레물 · 추가레물 · 월레물 · 검은월라물 · 노린월라물 · 유매
물 · 부회유매 · 고라물 · 조류매 · 청총매 · 적대물 · 고치적대물 · 구령적
대물 · 초적대물 · 구령물 · 부루물 · 연사라물 · 간전이 · 코간전이 · 족발
이 · 족백이물 · 쌀족백이 · 함부리 · 태성백이 · 거흘마

돼지 : 검은돛 · 숙돛 · 어럭돛

개 : 노린개 · 검둥개

야생동물 : 노리⁴⁸⁾

새 : 그스렁독새

곤충 : 불한치 · 붉은게엄지 · 거멸 · 거막 · 땅거막 · 돛거미 · 고치밥주리 · 심
방나비 · 황지냉이 · 청두미애기

파충 · 양서 : 셋배엄 · 배붉은개개비 · 청가개비

물고기 : 황애이리 · 붉은볼락 · 붉바리 · 가문돔 · 구릿 · 흰조기 · 노린조기 ·
검평우럭

조개 : 먹보말 · 가마귀부리

갑각류 : 심방강이

이상에서 赤은 {붉은 · 고치 · 추 · 초 · 황 · 노린 · 구령 · 고라}가 연결되어 나타나고, 白은 {어럭 · 하 · 백이 · 함 · 흰 · 백}등이 붙어 동물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다. 黑은 {검 · 돛 · 숙 · 숙 · 신 · 가문 · 검둥 · 구리 · 그스렁 · 먹 · 가마귀}로, 靑은 {청}이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73개 이름이나 되고 나아가 소나 말 이름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에서 그만큼 소나 말의 비중이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Ⅱ장 끝부분 참조), 이름짓기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분명한 색채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한편, 꼭 꼬집어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는 ‘부회유매’처럼 <부엌다>와 같은 농도 옅은 색채로 표현하고 있다. 현란

48) ‘노리’를 색채로 분류한 것은 <노루>가 <노랗다>와 관련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한국문화상징사전》: 169).

한 색채는 무당의 차림새에 빗대어 '심방나비'처럼 {심방}을 연결하여 부르고 있기도 한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색채 자체가 동물이 된 경우가 있는가 하면('거벌'·'거뵤'·'노리'), 어떤 색채를 띠고 있는 대표적인 사물 이름을 색채어로 빌려오고 있다. '가마귀부리'·'속췌'·'뚝거미'의 {가마귀·속·뚝} 등이 그것들이다.

'채노린어럭췌'와 같이 세 가지 색채를 연결하여 동물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2) 형태에 따른 이름

이 이름들은 동물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부르는 이름이다. 정상적인 데 초점이 맞추어지는가 하면, 그 반대인 병신에 대해서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이름을 짓고 있다. 명명자의 주관이 뚜렷하게 반영되기도 한다.

소: 갈퀴다리·게우눈·민둥머리췌·복쉬다리·췌진췌·작박도리췌

말: 골히눈이·곱소리·귀옥쟁이·활등이·삼등이·사통이·조랑말

돼지: 물툫·걸귀

개: 땅개·더펄개

야생동물: 각죽

근충: 장삼계염지·뽕재열

파충·양서: 장칼래비·뚝줄래

물고기: 갈치·뿔상어·저울도리·재비가오리·돌치·각재기·눈벌렁이·
구문쟁이·각돔·눈쟁이·물코쟁이·장태·넙치·뽕복쟁이·마굴
치

조개: 곱배군벚·문다드리·코토대기·쟁배름·고냉이이빨·물토새기

갑각: 돌킹이·뽕킹이·고냉이방석·삼천발

크기가 정상보다는 작은 것이 있는가 하면('뽕재열'·'뽕킹이'·'땅개'·'조랑말'), 병신의 것도 있다. 다리에 이상이 있는 것('갈퀴다리'·'복쉬다리'·'췌진췌'), 눈에 이상이 있는 것('게우눈'·'사통이'·'골히눈이'), 등에 이상이 있는 것('곱소리'·'활등이'·'삼등이') 등 신체 부위가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병신에 따른 이름들은 크기가 큰 마소에 치증되어 있다.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징적인 명명법이다.

명명자의 주관이 내포된 것이 있는가 하면(‘족박도리썰’·‘민둥민리썰’·‘장삼게염지’·‘장칼래비’·‘저울도리’·‘제비가오리’·‘돌치’·‘눈벌렁이’·‘눈쟁이’·‘물코쟁이’·‘문다드리’·‘코토대기’·‘고냉이방석’ 등), 그 동물의 특징적인 부위를 이름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귀옥쟁이’·‘깍늑’·‘각재기’·‘돌킹이’·‘고냉이이빨’·‘삼철발’).

(3) 습성에 따른 이름

이 습성에 따른 이름들은 말뜻 그대로 동물의 속성에 의해서 명명된 이름들이다. 행동·서식지·습성에 따라 이름짓고 있다.

소 : 뜰썰 · 뜰밭갈썰

말 : 재매

돼지 : 가름도새기

새 : 고망독새 · 남도로기새 · 비죽쟁이 · 돛박쟁이

곤충 : 국다귀 · 불한티 · 심방말쭉 · 눈에눈이

파충 · 양서 : 물레기

물고기 : 툰물장의 · 구문쟁이 · 뱃돔 · 모살치 · 맥전다리 · 보들락 · 덩불치 ·

쫄치우럭 · 쫄치 · 심방복

조개 : 게들래기 · 똥깡이 · 냇깡이 · 도롱깡이

행동이 느린 것이면 <뜨다>가 연결되어 부르고(‘뜰썰’·‘뜰밭갈썰’), 재면 ‘도롱깡이’처럼 <단다>와 관련된 어휘가 동원된다. 배치작거리는 것(‘뱃돔’), 나대는 것(‘가름도새기’·‘심방복’·‘심방말쭉’), 기운이 축 늘어진 것(‘맥전다리’)도 있다.

서식지에 따라 구멍(‘고망독새’·‘구문쟁이’)·모래(‘모살치’)·민물(‘툰물장의’)·내(‘냇깡이’), 나무(‘남도로기새’·‘돛박쟁이’) 덩불(‘덩불치’·‘똥깡이’) 등과 관련시키고 있다.

습성에 따라, 울음과 관련지어서(‘비죽쟁이’), 물거나 쏘는 것과 관련시켜서(‘국다귀’·‘물레기’·‘쫄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남의 집에 잘 들어가면 ‘게들래기’, 사람의 눈 앞에서 나대면 ‘눈에눈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이름들은 세밀한 관찰과 경험에 따라 붙여진 이름들이다.

(4) 기능에 따른 이름

이 기능은 물론 그 용도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동물이야 암·수에 따라 그 기능은 다하는 것이지만, 그외 어떤 기능과 용도로 이용되는가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소 : 밧갈썰 · 부롱이 · 부사리 · 저릿썰 · 중성기 · 지스랭이썰 · 황썰

말 : 지스랭이말

개 : 사농개

새 : 줄레

곤충 : 청벌

‘부롱이’ · ‘황썰’ · ‘부사리’ · ‘중성기’는 성 기능의 보유나 상실에 따른 이름들이고, ‘지스랭이썰’ · ‘지스랭이말’은 새끼를 낳을 수 없는 생산성에 따른 이름이다. 이 ‘지스랭이’는 아무 동물에나 붙을 수 있는 어휘이다(‘지스랭이개’ · ‘지스랭이똥’ 등).

‘밧갈썰’ · ‘저릿썰’는 밧가는 기능이 중시된 이름이고, ‘사농개’는 사냥에 이용되는 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줄레’는 특이하여 문헌어 <밧썰>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 동료를 유인하는 미끼인 썸이다. ‘청벌’은 꿀을 따기 위한 벌이다.

(5) 성치에 따른 이름

이 成稚⁴⁹⁾에 따른 이름들은 주로 어린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부분 축소사인 {-애기} · {-아지} · {-생이} · {-아리}가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49) 成稚의 대표적인 예는 송어에 나타난다. 張泰鎭(1969^b: 126)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구별	소 중 어				중송어	대 송 어			
연령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6년생	7년생	8년생	9년생
호칭	모쟁이	또물치	모 치	둥굴모치	이듬송어	방치송어	사름송어	대명사	나모르기

가끔 어리다가 연상되는 어휘를 결합시켜 부르고 있기도 하다.

소 : 송애기 · 새송애기 · 에미유리
 말 : 뭉생이 · 뭉아지
 돼지 : 도새기 · 자릿도새기 · 좇도새기
 닭 : 빙애기 · 빙아리 · 비애기
 개 : 강생이 · 강아지
 야생동물 : 염송애기
 새 : 꿩빙애기 · 꿩비애기 · 줄레

축소사가 연결되어 ‘송애기’ · ‘뭉생이’ · ‘뭉아지’ · ‘도새기’ · ‘빙애기’ · ‘빙아리’ · ‘비애기’ · ‘강생이’ · ‘강아지’ · ‘염송애기’ · ‘꿩빙애기’ · ‘꿩비애기’로 나타나고 있다.

‘송애기’에 다시 新의 의미가 있는 접두사 {새-}가 연결되어 어린 소임을 분명히 하기도 한다. ‘에미유리’는 “어미를 여윈 송아지나 망아지”로 (玄平孝, 1962·1985 : 511) 풀이하고 있어 어린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릿도새기’도 {자리-}라는 접두사가 연결되어 있어 어린 것임을 짐작할 수가 있다. {자리-}는 小의 뜻이 있는 접사다.

또 ‘좇도새기’는 {좇}이 <젓>의 방언형이니, “젓을 먹는 어린 돼지”라 뜻이 되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돼지임을 알 수 있다. ‘줄레’는 특이한 어휘로 Ⅱ장 <꿩>항에서 보았듯이 미끼새이니 어린 꿩일 수밖에 없다.

(6) 유추에 따른 이름

여기서 유추(analogy)란 “형태, 형태 결합, 혹은 언어의 유형이 언어에 존재하는 것들에 따라서 수정되고 새로운 것이 창조되는 과정” (金載福, 1984 : 176)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현존하는 형태의 모형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또는 그것에 맞추어 단어들을 수정하는 과정이다. 여기에는 정상적인 제도 이탈, 예측할 수 없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다 다시 연상작용까지 더하여져서 붙여지는 이름이란 뜻으로 쓴다. 이는 명명자의 시각과 연상 그리고 추리에 따르는 이름들이니 주관적인 경향을 띠고 있기도 하다. 이런 예에 속하는 이름들은 아래와 같다.

애미유리-여의다	민둥머리췌-뿔없음
작박도리췌-‘작박’	태성백이-벌
곰소리-등	활등이-활
걸귀-먹기	고당독새-굴뚝=구멍
비죽생이-울보	불한되-불
장삼계엄지-날개=장삼	고치밥주리-고추
사상벌-엉경귀	심방나비-무당
심방말촉-무당	준다니-말 많은 사람
저울도리-저울	놀부-놀부 심보
재비가오리-재비	돌치-달
멍텅구리-멍텅구리	멍치-멍텅구리
눈벌렁이-눈	물코쟁이-말
심방복-무당	철갑복쟁이-쇠
칠복-복	곰배군벗-곰방매
문다드리-문	고냉이이빨-고양이 이빨
심방?매기-무당	살?매기-실
굴것-굴	쟁배름-쟁반
종배말-종	가마귀부리-까마귀 입
들킹이-들	지름깅이-기름
심방깅이-무당	고냉이방석-방석
물이실-물이슬	정철이-사람 이름
경철이-사람 이름	

명명 방법에서는 색채·형태·유추에 따른 이름들이 많은 것은 자연에 의존하는 원시적인 명명법과 명명자의 관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어떻게 보이느냐는 문제는 곧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같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추도 또한 명명자의 상상력이 반영된 결과이다.

습성이나 기능은 세밀한 관찰 결과 드러나는 것이기에 자연 그에 따른 이름은 적게 마련이다.

2. 系統別 類型

계통에 따라 고유어 이름, 외래어 이름 그리고 혼합형 이름이 있다.

(1) 고유어

이 고유어 이름이란 문헌어를 반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문헌어를 찾을 수 없지만 표준어와 같으면 고유어 이름에 포함시켰다. 또 표준어하고도 상관성을 찾지 못한 경우도 해당된다. 이는 고유어의 개념을 의미자질의 측면에서 볼 때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는 정의에 따른 것이다.

고유어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소 : 송애기 · 검은새 · 부롱이 · 저릿새 · 황새 · 모카니 · 노린새 · 속새 · 신새 · 제새 · 제노린새 · 꽃새 · 드룻새 · 맴새 · 번새 · 중성기 · 지스랭이새 · 에미유리 · 갈튀다리 · 게우눈 · 민둥머리새 · 복쉬다리 · 찹진새 · 뜯새 · 뜯밧갈새 · 작박도리새

말 : 족백이물 · 태성백이 · 골히눈이 · 족발이 · 쌀족백이 · 함부리 · 제매 · 지스랭이물 · 왕골히 · 곱소리 · 귀옥쟁이 · 활등이 · 삼등이 · 사통이

돼지 : 도아지 · 암퇘 · 수퇘 · 검은돛 · 속돛 · 가름도새기 · 물퇘 · 자릿도새기 · 좇도새기

닭 : 암퇘 · 장돛

개 : 수개 · 검둥개 · 더꿰개 · 강생이 · 노린개 · 땅개

야생동물 : 꿩 · 고냉이 · 식 · 사슴 · 노리 · 족제비 · 여시 · 염새 · 납 · 독라미 · 지다리

새 : 꿩 · 암꿩 · 꿩꼬리 · 기레기 · 간치 · 가나귀 · 옥밤 · 줄레 · 장꿩 · 고망둑새 · 남도로기새 · 똥데웨기 · 제비생이 · 비죽생이 · 밤주리생이 · 하귀새 · 똥박생이

곤충 : 게엄지 · 물게엄지 · 거멸 · 거의 · 게우리 · 벌 · 굼벵이 · 뇌 · 잣 · 나비 · 모기 · 배록 · 빈대 · 푼리 · 쉬푼리 · 똥푼리 · 개푼리 · 구데기 · 새푼리 · 지냉이 · 중이 · 지냉이 · 진독 · 눈에눈이 · 국다귀 · 불한뒤 · 장삼게엄지 · 붉은게엄지 · 돛거미 · 밥주리 · 고치밥주리 · 청벌 · 소왕벌 · 쉬 · 심방나비 · 봉앵이 · 말촉 · 물말촉 · 심방말촉 · 재열 · 꽃재열 · 멜위 · 소낭버랭이 · 부구리 · 진쉬 · 서미역 · 접주와기 · 두미애기 · 봉앵이 · 떠렁새 · 하늘강생이

파충 · 양서 : 배염 · 구렁이 · 두테비 · 맹마구리 · 독다귀 · 물폐기 · 돛줄레 · 셋배염 · 가개비 · 배붉은가개비 · 맨주기

물고기 : 갈치 · 장의 · 가자미 · 농어 · 뱀어 · 빙어 · 상어 · 돔바리상의 · 가오

리·멜·숨에·돌치·방어·만새기·고등에·가라지·벤자리·
 돔·오토미·망치·자리·불락·검평우럭·줄락·서대·넙치·돈
 물장의·곰장어·놀부·도랭이·준다니·비근다리·양지گی·모도
 리·지름상의·저울도리·죽상어·수거리·정철이·밥주기·재비
 가오리·메역치·물뱀·고줄맹이·멍텅구리·소용치·멍치·저
 립·각재기·눈벌렁이·복재기·붉은불락·곤자리·다금바리·구
 문쟁이·붉바리·붉조기·가문돔·구릿·뱃돔·흰조기·노린조
 기·갯돔·논쟁이·모살치·술라니·웁이·물코쟁이·맥편다리·
 술맹이·어랭이·코생이·바닥괘주리·괘주리·따저·보들락·덤
 불치·맹내기·방장우럭·쫄치우럭·쫄치·장태·복쟁이·광복쟁이
 조개 : 전복·오분재기·낙지·문게·군벚·썩군벚·물군벚·곰배군벚·마
 타술·메옹이·문다드리·웨보말·꺾메기·참꺾메기·실꺾메기·심
 방꺾메기·굴젓·마드래·쟁배름·개쟁배름·오갈·가매기보말·가
 마귀부리·모살조개·물콧조개·맹마구리·굴맹이
 갑각 : 물문주리·미·강이·깍쟁이·돌킹이·갯강이·계들래기·지름깡
 이·참강이·꽃강이·심방강이·뚱강이·넛강이·도롱강이·구살·
 습·고냉이방석·삼천발·물이실·물툫

(2) 외래어

외래어 차용으로 보이는 이름은 몽골어와 일본어 그리고 한어가 있다. 한어는 국어 어휘론의 입장에서 볼 때 고유어에 포함시켜도 무방하지만 형태론적 입장에서 볼 때 [+sino]의 자질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외래어로 다룬다.

몽골어의 차용은 13세기 제주도가 몽골의 최대 목마장이었음을 상기하면 그 차용 관계는 쉬 짐작이 된다. 제주도가 일본에 가깝고 발달된 기술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일본어도 차용이 되었다.

① 몽골어

몽골어의 차용은 마소 이름에 한정되어 있다. 이는 제주도가 몽골의 최대 목마장과 관련이 깊다. ‘물’ 자체가 몽골어 morin의 차용이고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말 : 가레물 ← qara morin

추가래물 ← tʃung qara morin
 쉼래물 ← alar morin
 고라물 ← qura morin
 적대물 ← jegerde morin
 구렁적대물 ← küreng jegerd morin
 초적대물 ← tʃung jegerde morin
 구렁물 ← küreng morin
 부루물 ← burural morin
 조랑물 ← joro morin
 간전이 ← qaljan morin
 소 : 부사리 ← bull-shar

이중에 ‘추가래물’·‘초적대물’에서 {추} (초)와 ‘조랑물’을 제외하고는 이미 몽골어 차용어임이 밝혀졌다.

‘가래물’·‘적대물’이 몽골어의 차용이라고 한다면 이 이름 앞에 연결된 {추} (초)도 몽골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tʃung]이라는 몽골어를 찾아내고 의미·음운을 고려하여 볼 때 몽골어의 차용임을 알게 되었다(II장 ‘말’항 참조). ‘조랑물’은 그 표기에 치중하여 жороо를 [joro]로 읽을 수 있다. 이 어휘는 현대 몽골어에도 이어지고 있다.

소 이름인 ‘부사리’도 몽골어 bull과 shar가 연결되어 이 방언에 쓰이고 있는 몽골어의 차용어다.

② 한어

한어는 한자 어휘로 된 이름을 말한다. 한자 이름의 방언형이라든가 한자음 그대로 부르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야생동물 : 각록 ← 角鹿
 새 : 순작 ← 鶻鵲
 물고기 : 장의 ← 長魚
 농어 ← 鱸魚
 방어 ← 魴魚
 조개 : 전복 ← 全鰓
 생복 ← 生鰓

새 이름 가운데 ‘악새’는 郭公의 ㄱ[k]이 음변하여 부르는 이름이며, ‘하괴새’도 鵲이 음변하여 그 본래의 모습과 멀어졌기 때문에 제외한다.

③ 일본어

일본어 차용이라 보이는 어휘는 물고기 이름에만 나타나고 있다.

비껴←kirinoto-buka
십이가스←suji-gatsuo
히라스←hiramasa

(3) 혼합형

혼합형이라 함은 국어+외래어로 이루어진 이름을 말한다. 이때 국어의 개념은 고유어 이름을 뜻한다.

① 몽골어+국어

소: 검은어럭새 · 노린어럭새 · 베어럭이 · 식어럭새 · 신어럭새 · 어럭새 · 제노린어럭새 · 황어럭 · 총어럭새
말: 먹가래돌 · 노린월라돌 · 고치적대돌 · 연사라돌 · 코간전이

② 한어+국어

말: 유매돌 · 검은유매돌 · 부헌유매
곤충: 사상벌 · 황지냉이 · 청두미애기 · 청가개비
물고기: 황애이리 · 백조기
조개: 압전복 · 종배말

고유어 이름이 단연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명명 방법의 유형에서 보았듯이 언증들의 관념이 반영된 결과이다. 형태에 따라 붙여진 이름, 유추에 의해 붙여진 이름들이 많은 결과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 방언에서만 쓰이는 접두사·접미사가 연결되어 동물 이름의 어휘를 풍부하게 한 까닭도 있다.

고유어는 15세기 어휘는 물론 19세기 어휘까지 포함되어 있다. 문헌어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음운의 변화를 거친 어휘도 있다. 고유어 이름이 80% 이상이 되는데, 이는 아직도 이 방언에 많은 고어를 유지하고 있다

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특히 차용어 중에서 몽골어가 많다는 것은 이 방언이 지닌 가치다. 몽골어의 차용 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이 방언이 지니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3. 形態別 類型

이 형태별 유형에서는 ① 음절구조 ② 어휘 구성의 유형, 그리고 ③ 접사의 유형이 논의 대상이 된다.

1) 음절 구조의 유형

음절구조는 단음절어와 다음절어로 나누고, 다음절어는 다시 음절수에 따라 나누어 본다.

(1) 단음절어 : 1음절형

소 : 쇠

말 : 말

돼지 : 돛

닭 : 독

개 : 개

야생동물 : 낚

새 : 꿩

곤충 : 뇌 · 벌 · 쉬 · 갓

물고기 : 멜 · 뚝

갑각 : 습 · 미

(2) 다음절어

① 2음절형

소 : 숙쇠 · 신쇠 · 제쇠 · 꽃쇠 · 맴쇠 · 번쇠 · 황쇠 · 뜰쇠

말 : 제매

돼지 : 숙돛 · 걸귀 · 물툫

닭 : 장독 · 암퇘

개 : 수개 · 암개 · 땅개

야생동물 : 각죽 · 노리 · 여시 · 염췌

새 : 간치 · 왓새 · 순작 · 춤매 · 옥밤

곤충 : 거밀 · 거의 · 청닐 · 나비 · 누에 · 말촉 · 재열 · 모기 · 멜위 · 배록 · 빈
데 · 푸리 · 쟁이 · 진독 · 진쉬

파충 · 양서 : 배염

물고기 : 갈치 · 장의 · 농어 · 뱀어 · 빙어 · 상에 · 비계 · 송에 · 물뱀 · 돌치 ·
방어 · 멍치 · 저립 · 각돔 · 구릿 · 뱃돔 · 갯돔 · 망치 · 자리 · 웅이 ·
따찌 · 불락 · 쏘치 · 줄락 · 장태 · 서대 · 넙치 · 춤복

조개 : 군벚 · 굴젓 · 전복 · 생복 · 오갈 · 뱀망 · 낙지 · 문게

갑작 : 강이 · 구살

② 3음절형

소 : 검은췌 · 모카니 · 노린췌 · 어럭췌 · 황어럭 · 드룻췌 · 밧갈췌 · 부룻이 ·
부사리 · 저릿췌 · 중성기 · 게우눈 · 접진췌

말 : 가레물 · 췌레물 · 유매물 · 고라물 · 주류매 · 청총매 · 적대물 · 구렁물 ·
부루물 · 간전이 · 족발이 · 함부리 · 왕골히 · 굽소리 · 활등이 · 삼등이 ·
사통이 · 거홀마 · 조랑물

돼지 : 검은돗 · 어럭돗

개 : 사농개 · 노린개 · 짐동개 · 더펄개

야생동물 : 고냉이 · 족제비 · 드라미 · 지다리

새 : 꾀꼬리 · 기레기 · 굴메기 · 총대기 · 콩생이 · 가냐귀 · 하귀새

곤충 : 국다귀 · 불한뒤 · 제염지 · 땅거의 · 돛거의 · 게우리 · 뱀주리 · 사삼
벌 · 굴뻥이 · 공중이 · ㄱ랑늑 · 두메기 · 봉앵이 · 물말촉 · 왕재열 · 쫓
재열 · 쉬푸리 · 똥푸리 · 개푸리 · 구데기 · 췌푸리 · 지냉이 · 지랭이 ·
부구리 · 서미역 · 봉댕어 · 떠렁췌

파충 · 양서 : 독다귀 · 물폐기 · 돛줄레 · 셋베염 · 구랭이 · 가개비 · 두테비 ·
멘주기

물고기 : 가제미 · 곰장어 · 도랭이 · 준다니 · 양지기 · 모도리 · 죽상어 · 수거
리 · 가오리 · 뱀주기 · 아에리 · 메역치 · 만새기 · 소용치 · 고등에 ·
가라지 · 각재기 · 히라스 · 복재기 · 곤자리 · 붉바리 · 붉조기 · 벤자
리 · 가문돔 · 흰조기 · 논쟁이 · 모살치 · 오토미 · 술멩이 · 어랭이 ·
코생이 · 꾀주리 · 보들락 · 덩불치 · 맹내기 · 복쟁이 · 심방복 · 마굴
치

조개 : 쉼벚 · 물근벚 · 마타솔 · 매옹이 · 먹보말 · 웨보말 · ㄱ메기 · 마드래 · 암전복 · 쟁배름 · 종배말 · 절방귀 · 수두리 · 굴맹이 · 돌뱅이
 갑각 : 돌갱이 · 갯갱이 · 참갱이 · 풋갱이 · 뚱갱이 · 넷갱이 · 삼천발 · 물이실

③ 4음절형

소 : 배어럭이 · 식어럭췌 · 신어럭췌 · 제노린췌 · 총어럭췌 · 예미유리 · 갈튀다리 · 복쉬다리 · 뜯뱃갈췌
 말 : 먹가레물 · 추가레물 · 부흰유매 · 초적대물 · 연사라물 · 코간전이 · 족백이물 · 싹족백이 · 태성백이 · 꿀히눈이 · 귀옥쟁이
 돼지 : 좇도새기
 새 : 고망독새 · 똥소로기 · 제비생이 · 비죽생이 · 똥박생이
 곤충 : 물게염지 · 심방나비 · 심방말췌 · 황지넵이 · 접주와기 · 두미애기 · 땅강생이 · 눈에눈이
 파충 · 양서 : 청가개비 · 멍마구리
 물고기 : 툰물장외 · 비근다리 · 지름상의 · 저울도리 · 황애이리 · 고줄맹이 · 십이가스 · 멍텅구리 · 눈벌령이 · 붉은불락 · 다금바리 · 구문쟁이 · 노린조기 · 물코쟁이 · 맥편다리 · 검평우럭 · 방장우럭 · 쏘치우럭 · 팽복쟁이
 조개 : 곱배근벚 · 참ㄱ메기 · 코토대기 · 오분재기 · 개쟁배름 · 조쿠쟁이 · 모살조개 · 물궤조개 · 멍마구리
 갑각 : 게들래기 · 지름갱이 · 심방갱이 · 도롱갱이 · 물문주리

④ 5음절형

소 : 검은어럭췌 · 노린어럭췌 · 지시랭이췌 · 민둥머리췌 · 작박도리췌
 말 : 검은월라물 · 노린월라물 · 검은유매물 · 고치적대물 · 구렁적대물 · 지시랭이물
 돼지 : 가름도새기 · 자럿도새기
 새 : 남도로기새
 곤충 : 장삼게염지 · 붉은게염지 · 고치밥주리 · 장수밥주리 · 소낭버랭이 · 청두미애기
 물고기 : 똥바리상어 · 제비가오리 · 바당객주리
 조개 : 심방ㄱ메기 · 가매기보말 · 가마귀부리
 갑각 : 고넵이방석

⑤ 6음절형

소 : 제노린어럭쉐

파충·양서 : 베틀은개개비

조개 : 옷벗은돌뱅이

이상에서 열거한 음절구조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음절형	2음절형	3음절형	4음절형	5음절형	6음절형	합
15개	80개	146개	70개	27개	3개	341
4.4%	23.5%	42.8%	20.5%	7.9%	0.9%	100%

이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방언의 동물 이름 어휘를 음절구조를 볼 때 3음절형이 많고 그 다음은 2음절형이 많다. 4음절형도 20.5%나 되어 이 세 유형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절구조의 신장은 접두사가 첨가되거나(쉐→숙쉐 : 신쉐, 가레물→먹가레물 등), 섹채어가 더 연결되어 (쉐→검은쉐·노린쉐·제노린쉐 등) 이루어지고 있다. 어휘의 세분화를 위하여 음절 신장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쉐’→‘어럭쉐’→‘제노린어럭쉐’가 됨과 같다. 나아가 이름과 이름이 결합이라든가(‘신쉐’+‘어럭쉐’→‘신어럭쉐’, ‘구렁물’+‘적대물’→‘구렁적대물’ 등), 차용어와 국어의 결합(황+쉐 등)도 음절 신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좀더 구상성을 띤 이름으로 명령하려다 보니 음절 신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옷벗은돌뱅이’ 등).

2) 어휘 구성의 유형

이 방언의 동물 이름 어휘 구성의 유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유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 ① ‘X+α’형
- ② ‘X’형

①의 ‘X+α’형은 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이름이 어말에 연결되는 유형을 말

한다. 소 이름인 경우 'X+새', 말 이름의 경우는 'X+물' 또는 'X+매', 새 이름이면 'X+생이'나 'X+새'형으로 구성된 유형이다. 이를 편의상 이중형이라 하자. 그러나 ②의 'X'형은 단순형으로 이루어진 구성을 뜻한다.

결국 어휘 구성의 유형은 'X'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와 같다. 물론 α 에 해당하는 어휘는 명사임을 전제로 한다.

이 방언의 동물 이름 어휘 구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명사형 구성(N형)
- (2) 동사형 구성(V형)
- (3) 형용사형 구성(A형)
- (4) 부사형 구성(Ad형)
- (5) 접두파생형 구성(Pf형)
- (6) 접미파생형 구성(Sf형)

※ N : Noun, V : Verb, A : Adjective, Ad : Adverb, Pf : Prefix,
Sf : suffix

(1) 명사형 구성

이 명사형 구성의 유형은 ① N + (N) + (N) 형, ② N + A + (N) 형, ③ N + V + (N) 형 그리고 ④ N + Sf + N형이 있다.

① N + (N) + (N) 형

이 유형은 명사 하나로 동물 이름이 구성되는 단일형이 있는가 하면 명사가 셋까지 겹쳐서 동물 이름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단일어 및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N형 : 새 · 중성기 · 물 · 독 · 고냉이 · 여시 · 줄레 · 국다귀 · 거멸 · 거의 · 뇌 · 쉬 · 잣 · 부구리 · 모기 · 멜위 · 베록 · 빈데 · 가제미 · 가오리 · 저림 · 만새기 · 군벳 · ㄹ메기 · 오갈 · 구살 · 숨 · 미 등

N+N형 : 총-어럭(새) · 추-가레(물) · 고치-적대(물) · 가름-도새기 · 각-늑 · 순-작 · 장삼-계엄지 · 고치-밤주리 · 심방-나미 · 심방-말죽 · 지름-상의 · 제비-가오리 · 황-애이리 · 물-뱀 · 각-뚝 · 바당-객주리 · 방장-우럭 · 심방-복 · 곰배-군벳 · 중-배말 · 모살-조개 · 물-이실 등

N+N+N형 : 물+콧+조개

이 유형에서 특이한 것이 있다면 N와 N사이에 관형격으로 연결된 이름이 있다는 것이다. ‘하괴새’가 바로 그것인데, 이는 {학+의+새}로 분석되어 관형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연결은 국어에 흔히 있는 연결로 <남의나이>·<남의달>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접미사가 연결되어 있지만 두 명사 사이에 격조사가 연결된 ‘눈에눈이’도 있다(이 어휘는 {눈+에+눈+이}로 분석된다.). 또 이 유형에 불구형태와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게우-눈’·‘검평-우럭’이 바로 그것인데, 일단은 N'+N형으로 보고자 한다.

② N+A+(N)형

명사+형용사+명사 형으로 구성된 이름이다.

형용사는 형용사 어간을 뜻하며 그 연결은 관형형어미 ㄴ(n)에 의존한다.

N+A형 : 제-노린(췌)

N+A+N형 : 제-노린-어럭(췌)·배-붉은-개개비

③ N+V+(N)형

명사+동사+명사 형으로 구성된 이름이다. 물론 동사는 동사 어간을 말하며, 그 연결은 관형형 어미 ㄴ(n)과 ㄹ(l)에 의존하고 있다.

N+V형 : 밧-갈(췌)·에미-유리

N+V+N형 : 옷-벗은-돌뱅이

여기서 ‘에미유리’와 ‘옷벗은돌뱅이’를 (6)항의 접미파생형 구성으로 다루지 않는 것은 [[에미][유리]], [[옷벗은][돌뱅이]]로 분석이 되기 때문이다.

④ N+Sf+N형

명사+접미사+명사 형으로, ‘돔바리상어’라는 물고기 이름의 예밖에 없다. 나중의 3.3항의 접미사에서 언급이 되겠지만 (-바리)는 동물 이름에 붙는 접

미사이다. 그러니 {돔+바리}에 다시 {상어}가 연결된 구성을 하고 있는 이름이다.

N+Sf+N형 : 돔-바리-상어

(2) 동사형 구성

이 동사형 구성의 유형에는 ① V형, ② V+Sf+N형이 있다.

① V형

이 형은 동사 어간에 어미가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구성이다. 이때 어미는 ㅁ[m]과 ㄴ[n]에 의존하고 있다.

V형 : 맴(썰) · 점진(썰)

② V+Sf+N형

이 형은 동사 어간에 접미사가 연결되고 난 후 다시 명사가 연결된 구성이다.

V+Sf+N형 : 쏘-치-우럭

‘쏘치우럭’에서 ‘쏘치’와 ‘우럭’은 각각 별개의 물고기 이름으로 존재하고, ‘쏘치’는 {쏘+치}로 분석된다. {-치}는 물고기 이름에 붙는 접미사임은 잘 알려져 있다.

(3) 형용사형 구성

이 형용사형 구성의 유형에는 ① A형, ② A+N형, ③ A+N+V형이 있다.

① A형

이 형은 형용사 어간에 어미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구성이다. 어미는 ㄴ[n]이 추가 된다.

A형 : 검은(썩) · 노린(썩) · 뜬(썩) · 노린개

② A+N형

이 형은 앞의 유형인 A형에 다시 명사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구성이다.

A+N형 : 검은-어럭(쇄) · 노린-어럭(쇄) · 검은-윌라(톨) · 부환-유매 · 검은-유매(톨) · 곱-소리 · 연-사라(톨) · 붉은-게염지 · 흰-조기 · 노린-조기

이 예중에 ‘곱소리’와 ‘연사라(톨)’에서는 형용사 어간이 바로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고 있다. 비통사적 합성에 속한다.

③ A+N+V형

이 형은 형용사 어간에 명사가 연결되고 난 후, 여기에 다시 동사 어간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구성이다. 어미는 ㄴ[n]과 ㄹ[l]이 쓰이고 있다.

A+N+V형 : 뜬-밧-갈(쇄)

(4) 부사형 구성

이 부사형 구성의 유형에는 ① Ad형, ② Ad+N형이 있다.

① Ad형

이 형은 부사 단독으로 이루어진 구성을 말한다.

Ad형 : 더펄(개) · 왁(새) · 떠령(쇄) · 보드락

② Ad+N형

이 형은 부사에 명사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구성이다.

Ad+N형 : 비죽-생이 · ㄹ랑-너

(5) 접두 파생형 구성

이 접두 파생형 구성의 유형은 ① Pf형, ② Pf+N형이 있다.

① Pf형

이 형은 접두사가 'X+α'형의 X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때 pf형에 속하는 접두사 목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개-) : 개-꼭리 · 개-쟁배름

(돛-) : 돛-거미 · 돛-줄레

(땅-) : 땅-개 · 땅-강생이

(똥-) : 똥-소로기 · 똥-깁이

(먹-) : 먹-장어

(물-) : 물-군벗

(샛-) : 샛-배염

(생-) : 생-복

(생이-) : 생이-벨망

(수-) : 수-개

(속-) : 속-췌 · 속-돛

(신-) : 신-췌

(실-) : 실-ㄹ매기

(숙-) : 숙-돛

(췌-) : 췌-군벗

(왕-) : 왕-재열

(자리-) : 자릿-도새기

(장-) : 장-평

(조-) : 조+쿠쟁이

(조랑-) : 조랑-물

(춤-) : 춤-매

(똥-) : 똥-재열

(뿔-) : 뿔-곧개비

② Pf+N형

이 형은 결국 접두사+명사+명사 형으로 이루어진 구성을 말한다. ①의 pf형에 속하는 접두사가 다양하다면 이 유형은 몇 밖에 지나지 않는다.

(식-) : 식-어력-췌

[신-] : 신-어력·췌

[먹-] : 먹-가래-물

(6) 접미 파생형 구성

이 접미 파생형 구성의 유형에는 ① (N)+N+Sf형, ② N+V+Sf형, ③ (V)+V+Sf형, ④ A+Sf형 ⑤ N+A+Sf형이 있다.

① (N)+N+Sf형

이 형은 접미사 앞에 하나의 명사 혹은 두 개의 명사가 연결될 수 있는 구성의 유형이다.

N+Sf형 : [-이] : 간전-이

[-백이] : 족+백이·태성-백이

[-도리] : 저울-도리

[-치] : 메역-치·명-치·갈-치 따-치

[-바리] : 다금-바리

N+N+Sf형 : [-이] : 코-간전+이·활·등·이

[-백이] : 쌀-족+백이

[-애기] : 꿩-빙-애기

N+Sf형에서 ‘따치’·‘다금바리’는 불구형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다.

② N+V+Sf형

이 형은 명사+동사어간+접미사로 이루어진 구성의 유형이다. 직접 통합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미 ㄴ[n]이 연결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N+V+Sf형 : [-이] : 작박-돌-이

[-기] : 남-도로-기·코-토대-기

[-쟁기] : 귀-옥-쟁이

[-다리] : 맥-편-다리

[-리] : 문-다드-리

③ (V)+V+Sf형

이 형은 접미사 앞에 동사 어간이 하나 또는 둘이 나타날 수 있는 구성의 유형이다. 직접 통합이 되기도 하지만, 어미 ㄴ[n]이 연결되어 이루어지기도 한다.

V+Sf형 : {-렘이} : 지시-렘이

{-다리} : 복쉬-다리

{-와기} : 점주-와기

{-쟁이} : 논-쟁이

{-치} : 쏘-치

V+V+sf형 : {-다리} : 갈-튀-다리

④ A+Sf형

이 형은 형용사 어간에 접미사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구성의 유형이다.

A+Sf형 : {-다니} : 준-다니

{-치} : 넓-치

{-자리} : 곧-자리

⑤ N+A+Sf형

이 형은 명사에 형용사어간과 접미사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구성의 유형이다.

N+A+Sf형 : 맥-쥬-다리

이상 어휘 구성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	분포 (비율)
N + (N) + N	205 (60.1%)
N + A + (N)	2 (0.6%)
N + V + (N)	3 (0.9%)
N + sf + N	1 (0.3%)
	211 (61.9%)

유 형	분 포 (비 율)	
V	3 (0.8%)	4 (1.2%)
V+sf+N	1 (0.3%)	
A	10(3.0%)	22(6.5%)
A+N	11(3.2%)	
A+N+V	1(0.3%)	
Ad	5(1.5%)	7 (2.1%)
Ad+N	2(0.6%)	
Pf	17(4.8%)	37(10.8%)
Pf+N	20(6.0%)	
(N)+N+Sf	35(10.3%)	60(17.5%)
N+V+Sf	7(2.1%)	
(v) + (V) + Sf	12(3.5%)	
A+Sf	4(1.2%)	
N+A+Sf	2(0.6%)	
	계	341(100%)

N형이 61.9%로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동물 이름이 명사라는 등식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Sf형이 17.5%, Pf형이 10.8%를 차지하여 N형 다음으로 생산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V형에 비하여(1.2%) A형이 비율(6.5%)이 높은 것은 색채어가 동원된 데 기인한 결과다. Ad형 구성은 몇 어휘(7개)에 불과해 통합이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 주고 있다.

3.3. 접사의 유형

이 접사에는 접두사·접미사가 포함되는데, 그 확립의 기준은 하치근(1989: 105~107)에 따른다. 그가 제시한 기준은 ① 조어력, ② 특수성, ③ 어휘성, ④ 의존성, ⑤ 어미나 조사의 통합에 제약이 없을 것, ⑥ 어근과 분리성이 없을 것 등이다. 다같이 접미사의 확립의 기준이지만, ①②③④의 기준은 접두사에도 준용되리라 본다. ⑤와 ⑥은 접미사에만 적용되어 접두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접두사의 설정 기준으로 ①②③④외에 제약성이라는 기준

을 하나 더 추가 하고자 한다. 이는 관형사와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접두사의 속성에 기인하는 기준이다.

접두사{뜻-} : 뜻사랑 · 뜻사과 · *뜻세대

관형사{새} : 새 사랑 · 새 사과 새 세대

위에서 보듯 접두사나 관형사는 의미 보강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기능이 비슷하지만 분포상에 제약이 있어, 접두사 뒤에는 아무 명사나 올 수가 없다.

여기서는 국어사전은 물론 목록⁵⁰⁾과 견주어 보고, 방언적 특징이 나타나는 접미사도 살핀다.

(1) 접두사

① 개-

이 접두사는 사전에 “참 것이나 좋은 것이 아니라는 뜻, 또는 경멸할 것” (《국어대사전》: 99)으로, “①야생의, ②참 것이 아닌, ③변변치 않은, ④헛된, ⑤가치없는”의 뜻 (《우리말큰사전》: 123)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뜻으로 이 방언의 동물 이름에도 나타난다. 李男德(1985^a: 413~415)에는 식물 이름에 붙는 접두어로 동물 이름이 원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개- : 개포리 · 개상어 · 개쟁배름 · 개배말

② 돛-

이 {돛-}은 자립형인 ‘돛’에서 연유하고 있다. <돼지>의 뜻으로 쓰이나, 돼지의 검은 빛깔을 나타내는 접두사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빛깔이 검은”이란 의미 속성을 부가한다.

돛- : 돛거미 · 돛줄레 · 돛어랭이

50) 여기서 목록이라 함은 徐炳國의 《현대국어의 어 구성 연구》(1975)와 高永根의 《현대국어의 접미사에 대한 구조적 연구》(1974), 그리고 崔圭一의 《한국어 어휘형성에 관한 연구》(1988)에 들어있는 접두사·접미사 목록을 말한다.

‘뚫거미’에서 ‘거미’자체가 <검다>에서 나온 이름인데, 거기에 “빛깔이 검은”이란 접두사 {뚫-}이 연결되어 색채에 치중한 이름이 된다. ‘뚫줄레’ 또한 전체적으로 검은 빛깔을 띠고 있으니 {뚫-}이 연결되었으며, ‘뚫어랭이’의 {뚫-}도 마찬가지로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 접두사 {땅-}은 이 방언의 동물 이름에 연결되면 “키가 크지 않은”이란 뜻으로 쓰인다.

③ 땅-

《우리말큰사전》(: 1213)에는 접두사로 올라있다. “성질이나 특징의 정도가 아주 심한”의 뜻으로, “땅고집·땅꼬마·땅달보”를 그 예로 들고 있다.

이 {땅-}이 방언의 동물 이름에 연결되면 “키가 크지 않은”이란 뜻으로 쓰인다.

땅- : 땅개·땅강생이

④ 뚱-

이 {뚱-}은 국어사전은 물론 목록에도 들어있지 않다. “질이 떨어지는”, “먹을 수 없는”이란 뜻이 있어 {츄-}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뚱- : 뚱소로기·뚱강이

“뚱푼리”가 있는데, 이는 문헌어 <뚱의푼리>에 연유하고 있어 파생어에서 제외된다.

⑤ 먹-

국어사전이나 목록에도 들어있지 않다. 먹(墨)에서 나온 것으로, “검은색을 하고 있는”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먹- : 먹가래물·먹장어·먹보말

⑥ 물-

국어사전에는 올라있지 않은 반면, 목록에는 “물기가 많은·습기가 많은”

이란 뜻으로 {무-}가 올라 있고, 그 예로 “무장·무더위”를 들고 있다.

이 방언에서는, 물이 많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단단하지 않은”, “물렁물렁한”이란 뜻을 지닌 접두사로 쓰이고 있다.

물- : 물군벗

⑦ 민둥-

徐炳國의 목록에는 들어 있다(민둥산). 접두사 {민-}의 지닌 “꾸밈새나 딸린 것이 없는”(《국어대사전》, 《우리말큰사전》)의미로 파악한 결과이다.

‘민둥머리췌’는 “뿔이 없는” 소이니 {민-}의 의미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민둥- : 민둥머리췌

⑧ 새-

이 {새-}는 변이형태로 {셋-}이 있는데, “새로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의 뜻을 지니고 있는 접두사다. 한자어 新에 해당된다.

새- : 새송애기

셋- : 셋배염

‘새송애기’의 {새-}와 ‘새 췌’의 {새}는 의미가 결코 같을 수가 없다. ‘새송애기’는 <송아지>에 해당되고, ‘새 췌’는 “새로 구입한 소”의 의미가 강하다. ‘셋배염’에서 {셋-}과 견주어 보아도 ‘새 췌’의 {새}와 그 뜻이 같지 않다. ‘새 배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⑨ 생-

국어사전이나 목록에 올라 있다. 사전의 의미가 그대로 쓰이고 있다.

생- : 생복

⑩ 생이-

이 {생이-}는 “크기가 작은”이란 뜻을 지닌 접두사다. ‘생이’는 <새>의 방

언형으로 자립형이나, 小의 의미가 내포되어 의존형으로 바뀌어졌다.

생이- : 생이뻔망

⑪ 속-

변이형태로 {석[∞]식-[∞]속-[∞]신-}이 있다. “검은”이란 의미가 들어 있는 접두사다.

원래 ‘식’ 등은 <삼꺽이>를 뜻하는 방언형이었으나, 색깔에 중점을 둔 결과 의존형으로 변모하였다. {신-}은 고어에도 등장한다(신물).

속- : 속췌 · 속돛

석- : 석췌 · 석도야지

식- : 식췌

신- : 신어력췌

⑫ 실-

《우리말큰사전》에는 “가느다란”, “작은” · “얇은”의 뜻으로 올라 있다(실구름 · 실버들 · 실톱).

이 방언에서는 “가느다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실- : 실^ㄱ메기

⑬ 췌-

이 {췌-}는 앞에서 본 {물-}의 반대 개념으로 쓰이는 접두사다. {물-}이 “물렁물렁한”이라고 한다면 {췌}는 “단단한”의 의미가 있다.

췌- : 췌굳벗

⑭ 왕-

국어사전이나 목록에도 올라 있다. “크다”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사다.

왕- : 왕골히 · 왕재열

⑮ 자리-

국어사전이나 목록에도 올라 있지 않다. {자리}라는 자립형에서 접두사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小의 의미가 들어 있으며 ‘도새기’하고만 연결된다.

자리- : 자릿도새기

⑯ 장-

이 {장-}은 {수-}에 해당하는 방언형이다. {수-}가 접두사로 올라 있는 한 이 {장-}도 접두사로 인정함은 당연하다. 날짐승하고만 연결되는 특징도 지닌다.

장- : 장평 · 장푹

⑰ 조-

국어사전이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小의 뜻을 지니고 있는 접두사다.

조- : 조쿠쟁이 · 조우럭

⑱ 조랑-

목록에는 들어 있다(조랑말 · 조롱박). 접두사로 처리하기에 곤란하다는 견해도 보이니(崔圭一, 1989 : 70), 일단 외래어에서 차용된 어휘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접두사로 처리한다.

{조랑-}은 원래 몽골어 жороо의 차용으로, ambling 또는 fast amble의 뜻이 있다(Tömörtogoo, 1977 : 216). “네 다리로 재치 있게”라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아 小의 의미는 희박해 보인다.

조랑- : 조랑물

⑲ 찹-

이 {찹-}은 {참-}의 방언형인데, 국어사전과 목록에 올라 있다. “씩 좋은 것”, “먹을 수 있는 것”의 뜻을 지니고 있다.

춤- : 춤매 · 춤궂메기 · 춤배말 · 춤강이

㉑ 풋-

이 {풋-}은 “크기가 작은”의 뜻을 지니고 있는 접두사다. 자립형 {풋}이 의존형으로 바뀌어 쓰이고 있다.

풋- : 풋재열 · 풋강이

㉒ 풀-

목록에는 {풀-}으로 올라가 있다(풀소 · 풀고기). <청개구리>의 방언형 ‘풀굴개비’에서 접두사로 확인되는데, {풀} (草)에서도 온 것이다.

“덜 익은”의 뜻을 지닌 {풋-}형은 ‘풀-’로도 나타나고 있어(풀고기) 차이가 있다.

풀- : 풀굴개비

(2) 접미사⁵¹⁾

① -구리

이 {-구리}는 목록에는 들어 있다(옆구리 · 진구리 · 허구리).

방언에서는 사물을 뜻하는 접미사로 불구어근에 통합되는 특징을 지닌다.

-구리 : 멧렁구리 · 맹마구리

② -내기

국어사전 및 목록에 들어 있다(종내기 · 전내기 · 장내기). 그 의미는 ① “여러 사람이 널리 쓰도록 많이 만들어 내놓은 물건”, ② “그 지방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을 알잡아 일컫는 말”이다.

사물을 나타내는 접미사임은 분명하나 사전적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다. ①에 가까운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본다. 이 역시 불구어근과 통합되고 있다.

51) 이 방언의 접미사에 대해서는 宋相助(1990)에 의해 폭 넓게 다루어진 바 있다.

-내기 : 맹내기

③ -다리

이 {-다리}는 인칭접미사로 다루어진 바 있다(金洪植 1983 : 15~20). 《우리말 큰사전》이나 목록에도 들어 있어, 매우 생산적으로 쓰임을 알 수 있다(늑다리·작다리·키다리·모양다리). “어떤 속성을 가진 사람이나 사물 따위를 홀하게 나타내는 데” 쓰인다.

변이형태로는 {-다리 ∞ -더리 ∞ -더리}가 있다.

-다리 : 복쉬다리·비근다리·맥쩍다리

-더리 : 비근더리·저울더리

-도리 : 저울도리

④ -다니

국어사전이나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다. 앞에서 본 {-다리}와 비슷한 뜻을 지니고 사용된다.

-다니 : 준다니

⑤ -대기

목록에는 들어 있으나 국어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다(반대기). {-데기}의 변이형태가 아닌가 한다(번데기). 그러나 《우리말 큰사전》의 풀이처럼 “여자를 홀하게 일컫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 “여자”를 사물로 대치하면 방언형에서 처럼 비하의 뜻이 담겨있다.

-대기 : 코토대기

⑥ -래비

사전이나 목록에도 올라 있지 않다.

“어떤 사물의 속성이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뜻으로 사용된다. 변이형으로 {-라비}가 있다.

-래비 : 장칼래비·장콜래비(라비)

⑦ -래기

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목록에는 들어 있다(배래기). 부분을 뜻하는 것이 그 의미이나 방언에서는 “어떤 사물의 속성”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다.

-래기 : 보들래기 · 술래기

⑧ -맹이

사전에는 없지만 목록에는 들어 있다(외맹이 · 알맹이). “사물을 지칭하는” 접미사다.

-맹이 : 고줄맹이

⑨ -바리

이 {-바리}는 인칭접미사로 다루어진 바 있다(金洪植, 1983 : 12~15). 그 기능이 확대되어 동물의 이름에도 접미되어 쓰이고 있다.

이 {-바리}는 준자립형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마소에 짐 싣는 단위(흔 질매애 흔 바리나 시꺼젯), 장작개비의 단위(남 서너 바리 해사주), 말의 단위(물 두 바리) 등 화물 또는 묶음의 뜻이다. 특정한 어근과 통합되어 접미사의 기능을 한다.

-바리 : 한자바리 · 붉바리 · 다금바리

⑩ -배기

변이형태로 {-백이}가 있는데, 표준어 {-박이}에 해당된다.

-배기(배기) : 도방배기

-백이 : 쌀죽백이 · 태성백이

⑪ -생이

이 {-생이}는 원래 <새>의 방언형으로 자립형으로 쓰이다가, 小의 뜻을 지닌 접두사로 발달되고 한편, 접미사로도 변모되었다. 접미사의 경우는 일종의 축소사의 기능을 지닌다.

-쌔이 : 강쌔이 · 망쌔이 · 코쌔이

⑫ -악

변이형태로 {-억}이 있는데 이 {-악} 접미사는 매우 생산적임은 잘 알려져 있다(李崇寧, 1956 : 68~118). 특히 물고기 이름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악 : 불불락 · 점불락 · 붉은불락

-억 : 검평우럭 · 가시우럭 · 조우럭

이 {-억(악)} 뒤에 {-이}가 더 접미되어 쓰이기도 한다(‘보들래기’·‘술래기’).

⑬ -아지

이 {-아지}는 표준어와 같다.

-아지 : 송아지 · 강아지

⑭ -애기

축소사인 {-애기}는 <소리애기>(소래기)처럼 표준어에서도 나타나는데, 방언에서가 더 생산적이다. 국어사전에는 올라 있지 않지만 목록에는 들어 있다.

-애기 : 송애기 · 새송애기 · 도새기 · 두미애기

⑮ -와기

이 {-와기}도 축소사의 기능으로 사용된다. 국어사전이나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어떤 동작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사물”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

-와기 : 점주와기

⑯ -이

이 접미사 {-이}는 표준어에서처럼 생산성이 강한 접미사다. 통합 관계도 넓은 편이다.

-이 : 부롱이 · 모카니 · 베어럭이

⑰ -자리

이 접미사는 자립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자리'), “크기가 작은”이라는 접두사 및 접미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자리 : 벤자리

⑱ -쟁이

{-장이}의 방언형으로, 표준어에서처럼 생산적인 접미사다.

-쟁이 : 귀옥쟁이 · 허풍쟁이 · 구문쟁이 · 복쟁이

⑲ -지

목록에도 들어 있고, 《우리말 큰 사전》에도 올라 있다. “그 곳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방언에서의 그 쓰임새가 같다.

-지 : 계염지 · 덤부지

⑳ -찌

이 {-찌}는 방언형에만 나타나는 접미사다. 앞의 {-지}와 같은 계열의 접사로 보인다.

-찌 : 따찌

㉑ -치

이 {-치}는 물고기 이름에 접미되는 전형적인 접미사이다. 원래는 작은 물고기에 접미되는 것이 본령이었으나 점차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물고기 전반에 두루 쓰이고 있다.

-치 : 맹치 · 구리치 · 돈치 · 돌치 · 쏘치

IV. 語彙史에서 본 濟州島方言의 動物 이름

제주도방언의 동물 이름이 갖는 국어 어휘사적 가치는 어떠한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 제시하는 몇 가지 사항은 국어사에 볼 때 이 방언의 동물 이름들이 갖는 특징에 해당한다. 이는 아직까지 국어 어휘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 없고, 음운·문법·어휘로 나누어 기술한 국어사의 한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휘사에서 본 제주도방언의 동물이름”은 결국 국어사의 어휘 분야로 볼 때 어떤 특징과 값어치가 있는가 하는 문제와 결부된다.

(1) 多重의 층위적 어휘가 현재 이 방언에서 병존해 쓰이고 있다.

두꺼운 층위의 언어재가 병존해 쓰이고 있다는 것은 고어형에 새로운 개신형이 포개어져 있다는 말과 같다. 일찍이 木을 뜻하는 ‘남·낭·나모·나무’의 어휘를 가지고 층위학적 고찰을 시도한 바 있지만(玄平孝, 1971), 동물 이름을 통하여 폭 넓은 문헌어가 공시태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숭이〉를 예로 들면, ‘남·죃나비/죃내비·원생이’가 공시태로 병존하고 있다. ‘남’은 《훈민정음》의 어휘며, ‘죃나비/죃내비’는 《두시언해》나 《동문유해》의 어휘가 음변한 방언형이다. 반면 ‘원생이’는 표준어 〈원숭이〉의 방언형으로 현대 어휘가 된다. 그러니 15세기 어형과 18세기 어형, 그리고 20세기 어형이 공시태로 3중의 층위를 형성하고 있다.

(2) 고어성을 유지하고 있다.

고어성의 유지는 (1)항과도 관련이 깊고,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방언의 고어성을 이야기하였다. 동물 이름들을 통해서도 이 고어성은 확인된다.

《훈민정음》용자례에 나오는 〈비육〉의 ㄱ[k]이 유지되어 ‘비애기’라 한다면 《능엄경언해》·《훈몽자회》에 나오는 〈괴〉가 방언형인 ‘궐’로 쓰이고 있다.

〈고양이〉의 방언형 ‘궐’을 예로 보더라도 이 방언의 고어성을 알 수 있다.

《능엄경언해》 (1426년)	《훈몽자회》 (1527년)	《역어유해》 (1672년)	《동문유해》 (1748년)	《물명고》 (1820년)	방언 (현재)
괴	→ 괴	→ 괴	→ 괴	→ 궐	
				고양이	→ 고녕이

또 하나 이 방언에 이른바 아래아(ㅏ)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고어성의 확보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래아(ㅏ)가 들어간 동물 이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물 · 주매 · 몽생이 · 속돛 · 조도새기 · 장독 · 암록 · 속 · 조나비 · 득라미 · 고
망독새 · 골매기 · 참새 · 곡다귀 · 7랑늑 · 봉앵이 · 꽃재열 · 꼭리 · 장콜래
비 · 골개비 · 돈물장의 · 준다니 · 돌치 · 논쟁이 · 7매기 · 돌뱅이 · 습

(3) 음절 신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음절 신장이란 음절구조의 신장을 말한다. 음절구조의 신장은 색채어가 첨가되거나 형상을 뜻하는 어휘가 덧붙여지기도 한다. 나아가 접사가 연결되어 음절 구조의 신장을 꺾하고 있다.

① 색채어 첨가

색채어 첨가는 색깔을 나타내는 어휘가 첨가되는가 하면(A형), 색채를 대표하고 있는 어휘 즉 색채 대응어가 첨가되기도 한다(B형).

A형

黑色系: 검은색 · 검은어럭색 · 검은월라물 · 검은돛 · 검은개 · 가문둥 · 검
평우럭 등
赤色系: 노린색 · 노린어럭색 · 황어럭색 · 노린월라물 · 노린개 · 붉은게염
지 · 베붉은개개비 · 황애이리 · 붉은불락 · 붉바리 등
白色系: 모카니 · 부원유매 · 흰조기 등
靑色系: 청두미애기 · 청가개비 등

B형

가마귀(黑): 가마귀부리 · 가매기보말
그스렁(黑): 그스렁독새
고치(赤): 고치적대물 · 고치밥주리
불(赤): 불한되
제(灰): 제세
심방(雜色): 심방나비 · 심방깅이

A+B형의 경우도 가끔 있는데 ‘제노린색’ · ‘제노린어럭색’이 여기에 속한다.

② 형상어 첨가

여기서 형상어는 구체적인 사물을 뜻하는 어휘를 말한다. 이 동물이 “어떻게 보이느냐” · “무엇으로 보이느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 “무엇”에 해당하는 대답의 어휘가 곧 형상어가 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작박도리새 — 작박
 귀옥쟁이 — 귀가 옥다
 활등이 — 활(弓)
 장삼계엄지 — 장삼
 저울도리 — 저울
 장칼래비 — 긴 칼(長刀)
 제비가오리 — 제비
 돌치 — 달(月)
 곰배군벗 — 곰방메
 고양이이빨 — 고양이 이
 돌킹이 — 돌(石)
 가마귀부리 — 까마귀
 눈벌렁이 — 눈이 크다
 종배말 — 종
 문다드리 — 문 닫다(閉門)

예에서 보듯 구체적인 사물들 즉 ‘작박’(얇은 나무박) · 귀 · 활 · 장삼 · 저울 · 칼 · 제비 · 달 · 곰방메 · 고양이 · 돌 · 가마귀 · 눈(目) · 종 · 문 등 구체적인 사물을 나타내는 어휘가 동원된다.

③ 접사 첨가

접미사는 사물에 붙는 것이 대중을 이루고 있고 생산성도 높기 때문에 어휘 신장을 초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접미사는 제외하고 접두사만 보기로 하자.

접두사는 색채의 의미가 보강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A형), 형태를 나타내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B형). 먼저 그 예부터 보자.

A형

뚫- (黑) : 뚫거미 · 뚫어랭이

먹- (黑) : 먹가래물 · 먹보말

속- (黑) : 속돛

신- (黑) : 신어럭새

식- (黑) : 식새

석- (黑) : 석새

풀- (靑) : 풀굴개비

B형

땅- (小) : 땅개 · 땅강생이

민둥- : 민둥머리새

생이- (小) : 생이빨망

실- (細) : 실꺾메기

왕- (大) : 왕재열

자리- (小) : 자릿도새기

조- (小) : 조쿠쟁이

풋- (小) : 풋재열 · 풋강이

예에서 알 수 있듯이 黑의 의미로 {돛- · 먹- · 속- · 신- · 식- · 석-} 등 6개의 접두사가 있고, 小의 뜻으로 {땅- · 생이- · 자리- · 조- · 풋-} 등 5개의 접두사가 있다. 하나의 색채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5~6개의 접두사가 있다는 것은 이 방언의 동물 이름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어휘 팽창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어휘 팽창이라는 것은 어휘수의 증가를 말한다. 시대가 바뀔 때 따라, 문물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예전이나 현재나 동물의 종류는 변하지 않는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 감소되면 되었지 증가하지는 않는다. 동물의 종류는 그대로인데 그 이름이 팽창한다는 것은 다른 언어가 유입된다는 말과 같다.

이 방언의 동물 이름에 유입된 언어로는 몽골어를 비롯하여 한어 · 일본어의 차용어가 있다(III장 차용어참조). 한어는 국어 어휘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이기 때문에 별문제 없지만 몽골어는 주목을 요한다.

국어 어휘 체계는 고유어가 쓰이던 1원 체계가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 한자가 유입되어 2원 체계가 되었다. 이 2원 체계가 국어 어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다시 여기에 차용어가 가세하여 3원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3원체계의 시발은 고려말 몽골어와의 접촉을 들 수 있다. “13·14세기의 사람들은 우리가 현대 영어 차용어를 잘 알듯이 몽고어 차용어를 알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李基文, 1991: 164)는 지적은 음미할 가치가 크다. 특히 제주도방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小倉進平(1944)의 자료집에는 13개의 말 이름이 올라 있는데 전부 제주도에서 조사되었다. 小倉進平을 필두로 하여 말 이름 가운데에는 몽골어 차용어가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李基文(1964·1985·1991)에서는 말 이름을 비롯하여 이 방언의 祿大와 加達도 몽골어 차용임을 밝히고 있다. 강영봉(1992)에서도 <땀치>의 방언형 ‘도곰’이 몽골어 차용임을 밝혔다(<몽어유해> 하: 15의 馬糞드래○토흙).

이같은 성과는 이 방언에 의지한 결과로 몽골어와 관련시켜 차용 관계를 살필 때 제주도방언이 절대적인 위치에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元の 지배가 고려시대이니 몽골어 차용은 웅당 開城語가 동원되어야 하지만 아직 우리들은 이 개성어를 마음대로 접할 기회가 없다. 몇 문헌에 의존하는 게 고작이다. 특히 제주도는 직·간접으로 100년(1273~1368) 가까이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더 연구해보면 마소에 관련된 어휘뿐만 아니라 地名을 비롯하여 그 논외의 대상을 더 넓게 찾을 수도 있으리라 믿는다. 이런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방언이 동원되어야 함을 동물 이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5) 희귀어

희귀성이 발견되는 어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소: 모카니
말: 피말이·함부리
새: 줄레
곤충: 산태
갑각: 만발

이 이름은 고문헌이나 다른 방언에서 찾을 수 없는 희귀어들이다.

‘모카니’는 “목에 흰 줄이 둘러져 있는 소”를 말하고, ‘피말이’는 “이마에서 코까지 흰 줄이 있는 말”을 뜻한다. ‘함부리’는 《물명고》에 나오는 <함오>와 관련이 있을 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줄레’도 문헌어 <풀에>에 대응하는 이름으로 또한 마찬가지다. ‘산태’·‘만발’도 이 방언에서만 쓰이는 동물 이름들이다.

(1)~(5)항까지 내용들이 이 방언의 동물 이름들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Ⅱ장의 일람표를 보더라도 방언형에 대응하는 문헌어 및 표준어가 공란으로 비어 있는 게 너무나 많아 방언 어휘가 풍부함을 보여주고 있다.

V. 結 論

제주도방언에서 쓰이는 350여 동물 이름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동물 이름들을 형태 분석하여 내재된 의미를 추출하기도 하였고, 문헌어와 다른 방언 어휘와 비교도 하였다. 동물 이름의 변천 과정을 보이기 위하여 문헌어를 찾아 나열하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명명 방법의 유형, 계통별 유형, 형태별 유형을 알아보고, 제주도방언의 동물 이름 어휘들이 갖는 어휘사적 가치도 살펴보았다. 이제 중요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한다.

(1) 동물 이름 중에 單種으로 마소의 이름이 세분화되어 있다. 이는 제주도가 처한 환경적 조건에서 찾을 수 있는데, 곧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이 골이 천연적인 울타리 구실을 하게 되고, 높은 산은 꿀의 성취를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중년목장을 형성, 방목에 의존한 결과다.

(2) 이 방언의 동물 이름에 대한 명명 방법은 色彩・形態・習慣・機能・成稚・類推에 의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색채・형태・유추에 의한 방법이 우세한데, 天文語를 빌어 쓰려는 인간의 본능과 명명자의 관념이 반영된 결과다.

(3) 이 방언의 동물 이름을 계통별로 분류할 때 고유어・차용어・혼합어가 있다. 이중 고유어의 이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에서 본 명명자의 관념이 반영된 결과 동물을 구별하려는 세분화의 필요성에 기인하고 있다.

고유어는 약 80%가 되는데, 문헌어의 충실한 반영이다. 언중의 보수성과 함께 아래아(ㅏ)의 유지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차용어는 몽골어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특히 마소 이름이 많이 차용되어 있는데, 이는 제주도가 元의 최대 목마장이었음 상기하면 온당한 일이다. 소 이름 중 ‘부사리’는 몽골어의 차용으로 보인다. 일본어 차용은 3개 이름에 불과하다.

(4) 이 방언의 동물 이름들을 음절구조로 볼 때 3음절어(42.8%)・2음절어

(23.5%) · 4음절어(20.5)가 대중을 이루고 있다. 1음절어는 15개 어휘에 지나지 않고, 6음절어는 3개 어휘에 불과하다.

음절 신장은 접사의 첨가, 색채어 연결, 그리고 어휘의 세분화의 필요성에 따르고 있다.

(5) 이 방언의 동물 이름 어휘 구성은 크게 'X+α'형과 'X'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X'의 구성은 ① N유형 ② V유형 ③ A유형 ④ Ad유형 ⑤ Pf유형 ⑥ Sf유형이 있다.

① N유형은 N+(N)N형, N+A+(N)형, N+V+(N)형, N+Sf+N형이, ② V유형은 V형, V+Sf+N형으로 구분된다. ③ A유형은 A형, A+N형, A+N+A형이 있으며 ④ Ad유형은 Ad형, Ad+N형 구성으로, ⑤ Pf유형도 Pf형과 Pf+N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⑥ Sf유형은 (N)+N+Sf형, N+V+Sf형, (V)+V+Sf형, A+Sf, N+A+Sf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 N유형에 가장 생산성이 있다. 이는 동물 이름이 명사이기 때문이다. N유형 다음으로 Pf유형·Sf유형도 생산성이 보인다. Ad유형은 몇 어휘에 불과하다.

(6) 접두사 {뚫-} · {뚱-} · {먹-} · {생이-} · {숙-} · {신-} · {식-} · {췌-} · {자리-} · {장-} · {조-} · {조랑-} · {뽏-} · {플-} 등은 동물 이름에서 새로 찾게 되었다.

(7) 접미사 {-다니} · {-래비} · {-생이} · {-애기} · {-와기} · {-자리} · {-찌} 등도 새로 찾게 되었다.

(8) 이 방언의 동물 이름들이 지닌 어휘사적 가치는 ① 多種의 어휘층위를 구성하고 있는 점, ② 고어성 유지, ③ 음절 신장이 색채어 첨가·구체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어휘 첨가·접사의 첨가가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는 점, ④ 어휘 팽창은 차용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몽골어에 의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같은 현상은 이 방언의 동물 이름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있다.

參 考 文 獻

訓民正音
 龍飛御天歌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楞嚴經諺解
 法華經諺解
 圓覺經諺解
 救急方
 杜詩諺解
 救急簡易方諺解
 四聲通解
 訓蒙字會
 時用鄉樂譜
 新增類合
 千字文
 詩經諺解
 小學諺解
 老乞大·朴通事
 譯語類解
 倭語類解
 松江歌辭
 同文類解
 蒙語類解
 方言類釋
 物譜
 才物譜
 青館物名攷
 物名考
 字類註釋

강공택 (1986) : “濟州方言의 反復副詞構造研究”, 제주대 교육대학원.

姜根保 (1972) : “濟州島方言語彙攷”, 『國文學報』 4집, 제주대 국어국문학회.

- 강영봉(1982): 「濟州島方言에서의 意味統合의 한 類型」, 『북천심여택선생회갑기념논총』.
- (1986^a): 「濟州島 方言의 魚名研究」, 『논문집』 23집, 제주대학교.
- (1986^b): 「제주도방언의 식물이름연구」, 『耽羅文化』 5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1990): 「말이름(馬名)에 대한 管見」, 『한얼』 4, 방통대 제주지역국어과.
- (1991): 「제주방언의 인제어」, 『경기어문학』 9집,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 (1992): 「濟州島方言의 蒙古語 借用語들(1)」, 『濟州島言語民俗論叢』, 제주문화.
- 康貞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 출판부.
- 高永根(1974): 「現代國語의 接尾辭에 대한 構造的 研究」, 광문사.
- 高昌錫(1985): 「元代의 濟州島 牧場」, 『濟州史學』 창간호, 제주대 사학과.
- 權僑吉·朴甲萬·李俊相(1993): 「원색 韓國貝類圖鑑」, 아카데미서적.
- 金文奎(1960): 「耽羅方言試攷」, 『개교10주년기념논문집』, 원광대학.
- 김병제(1980): 「방언사전」,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김순이(1990): 「제주도의 잠수용어에 관한 조사보고」, 『조사연구보고서』 4집,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金榮敏(1990): 「海女集團의 特殊語彙에 관한 研究」, 『성곡논총』 21집, 성곡학술문화재단.
- 金英培(1976): 「平安方言의 音韻體系研究」, 동국대 대학원.
- (1984): 「平安方言研究」, 동국대 출판부.
- 金永泰(1975): 「慶尙南道方言研究」, 진명문화사.
- 金完鎭(1957): 「濟州島方言의 日本語 語詞 借用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8호, 국어국문학회.
- 金容俊(1976): 「古文獻에 記錄된 魚名의 考察」, 한양대 대학원.
- 金履浹(1981): 「平北方言辭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金泰均(1986): 「咸北方言辭典」, 경기대 출판부.
- 金亨奎(1980): 「韓國方言研究」, 서울대 출판부.
- 金炯秀(1974): 「蒙學三書研究」, 형실출판사.
- 김형훈(1965): 「맹씨 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한 고찰」, 『제대법학』 창간호, 제주대 법학회.
- 金洪植(1975): 「『欽』語에 대한 小考」, 『논문집』 7집, 제주대학교.
- (1979): 「濟州島方言 ‘가쟁이’語攷」, 『논문집』 11집, 제주대학교.
- (1980): 「『비바리』語攷」, 『延岩玄平孝博士回甲紀念論叢』.
- (1982): 「濟州島方言의 ‘낭’語攷」, 『논문집』 14집, 제주대학교.
- (1983): 「濟州島方言의 接尾辭考」, 『耽羅文化』 2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김훈수(1974) : 「한국동식물도감」 14권(집계·계류), 문교부.
- 南廣祐(1975) : 「補訂 古語辭典」, 일조각.
- 朴用厚(1960·1988) : 「濟州方言研究」(자료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方鍾鉉(1937) : 「濟州島方言採集行脚」, 「朝光」 3-2.
- 石宙明(1947) :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 출판부.
- (1971) : 「濟州島資料集」, 보진재.
- 徐炳國(1975) : 「現代國語의 語構成 研究」, 경북대 대학원.
- 성산수산고등학교(1983) : 「수산일반향토교육자료」.
- 宋相助(1985) : 「濟州島方言의 考察 : 문헌어와 대비를 위한」, 「濟研」 7집, 제주대 제주
도문제연구회.
- (1989) : 「제주도방언의 고찰(2) : 문헌어와 대비하여」, 「耽羅文化」 9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 (1990) : 「제주도방언의 접미 파생어 연구」, 동아대 대학원.
- 申景澈(1984) : 「「物名考」의 動物名 語彙考」, 「상지대병설실업전문대 논문집」 3집.
- 劉昌淳(1974) : 「李朝語辭典」, 연세대출판부.
- 이기갑(1986) : 「전라남도의 언어지리」, 탐출판사.
- (1990) : 「방언 어휘론」,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지식산업사.
- 李基萬(1971) : 「濟州島의 毛色의 在來名稱 및 分布에 관한 研究」, 「건국학술지」 12집,
건국대학교.
- 李基文(1964·1991) : 「中世國語의 蒙古語 借用語」, 「國語語彙史研究」, 동아출판사.
- (1966) : 「용골명의 기원적 고찰」, 「가람이병기박사송수기념논문집」.
- (1985) : 「蒙古語 借用語에 대한 研究」, 「語學研究」 21-1, 서울대 어학연구소.
- (1991) : 「國語語彙史研究」, 동아출판사.
- 李男德(1982) : 「「가운데」 語源考」, 「북천심여택선생화갑기념논총」.
- (1985^{a·b}) : 「韓國語語源研究」 (1)·(3), 이화여대 출판부.
- 李敦柱(1979) : 「全南方言」, 형실출판부.
- 이상규(역)(1988) : 「방언연구방법론」, 형실출판사.
- 李崇寧(1935) : 「魚名雜攷」, 「진단학보」 2, 진단학회.
- (1956) : 「接尾辭 -k(g), -ŋ에 대하여」, 「서울대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4집, 서
울대.
- (1980) : 「용자명에 관한 어휘의 과찰」, 「정신문화」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李英姬(1982) : 「濟州島方言의 象徵語研究」, 제주대 교육대학원.
- 李翊燮(1981) : 「嶺東 嶺西의 方言分化」, 서울대 출판부.

- 李定宰·白文河(1982): "濟州沿岸에 分布하는 海洋動植物의 地方名에 關하여: 魚貝類", 「研究報告」 6, 제주대 해양자원연구소.
- 임지룡(1987): "국어 분류어휘집의 체제와 상관성", 「國語學」 19, 국어학회.
- 張泰鎭(1969^a): 제주도 해녀집단의 특수어에 대하여,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울유문화사.
- (1969^b): "물고기 이름의 어휘 연구", 「한글」143, 한글학회.
- 鄭文基(1986): 「韓國魚圖譜」, 일조각.
- 제주대 국어국문학과(1972~1992): 「國文學報」 4집~11집.
- 제주대 국어국문학과(1977~1977): 「학술조사보고서」 5집·6집.
- 제주대 국문·국어교(1982~1984): 「학술조사보고서」 7집·8집.
- 제주대 국어교육과(1987~1990): 「백록어문」 2·5·6·7.
- 조항범(1989): "국어 어휘론 연구사", 「國語學」 19, 국어학회.
- (주) 중문관광어촌(1991): 「배릿내學術調查報告書」.
- 崔圭一(1989): 「한국어 語彙形成에 관한 研究」, 성균관대 대학원.
- 崔鶴根(1962): 「全羅南道方言研究」, 한국연구원.
- (1978): 「國語方言辭典」, 현문사.
- 편찬위원회(1992): 「韓國文化상징사전」, 동아출판사.
- 하치근(1989): 「국어파생형태론」, 남명문화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7^a): 「韓國方言資料集」 III (충청북도편).
- (1987^b): 「韓國方言資料集」 V (전라북도편).
- (1989): 「韓國方言資料集」 VII (경상북도편).
- (1990): 「韓國方言資料集」 II (강원도편).
-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4(옛말과 이두), 어문각.
- 玄平孝(1962·1985): 「濟州島方言研究」(자료편), 정연사.
- (1968): "濟州島方言에서의 '나물'語詞에 대한 語源的 考察", 「제주도」 37호, 제주도.
- (1968): "濟州島方言에서의 '나무'와 '나물'語詞에 대한 語源的 考察", 「국어국문학논집」 7·8집, 동국대 국어국문학회.
- (1971): "濟州島方言의 言語層位學的 考察", 「지현영선생회갑기념논총」.
- (1985): 「濟州島方言研究」(논고편), 이우출판사.
- (1987): "濟州島方言 研究의 現況과 課題", 「濟州島研究」 4집, 제주도연구회.
- 강영봉(1993): "方言", 「濟州道誌」 3권, 제주도.
- 小倉進平(1924): "朝鮮語の歴史的的研究上より見たる濟州島語の價值", 「南部朝鮮の方言」.
- (1944): 「朝鮮語方言の研究」(上)(下), 岩波書店.

- 河野六郎(1942)：「朝鮮方言學試攷：‘鉢’語考」，東都書籍。
- 梅田博之(1963)：「朝鮮語諸方言の基礎語彙統計學的研究」，「朝鮮學報」27，天理大朝鮮學會。
- 小澤重男(1983)：「現代蒙古語辭典」，大學書林。
- Tömörtoḡo(1979)：「現代 蒙·英·日辭典」，開明書院。
- 羽田 亨(1972)：「滿和辭典」，國書刊行會。
- 哈勒楚倫(1970)：「蒙古語文」，중국변강역사어문학회。
- Lessing(1960)：*Mongolian-English Dictionary*, Univ. of California Press.
- J·K. Chambers·Peter Trudgill(1980)：*Dialectology*, Cambridge Univ. Press.
(이상규·서보월·백두현 역：「방언학개설」(1986)，경북대 출판부.)
- Winfred P·Lehmann(1975)：*Historical Linguistics: an Introduction*, Oxford & IBH Publishing Co.
(金載福(1984) 역：「역사언어학 개설」，형설출판사)

A Study of Animal Names in Cheju Dialect

Kang young-bong

The present paper studies some 350 animal names used by speakers of Cheju Dialect of present time. The categories discussed are (1) livestock, (2) wild animals, (3) birds, (4) insects, (5) reptiles and amphibians, and (6) fish, clams, and crustaceans.

Chapter Two provides analysis of the animal names. The names are gathered from relevant reports by other researchers or from my own search. Knowledge of informants was very helpful in my analysis. For example, the lexical meaning of 'dzule' ('kkøbyengi' in Standard Korean), "a pheasant larger than 'kkøbyengi'" is rather vague. However, my informant explained that a 'dzule' was used as decoy to capture larger female pheasants. That explanation shed light in connection to 'phudike' or 'phwdzike' which means "decoy" and is observable in the literature of the nineteenth century.

To show the relationship of present animal names to Korean used several centuries ago, I provided relevant lexicon items from the literature of the fifteenth century to the nineteenth century. I also compared them with their equivalents in other Korean dialects of present time to check their similarities.

Cheju Dialect displays fine distinctions of cattle and horses. This trait may be explained by the fact that residents of Cheju had a strong need for fine distinctions as they let their cattle and horses graze the natural pastureland of Mt. Halla for the whole year.

Chapter Three discusses word formation patterns of the animal names. The name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distinguishing factors such as color, physical appearance, habits, function, and analogy.

They are also categorized according to origin of the words, for example, from old Korean, Cheju Dialect, loan word, and of mixed origin. Analysis showed that factors of color, physical appearance, and analogy were dominantly used in naming. It also showed that names of dialect origin were dominant in cattle, horses, insects and fish. The fact that Cheju dialect has many loan words from Mongol is well known and the trait was well noticed in horse names. Loan words from Japanese were also noticed in fish name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prefixes, 'dot-', 'shik-', 'shin-', 'dzang-', and 'phot-' and suffixes, '-tzi', '-dzari', and '-bari' are discovered.

Chapter Fou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animal names in present Cheju Dialect from the perspective of diachronic lexical study. They displays lexicon items from the fifteenth through the nineteenth centuries. They also provide some data base for study of loan words from Mongol. Furthermore, they show patterns of naming and fine distinctions. Lastly, the numerous animal names of Cheju Dialect origin has expanded the data base of lexical items in the dialect.